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
2013 February Vol.254

Sweet Valentine

2013 스티브 바라캇 콘서트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7회 정기연주회



지휘 김대진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7회 정기연주회

Program

번스타인 | 「칸디드」 서곡
L. Bernstein | Overture to "Candide"

거슈윈 | 피아노 협주곡 바장조
G. Gershwin | Piano Concerto in F Major

드보르작 |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A. Dvorák | Symphony No.9 "From the New World"

2013. 2. 28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피아노 손열음

주최 부산광역시 문의 607-3111~3(부산시행) 607-3100(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세계를 뒤흔든 위험한 사랑

DAS MUSICAL

황태자 루돌프

Rudolf

2013.3.16(토)~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1599-7448** 예매처 티켓마루, 인터파크

관람료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1599-7448 전화예매시 적용)



봄이 오는 길목에서

2013. 02. 21 / 목 /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오세종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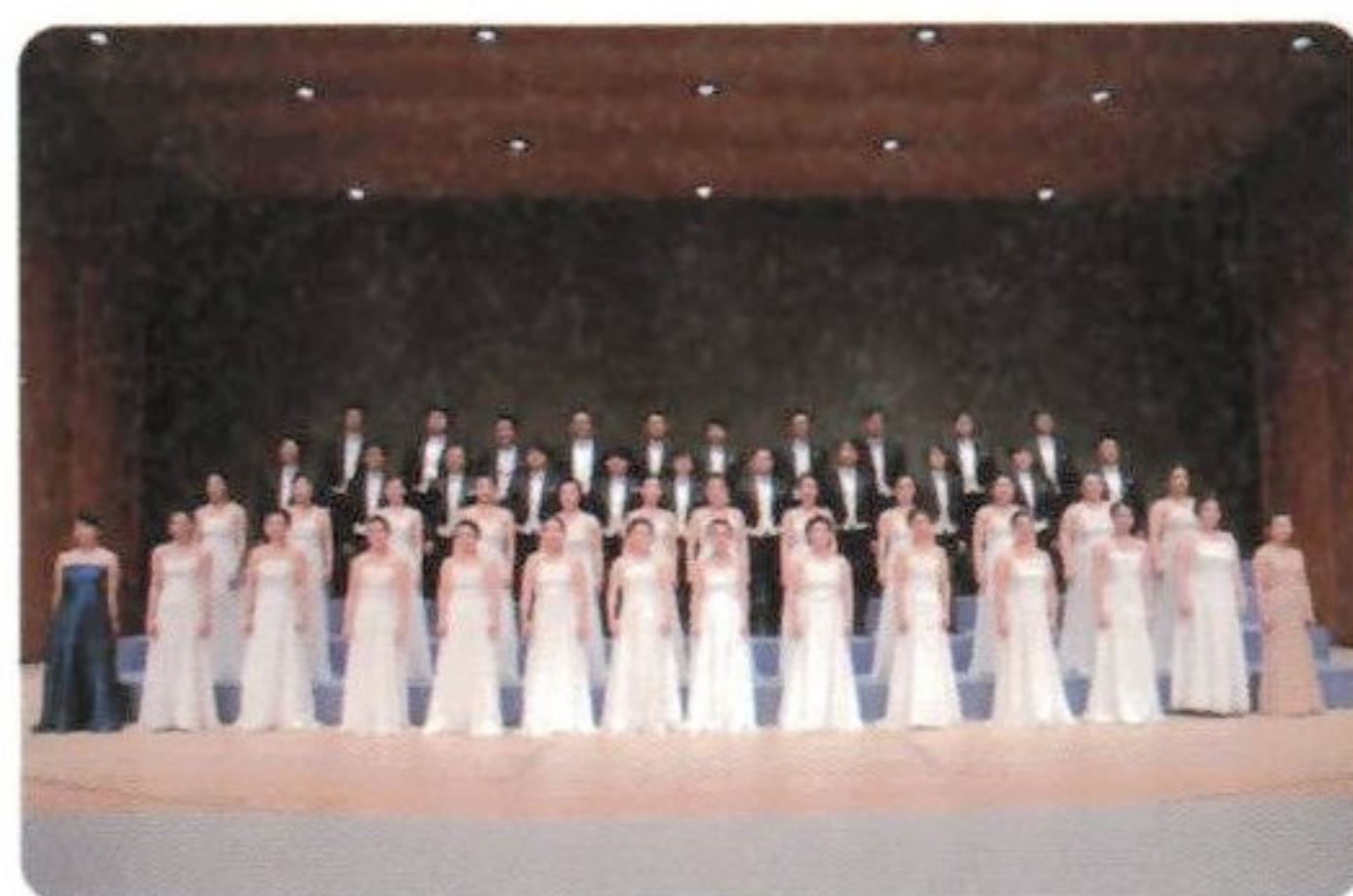
지휘 오세종



피아노 이승운



피아노 이경미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입장료. R석-10,000원, S석-7,000원, A석-5,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합창단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4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 06 커버스토리 | 2013 스티브 바라캇 콘서트 'Sweet Valentine'
- 08 프리뷰
- 14 반갑습니다 | 수원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김대진
- 1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독일의 사육제 _ 김지혜
- 20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⑭ | 알퐁스 도데와 조르주 비제의 <아름의 여인> _ 이동신
- 22 불멸의 거장 - 드뷔시 ② | 청년 드뷔시, 인상주의 작곡가로 꽃 피다 _ 최윤희
- 24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⑭ |
지장기마도(知章騎馬圖) 단원은 지장이 되고 형암은 정조에게 해설하다 _ 변광석
- 26 그곳에 가면 | 서동예술창작공간
- 28 우리는 문화가족 | 구연동화봉사단 '이야기수레'
- 30 리뷰 | 천만 관객보다는 천만번의 박수를 _ 김희진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토론방송 _ 남인용
- 32 테마가 있는 여행 |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생태도시 순천
- 35 CULTURE LIFE
- 56 부산문화회관 소식
- 58 100자 토크
- 59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년 2월호 통권 254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동환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3년 1월 25일

인쇄처 | 디자인글꼴 Tel. 051)636-1210 www.ggad.co.kr



클래식, 뉴에이지, 팝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의 대가

2013 스티브 바라캇 콘서트

Sweet Valentine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탁월한 감각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이 2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초청으로 첫 부산공연을 갖는다. 클래식, 뉴에이지, 팝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의 대가 스티브 바라캇은 2005년 첫 내한 공연을 가진 이래 2007년 신영옥 & 스티브 바라캇 듀오 콘서트, 2008년 스티브 바라캇 심포니 콘서트, 2009년 스티브 바라캇 콘서트 <Sweet November> 공연에 이어 2011~12년 예술의전당에서 <Sweet Concert>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클래식 팬들에게 감미로운 사랑의 선율을 선사해왔다. Rainbow Bridge, Flying 등 라디오, CF

배경음악으로 친숙한 로맨티스트 스티브 바라캇의 음악은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주는 감미로운 멜로디의 전형이다. 지난 2년간 스티브 바라캇은 피아노 솔로, 가수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무대, 자신이 작곡한 '에드 비탐 에티넘' 교향곡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그의 다양한 음악성을 선보여왔다. 특히 이번 부산무대는 대중을 사로 잡는 환상의 팝 사운드, 드라마틱한 프로그래밍, 화려한 조명이 함께하는 라이브 무대로 스티브 바라캇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밴드와 함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1973년 '뉴 에이지 음악'의 아버지인 앙드레 가농의 고향 캐나다 퀘벡에서 태어난 스티브 바라캇은 어려서부터 정통 클래식 수업을 받았다. 13세 때는 퀘벡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을 정도로 천재소년이란 소리를 들었던

스티브 바라캇은 어릴 적부터 재즈에도 관심을 보이며 많은 도전적인 음악적 경험을 즐겼다. 꾸준한 클래식 음악 공부를 거듭하며 14살에 첫 데뷔 앨범 'Double Joie'를 발표한 스티브 바라캇은 발매 일주일 만에 캐나다 앨범 판매 순위 20위권 내에 진입하는 쾌거를 보였고, 16살에는 작곡과 편곡, 엔지니어 능력 등 프로듀서로서의 모든 기술을 마스터했다.

일시 2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가장 세련된 감각을 자랑하는 이 시대의 로맨티스트!

꿈꾸는 듯한 몽롱한 서정성이 넘치는 앙드레 가농과 비교할 때 스티브 바라캇의 음악은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이다. 추억에 한없이 빠져들어 현실을 떠나버리게 만들기 보다는, 추억이 있다면 이를 객관화시켜 바라보게 하고 현재성을 유지하게끔 한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애상에 젖어 들고 싶은 로맨티시스트들은 물론 낭만을 부담스러워하는 현대인들, 기분 좋은 하루를 열고 싶은 누구에게나 사랑 받고 있다.

스티브 바라캇은 캐나다에서만 안주하지 않고

아시아로 눈을 돌려 유명한 가수들에게 많은 곡을 써주었다. 이런 그의 노력은 특히 일본에서 빛을 발하면서 일본의 유명한 드라마와 가수 팀워크를 이뤘다. 그가 작곡한 'Kaze to Kino Uta-Quebec 1608'을 일본 대중가수 신세레가 노래하면서 인기가 올라갔고, 1999년에는 당시 일본 최고의 가수인 요코 오기노 메가 녹음한 'We'll Be Together'가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TV 쇼 프로그램 <Shitteru Tsumori>의 메인 테마로 사용되기도 했다.

홍콩에서는 1996년 여명과 알란 탐을 위한 듀엣곡 'Song Of Stars'와 여명을 위한 'Fell Leon & Quot' 앨범의 'Ni Shi Shui'라는 곡을 작곡,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2000년에는 일본의 슈퍼스타 노리코 사카이에게 곡을 주며 다시 한번 일본에서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Nuit d'Amour A Paris'는 NHK 드라마 <One More Kiss>에 삽입되어 엄청난 반

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하루' 삽입곡 'The Whistler's Song', MBC TV 드라마 <에어포스>의 러브 테마곡 'Mou Tian...(Un Jour...)', MBC 미니시리즈의 <맛있는 청혼> 테마곡 'Dreams'가 소개되었다. 2005년 스티브 바라캇의 첫 내한공연 당시 'Rainbow Bridge' 'The Whistler's Song'은 벨소리 및 컬러링 서비스에서 뉴에이지/재즈 장르 부문 1, 2위를 기록하였고 아직까지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피아니스트로서만 머물지 않고 프로듀서, 작곡가 등의 영역에 대한 끝없는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스티브 바라캇. 2월,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스티브 바라캇의 특별한 음악선물이 기다려진다.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설맞이 국악한마당



악장 채수만

●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2월 9일, 1년을 준비하는 깨끗하고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무병장수와 풍요에 대한 소망을 담아 '설맞이 국악한마당'을 펼친다.

채수만 악장의 집박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이종록의 시조창, 장선희 무용단의 흥겨운 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와 신예 최백송, 구은슬이 들려주는 민요, 정우수가 이끄는 부산고분도리 걸립의 판굿 등 신명난 무대가 펼쳐진다.

첫 무대는 궁중 연례음악 '수연장지곡(壽延長之曲)'으로 연다. '수연장지곡'은 국가의 경축이나 외국 빈객의 접대 등으로 궁중에서 베푸는 연례악(宴禮樂)이다. 수연장지곡의 악기편성은 가야금, 거문고, 향피리, 대금, 소금, 해금, 장구이나 경우에 따라 편종, 편경, 좌고, 아쟁 등의 악기를 첨가하기도 한다. 채수만 악장의 집박으로 2013년의 한해 국악애호가들의 장수를 기원하며 2013년 활동의 서막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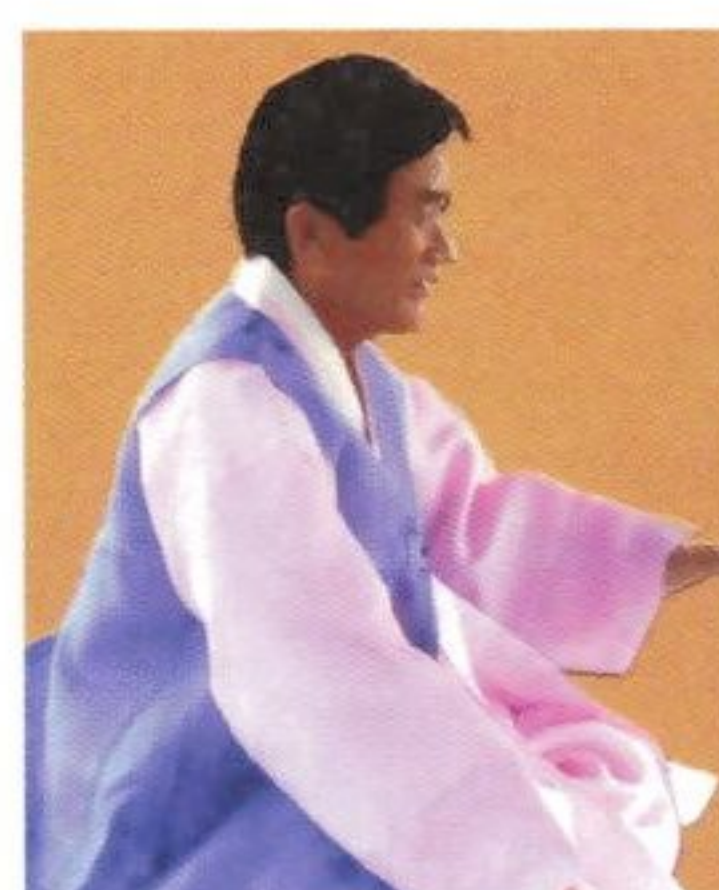
이어지는 무대는 이종록의 영제시조. 시조는 조선후기에 풍류를 좋아하는 양반, 일반가객들에 의해 변화 발전된 것으로 바른 몸가짐으로 정대하게 부르

는 예술 성악곡이다. 각 지역마다 약간 다른 지역적 특징이 있는데 이를 경제(서울, 경기), 완제(전라도), 영제(경상도), 내포제(충청도)로 구분하고 있다. 전주대사습 시조부 장원을 차지하고 현재 영제 시조 예능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및 제41호 가사 예능 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록은 이번 무대에서 영제시조(嶺制時調) 평시조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와 사설시조 '한잔 먹세 그려(송강 정철의 장진주사)'를 들려준다. 이종록의 영제시조 음반은 영국 대영박물관, 미국 의회도서관, 국악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우리 춤의 전승 보급을 위해 노력해온 장선희 무용단은 장구춤, 오고무로 부산시민들을 만난다. 장구춤은 농악의 설장구 놀이처럼 무용수가 장구를 메고 다양한 장단을 구사하면서 추는 춤으로 독무(獨舞), 또는 군무(群舞)형태로 재구성되기도 한다. 오고무는 인간 내면의 세계를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북의 소리와 짓을 통해 표현한 작품으로 우주의 소리 중 땅의 소리인 북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을 묘사하여 새 생명의 에너지가 움트는 듯한 기운과 역동성을 표현한다.

역동적인 춤 무대에 이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일시 2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무료 초대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1~4)



시조 이종록



무용 장선희



민요 박성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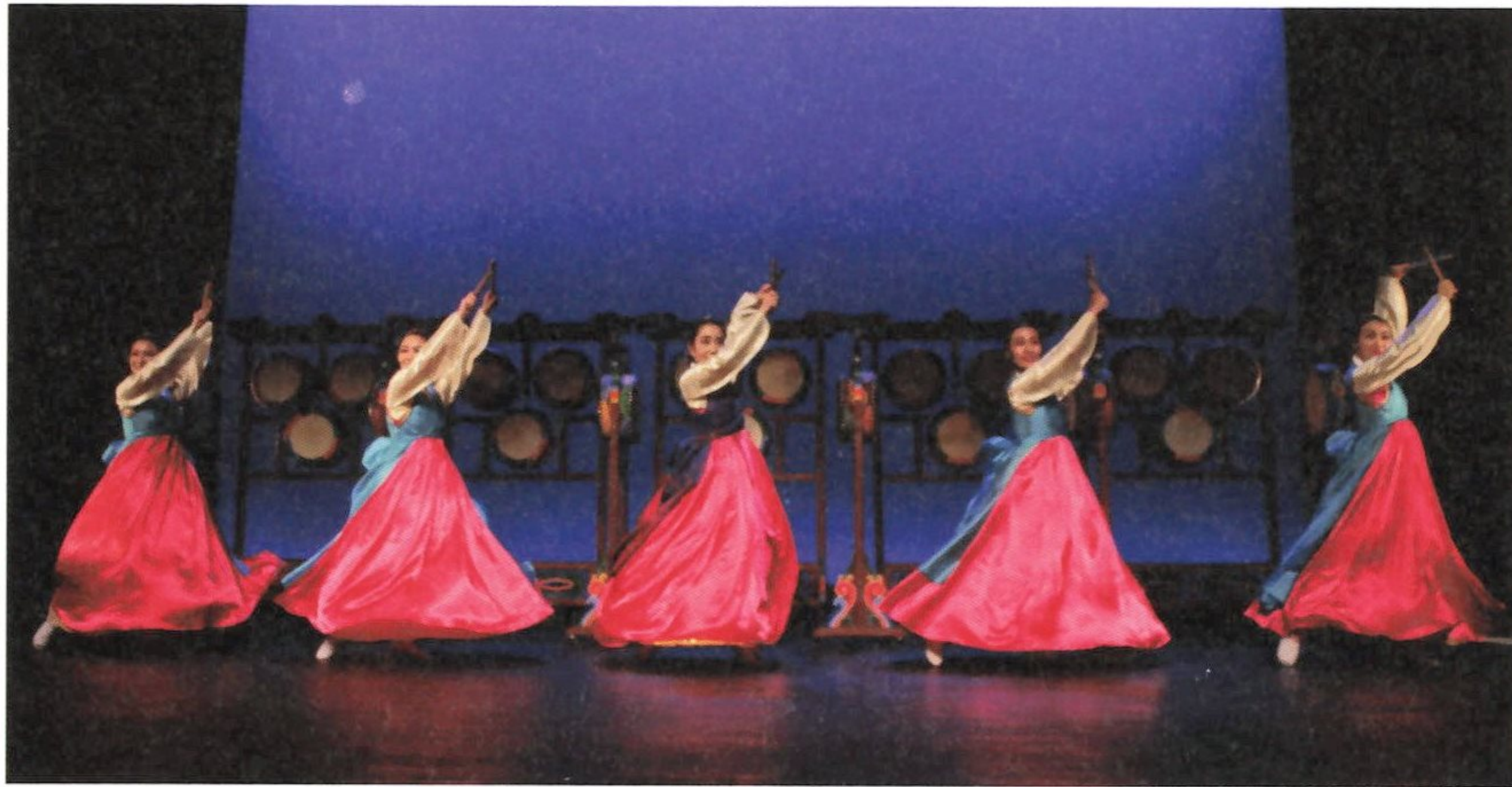
민요 정선희



민요 최백송



민요 구은슬



장선희무용단



부산고분도리 걸립

대표 소리꾼 박성희와 정선희, 신예 소리꾼 최백송, 구은슬이 새해에 밝고 흥겨운 기운을 담아 흥겨운 민요 한마당을 펼친다.

마지막 무대는 2011년 부산시지정무형문화재 제 18호로 지정된 부산고분도리 걸립(단장/정우수)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주현, 최오성, 박재현, 진형준이 판굿으로 흥겨운 휘날레를 장식한다. 판굿은 걸립패(동네의 경비를 목적으로 돈이나 곡식을 억기 위해 풍악을 연주했던 무리)와 남사당패(떠돌며 노래와 춤, 풍물, 연주, 재주 등을 연행하였던 집단)가 연행하던 음악과 놀이의 종합예술이다. 다이내믹한 악기연주와 일정한 형식의 진, 그리고 중, 포수 등과 같은 특정한 캐릭터로 분장한 잡색들이 놀이로 꾸며지며, 판굿 연희자들은 악기 연주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살려 여러 가지 진법 놀이를 벌이고 상쇠놀이, 설장구놀이, 소고놀

이와 같은 개인 놀음을 진행한다.

부산고분도리 걸립은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일대의 옛 지명인 고분도리 지역에서 행해졌던 걸립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정초에 나쁜 일을 물리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제액초복, 또는 벽사진경을 기원했던 풍물굿이다. 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매년 정기공연시 시연을 가져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단장 정우수를 비롯해 강정수, 오일남, 김재현, 최의철, 성낙길, 전진삼, 김정용, 박수진, 김선민, 정은희, 최진숙, 김현숙, 김한동, 김대원, 홍병규, 이창규가 출연한다. 2013 설맞이 국악한마당은 특히 연주자들의 숨소리까지 들으며 사랑방에 앉아 옛 풍류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연출, 관객들이 국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안한 해설과 함께 진행된다.

Preview

부산시립극단 제46회 정기공연

어무이 기사니



예술감독 문석봉

● 부산시립극단이 2013년 출발과 함께 첫 정기공연작 '어무이 기사니'로 부산 연극애호가들과 만난다.

'어무이 기사니'는 풍자와 해학을 통해 전통적인 희극 형식을 뛰어넘어 다양한 양식적 실험을 보여준 대표적인 극작가 이근삼의 작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부산시립극단 문석봉 예술감독의 첫 연출작품으로 기대가 높다. '기사니'는 영특하고 모성애가 강한 거위를 일컫는 평안도 사투리. 평안도에서는 집을 지키는 동물로 거위를 키우기도 했다.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온 문석봉 예술감독이 2012년 8월 1일 부산시립극단의 초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후 첫 작품으로 선보이는 '어무이 기사니'는 이근삼 선생이 1983년 발표한 '기사니'를 한국형 창작음악극으로 재구성, 입체적인 무대와 영상, 조명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임진왜란 당시 평양에서 국밥장사를 하며 난세에 휘말렸던 기사니 일가의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동래부사 송상현과 이순신의 결사항쟁과 선조의 몽진, 평범한 서민이 지닌 강인한 생명의지, 부와 권력을 지닌 지배계층이 자기네 삶에 대하여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가를 인식시켜준다.

부산시립극단 배우 외 연기·뮤지컬 전공 학생 등 총 60여명의 배우와 스태프가 출연하는 '어무이 기사니'는 객석을 압도하는 연기와 앙상블이 펼치는 회전 무대의 퍼포먼스, 입체적인 무대, 조명, 영상과 우

리의 멋이 살아있는 춤과 화려하고 역동적인 움직임, 10여곡의 창작곡이 어우러지는 대작으로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문석봉 예술감독은 1976년 '위험한 커브' 연출로 데뷔한 이후, 무대와 극단, 학교, 협회 등 공연예술과 관련한 문화 전반에 걸쳐 왕성한 활동과 활약을 해왔다.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뮤지컬단 제작감독, 충무로 국제영화제 기획사업부 총괄부장, 경기도립극단 예술감독, 서울교육문화회관 문화사업부 공연과장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작품들 연출, 대중과 언론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작품을 위해 서울시립무용단 부수석, 국립국악원 무용단 수석단원,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 안무자, 국립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계현순이 안무, 창작 뮤지컬 '그라찌에 빠빠', 시립극단 '말괄량이 길들이기' 등 다양한 음악극 작업을 진행한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대표 오리라가 각색, 협력연출을 맡아 '어무이 기사니'의 재미를 더해준다.

그 외에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립합창단 테너 오동주,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전수자 최지은 등이 특별출연하고 김동규 부산국제연극제 명예집행위원장이 드라마트루기로, 배우 전성환, 연출 전승환 형제가 배우들에게 평안도사투리 교정에 참여하는 등 부산연극계 원로들이 대거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일시 2월 16일(토)-20일(수)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3: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607-3151~3)

부산시립합창단 2013 특별연주회

봄이 오는 길목에서...



지휘 오세중

● 2012년 창단 40주년에 이어 2013년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이 2월 21일 봄이 오는 길목에서 아름다운 봄노래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찬바람 에인 겨울과 싱그러움이 가득한 봄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한국가곡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신년의 설렘과 생동감 넘치는 봄의 기운을 가득 담은 2013년 첫 무대이다.

첫 무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천재 동요시인 서덕출의 동요로 연다. 서덕출 시인은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한글을 배워 동요를 쓰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신경통으로 고생하다가 34세의 나이로 요절한 서덕출 시인은 일제 강점기에 꿈과 희망을 잃고 신음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봄이 온다는 아름다운 동시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1925년 <어린이>에 동요 <봄 편지>를 발표해 많은 찬사를 받았던 서덕출 시인은 창가만이 어린이 노래로 불리던 시절, 예술성을 가진 시와 어린이 노

래를 발표해 큰 위안을 안겨주었다. 생전에 약 70여 편의 시를 발표했으며 그가 죽은 뒤 유가족에 의해 동요집 <봄편지>(1951)가 출간되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눈꽃송이, 봉숭아, 꼬부랑 둔덕, 피리, 봄 편지> 등 5편의 동요가 김기영의 편곡으로 부산시립합창단의 화음으로 새롭게 탄생된다.

이어지는 무대는 '봄'을 노래하는 김준범 곡 '제비꽃'과 임금수 곡 '강 건너 봄이 오듯'을 여성합창으로, 자연을 노래하는 황철익 곡 '꽃 파는 아가씨'와 조혜영의 창작가곡 '나비아'를 남성합창으로 들려준다. 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부산시립합창단의 악보, 작·편곡자 최석태의 편곡으로 '겨울 동요 모음'을 1부의 마지막 무대로 선사한다.

2부에서는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아 의욕적인 출발을 다짐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무대를 연다. 2012년 독일할레국제어린이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창단 40주년을 맞아 1월, 세 번째 실황음반을 출반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최석태 편곡 '봄이 오는 길목에서', 김준범 편곡 '봄이 오면' '고향의 봄', 이선택 편곡 '동무생각'으로 완전한 봄을 노래한다.

일시 2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3 웰빙콘서트 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I 리골레토



바리톤 박대용

소프라노 김유진

테너 김기태

베이스 홍순포

메조소프라노 하윤지

만토바 공작은 여성을 정복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는 방탕아이다. 꾀추이자 광대인 리골레토가 아름다운 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여자를 유괴해 오도록 명령하는데 사실 그 여자는 리골레토가 공작

●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기 힘든 주부, 여성 청중들을 위해 기획된 부산문화회관 웰빙콘서트가 2013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예술장르의 총 집합체라 할 수 있는 오페라를 주제로 세계적인 명작 오페라를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오페라 하이라이트 무대가 이어진다.

웰빙콘서트 '오페라 하이라이트'는 고가의 무대 장치와 소품들을 축소, 입장료를 낮추면서도 오페라 작품 속의 주요 장면과 유명 아리아를 오페라 연출가의 연출과 지휘자의 상세한 해설을 통해 오페라 작품의 감동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무대이다. 올해에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 지휘자가 지휘와 해설을, 유철우가 연출을 맡아 감동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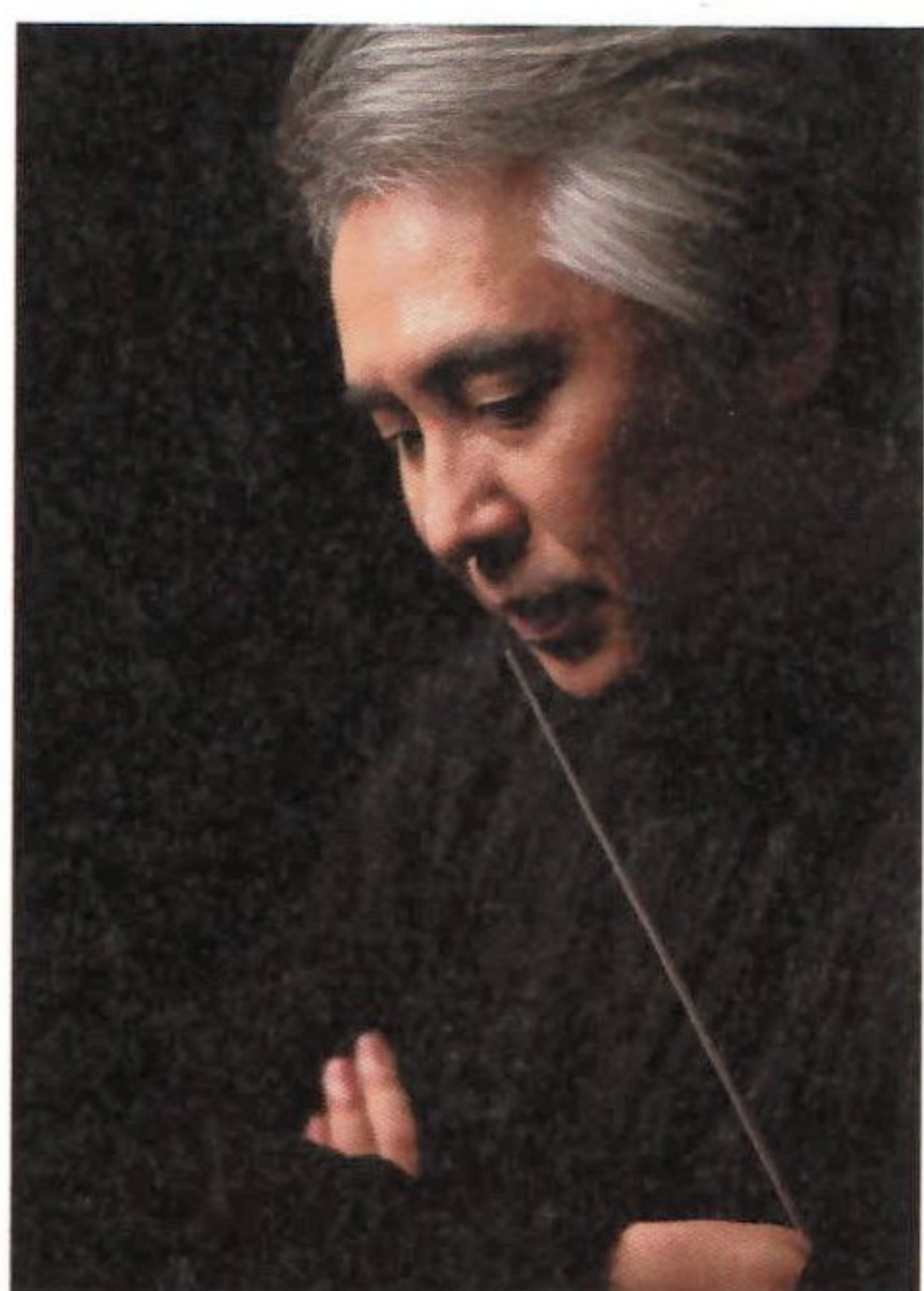
2013년 웰빙콘서트가 선택한 첫 작품은 베르디가 작곡한 3막의 오페라 '리골레토'. 빅토르 위고의 희곡 '일락의 왕(Le roi s'amuse)'을 기초로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가 이탈리아어 대본을 완성, 1851년 3월 11일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된 '리골레토'는 16세기 북이탈리아 만토바 공작의 궁정이 주무대이다.

의 눈에 띄지 않게 숨기고 있던 딸 질다였다. 질다는 학생으로 변장한 공작을 공작인 줄 모르고 사랑하게 되고, 그에게 순결을 빼앗긴다. 이 사실을 안 리골레토는 복수를 맹세하여 자객인 스파라푸칠레에게 공작의 암살을 부탁한다. 그러나 공작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질다가 공작 대신 죽어 리골레토는 딸의 시체를 보고 기절한다.

이번 무대를 위해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칠레아 성악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바리톤 박대용이 만토바 공작의 어릿광대 리골레토로,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귀국,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김유진이 리골레토의 딸 질다로 열연하고 도르트문트 오페라극장 주역가수로 활동한 바 있는 테너 김기태가 만토바 공작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CH7 대구클래식 예술단 부대표 베이스 홍순포가 암살자 스파라푸칠레로,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귀국, 새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하윤지가 스파라푸칠레의 누이 마달레나로 열연한다.

일시 2월 22일 금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7회 정기연주회



지휘 김대진



피아노 손열음

● 최정상의 피아니스트에서 지휘자로 다시 한번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김대진과 그의 애제자 손열음이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87회 정기연주회가 2월 2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유연하며 화려한 테크닉과 개성이 강한 작품해석으로 독자적인 연주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김대진은 2008년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제6대 상임지휘자로 취임하며 본격적인 지휘자의 길로 들어섰다. 김대진은 수원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어 활동하던 수원시립교향악단을 치밀한 작품분석을 바탕으로 뛰어난 연주력을 갖춘 실력 있는 교향악단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지휘자로서 다시 한 번 우리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김대진이 선택한 레퍼토리는 힘차고 쾌활한 선율이 곡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번스타인 '캔디드' 서곡, 제자 손열음이 협연하는 거슈윈의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아메리카 인디언과 흑인 민요 등을 해석적으로 사용하여 작곡된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협연자로 스승 김대진과 함께 부산을 찾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2011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 수상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상,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연주상까지 휩쓸어 한국 국적으로 피아노 부문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촉망받는 연주자이다. 1986년 강원도 원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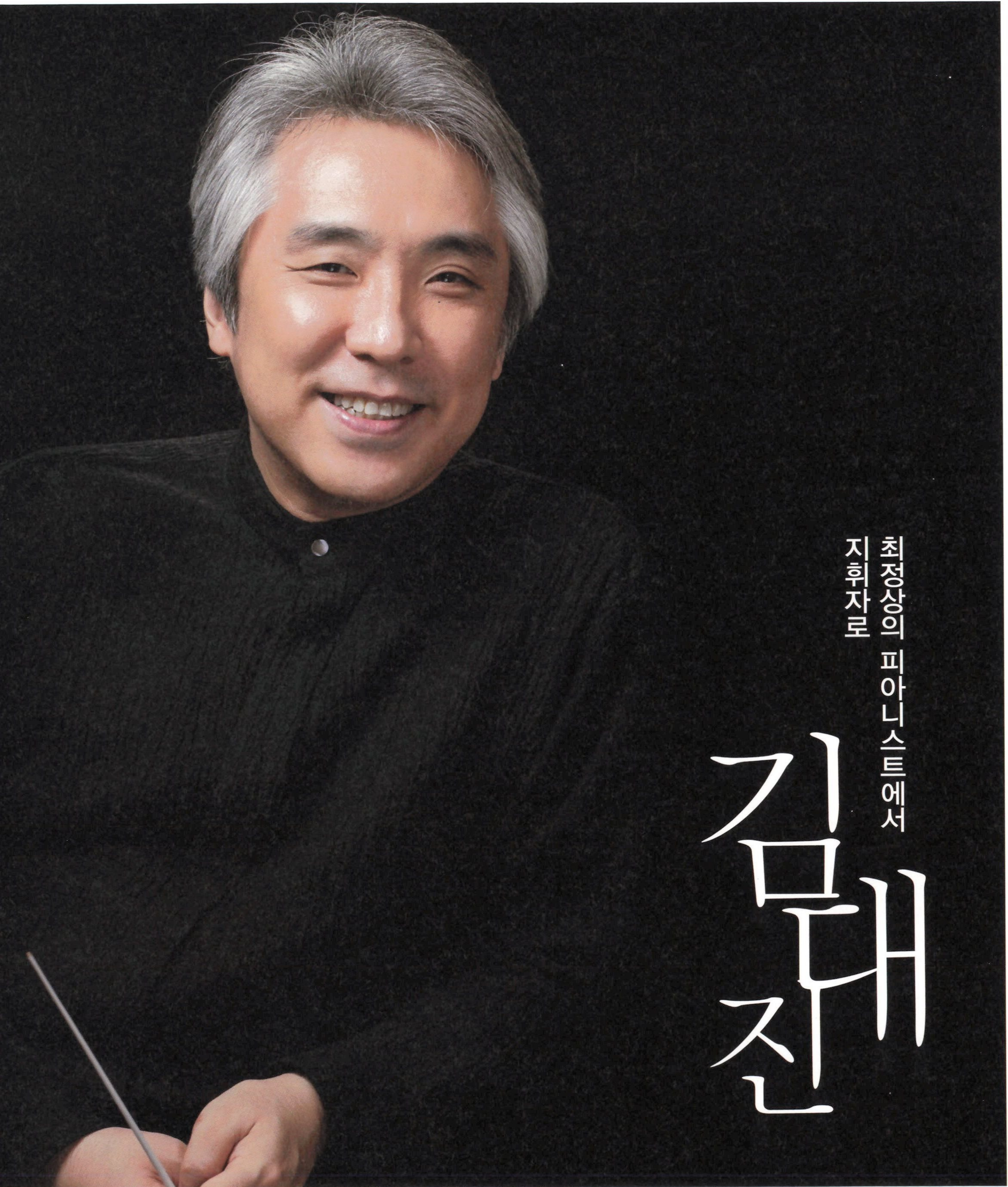
출생한 손열음은 1997년 영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2위 입상한 것을 계기로 이듬해인 1998년 7월, 금호문화재단이 영재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금호영재콘서트에 첫 주자로 발탁되면서 음악계에 데뷔하였다. 이후 1999년 오벌린 국제 콩쿠르, 2000년 에틀링엔 국제 콩쿠르, 2002년 베르첼리 비오티 국제 콩쿠르에서 모두 최연소로 우승하면서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었고, 2005년 텔아비브에서 열린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를 수상함으로써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손열음이 연주하는 거슈윈 '피아노 협주곡'은 거슈윈의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으로 1925년에 완성된 곡이다. 거슈윈의 음악은 재즈를 기조로 하면서도 싱싱한 선율과 적당한 리듬, 화려하고 매혹적인 화성 등의 면에서 세련됨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이 곡에는 그의 탁월한 감각적 섬광이 나타나고 있다. 대미를 장식할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는 1892년 뉴욕의 국립음악원 원장으로 취임한 드보르작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작곡한 곡으로 1892년에 작곡에 착수하여 1893년 12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오늘날 이 곡은 베토벤의 '운명' 차이코프스키의 '비창'과 더불어 명작 교향곡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제2악장의 향수를 달래는 듯한 명선율은 '꿈속의 고향' 등 여러 이름이 붙여져 독립적으로 연주되기도 한다.

일시 2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제487회 정기연주회는 2012년 7월 3일 공연장 사정으로 취소된 공연입니다. 당시 공연 예약자들은 본 정기공연에 앞서 2월 27일 무료 초대공연을 갖습니다. 2012년 7월 3일 공연예약자 중 좌석배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부산시립교향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정상의 피아니스트에서
지휘자로

김대진

// 2013년 부산시민들과 예정대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청중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고맙고 한편으로는 정기공연 하루 전에 별도의 초대 공연을 편성해 청중들과의 약속을 지킨 부산문화회관의 용기에 놀랐습니다.

지난해 7월 3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객원지휘자로 제자 손열음과 부산을 찾을 예정이었던 김대진 지휘자가 공연 무산 후 2월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7회 정기연주회 지휘자로 부산무대를 찾는다. 당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어 아쉬움이 컸던 만큼 부산음악애호가들의 열망으로 그와의 특별한 만남이 성사되어 의미가 크다.

감성과 논리를 지적으로 조화시켜 명석한 음색을 창출하는 피아니스트로, 유연하면서도 화려한 테크닉과 개성이 강한 작품해석으로 독자적인 연주세계를 구축해온 김대진은 2004년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김대진의 음악교실>을 통해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오다 2005년 수원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통해 지휘자로 정식 데뷔했다. 김대진은 2008년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제6대 상임지휘자로 취임하며 최정상의 피아니스트에서 지휘자로 변신 '건반 위의 진화론자'라는 찬사를 받으며 폭 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치밀한 작품분석을 바탕으로 수원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어 활동하던 수원시립교향악단을 뛰어난 연주력을 갖춘 실력 있는 교향악단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지휘자로서의 능력을 발휘, 다시 한 번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는 특히 수원시립교향악단 창단 30주년을 맞아 2월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의 창단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권혁주, 피아니스트 임동민, 조성진, 소프라노 박지현, 바리톤 서정학과 함께

제주, 대구, 창원, 부산, 울산, 광주, 전주, 태안에서 순회음악회를 진행하였으며, 자매도시 포항에서 그 화려한 피날레의 대미를 장식, 우리음악계를 놀라게 했다.

// 1년간 정말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자주 접할 수 있었던 태안군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며 음악을 통해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공연장이 체육관이었는데 그 더운 여름, 청중들이 음악을 듣는데 방해되는 에어컨을 꺼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번 부산연주는 그의 애제자 손열음과 지휘자와 협연자로 부산에서 첫 호흡을 맞추는 만큼 김대진 지휘자는 물론 부산음악애호가들의 기대가 크다.

// 손열음은 타고난 연주자예요. 연주자로 독창성과 즉흥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1994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손열음, 김선욱 등 세계적인 스타 연주자를 배출하며 명교수로도 명성이 높은 김대진 지휘자는 음악해설가로, 국제콩쿠르 심사위원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스스로 교육자로 가장 많은 애착을 가지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우리나라 음악계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음악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연주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클래식 음악계의 중심이 되는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김대진 지휘자는 제2의 손열음, 제2의 김선욱을 기대하는 많은 팬들의 기대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면 음악이 될 수 없는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음악적인 목표를 다시 세우고 제자들과, 청중들과 만나고 싶다.

이번 부산 연주회에서 김대진은 번스타인과 거쉬윈, 드보르작을 연주한다. 지난해 베토벤 곡을 선곡했지만 이번에는 신년, 새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드보르작이 미국 대륙에서 느낀 점을 체코의 토속적인 민요와 함께 어우러진 '신세계 교향곡'을 선곡했다.

2월 27일과 28일 부산연주회 이후 새봄의 활력을 듬뿍 담은 2013년 본격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김대진 지휘자. 2013년 그는 수원시향과 '2013 차이코프스키 사이클', 국제청소년콩쿠르 등을 기획, 우리 음악계에 또 다른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 쾰른 대성당 내부



독일의 사육제

김지혜_독일통신원

여느 나라가 그렇듯이 독일에도 많은 전통 축제와 연례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명절은 성탄절과 부활절인데 이 두 절기를 축으로 해서 다른 전통 축제들이 가지를 치게 된다. 축제들 가운데서 꼭 짜여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흥겨움을 경험할 수 있는 '강남 스타일' 축제가 바로 사육제이다. 사육제는 오랜 겨울 끝머리에 열리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 중서부 라인 지역인 쾰른, 뒤셀도르프 그리고 마인츠의 사육제가 가장 화려하고 다채롭다.



● '광란의 월요일'에 열광하는 시민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카니발

사육제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컬어지는데 파스트나흐트(Fastnacht), 파스네트(Fasnet), 파젠트(Fasent), 파싱(Fasching: 비인과 뮌헨)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카니발(Karneval)은 중부 라인 지방에서 불리고 그 행사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같은데 쉽게 말해서 사육제는 예수의 고난의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 며칠 동안 모든 일상을 잊고 신나게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노는 행사이다. 카니발의 어원은 참회와 금식 기간에는 고기를 멀리해야 한다는 이탈리아어인 'carne vale(고기여 안녕)'에서 유래한다. 카니발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3세기 부터 그 기록이 있을 만큼 아주 오래된 행사이고 축제 행렬을 위해서 카니발 왕이 선출되고 시민들은 우스꽝스러운 가면과 복장을 하고 다채롭게 꾸민 카니발 마차와 함께 시내를 행진한다.

겨울을 몰아내자!

카니발 행렬에서 가면을 쓰고 행렬을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우스꽝스러운 광대의 가면도 있지만 빗자루를 동반한 마녀나 으스스한 모습의 가면도 있는데 이런 모양새는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이고 동시에 종과 타악기, 채찍과 같은 시끄러운 음악도 동반된다. 이런 엽기적이고 시끄러운 소동을 통해서 풍년을 방해하는 겨울의 나쁜 잡귀들을 몰아내고 잠들어 있는 봄의 신들을 깨우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 마치 우리나라의 지신밟기와도 상통한다.



● 옛날 '켈른 광란의 월요일' 행진 모습

카니발의
대표주자
켈른 카니발

여러 지역의 카니발 중에서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카니발은 켈른 카니발인데 1823년 프랑스와의 종전 이후 이곳에서 다시 축제 행렬이 재개되었다. 당시 켈른 시민들은 프랑스 군 군복을 입고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해서 프랑스 군인들을 비하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전통이 계속되고 있어서 행렬에서 프랑스 군대 복장을 많이 볼 수 있다.

카니발은 약 1주일 동안 이어지는데 이 기간 중에는 일상 생활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행사들이 많이 열린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독일 여성들은 가부장 제도 하에서 공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었는데 카니발 기간 중 첫 시작 목요일은 '여성의 밤' (Weibernacht) 으로 정해져 있어 이날 남성들의 장소인 선술집에 출입해서 이 날 만큼은 사회가 요구하는 현모 양처의 억압을 깨고 남성들을 제압하고 마음껏 술을 마시거나 요부가 되는 자유 부인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는 그 모양새가 바뀌어서 이 날 직장에 가위를 들고 가서 남성 직원들의 넥타이를 싹둑 자르는 해프닝이 벌어지곤 한다. 하지만 이 날 모르고 비싼 넥타이를 매고 출근한 남성은 누구를 탓할 수 있으랴?

켈른 카니발 때 중심 인물은 바로 광대인데 이날 광대는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광대는 평범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정치계의 부패와 특권층 사회의 조직을 패러디하고 비판할 수 있어서 언론의 자유를 상징화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광대와 마찬가지로 과거 왕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마스크를 쓰고 진언을 한 데서 유래한다.

목요일부터 시작된 카니발은 나흘 후인 '광란의 월요일'에 그 절정에 이른다. 이날 학교는 물론 대부분의 상점, 회사들은 문을 닫고 '광란의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대규모 거리 축제 행렬과 대체로운 분장을 한 시민 등은 휴가를 내고 전국에서 달려올 만큼 굉장한 볼거리라고 할 수 있다.

- 켈른 카니발에서 저마다의 개성을 살려 켈른 대성당 모자를 인 시민
- 켈른 카니발의 하이라이트 로젠몬탁



재의 수요일에서 부활절까지

‘광란의 월요일’ 이틀 후인 수요일에는 모든 축제가 끝나고 ‘재의 수요일’이 시작되면서 사순절이 이어지는데, 원래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에는 금식과 절식을 통해 금욕과 참회의 생활을 하면서 수난의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고통을 함께 하며 부활절을 준비했다.(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 기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늦은 겨울에서 봄에 이르는 40일 동안 이런 단식을 했던 것은 단지 종교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실제 이유는 다른데 있는데 겨울 끝이 되면 비축해 놓았던 식량이 동이 날 때이고 사람들은 첫 채소 수확을 할 수 있는 봄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식량 걱정에 조바심을 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대축제를 열어서 시민들이 남은 식량들을 꺼내어서 마음껏 먹고 마심으로써 쌓여있는 식량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축제 후 조금 남은 식량이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도록 하는 슬기로운 심리 전술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카니발은 단지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의 걱정을 풀 수 있는 카타르시스의 장, 종교적인 의식, 문화 전통의 계승, 공동체 의식 함양, 시민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 그리고 상업적 기능 등 아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올해는 2월 7일에서 13일까지 카니발이 열리는데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이 이날을 위해서 휴가를 내고 자기만의 특색있는 분장과 행렬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 쾰른 카니발에서 전 이탈리아 대통령을 풍자한 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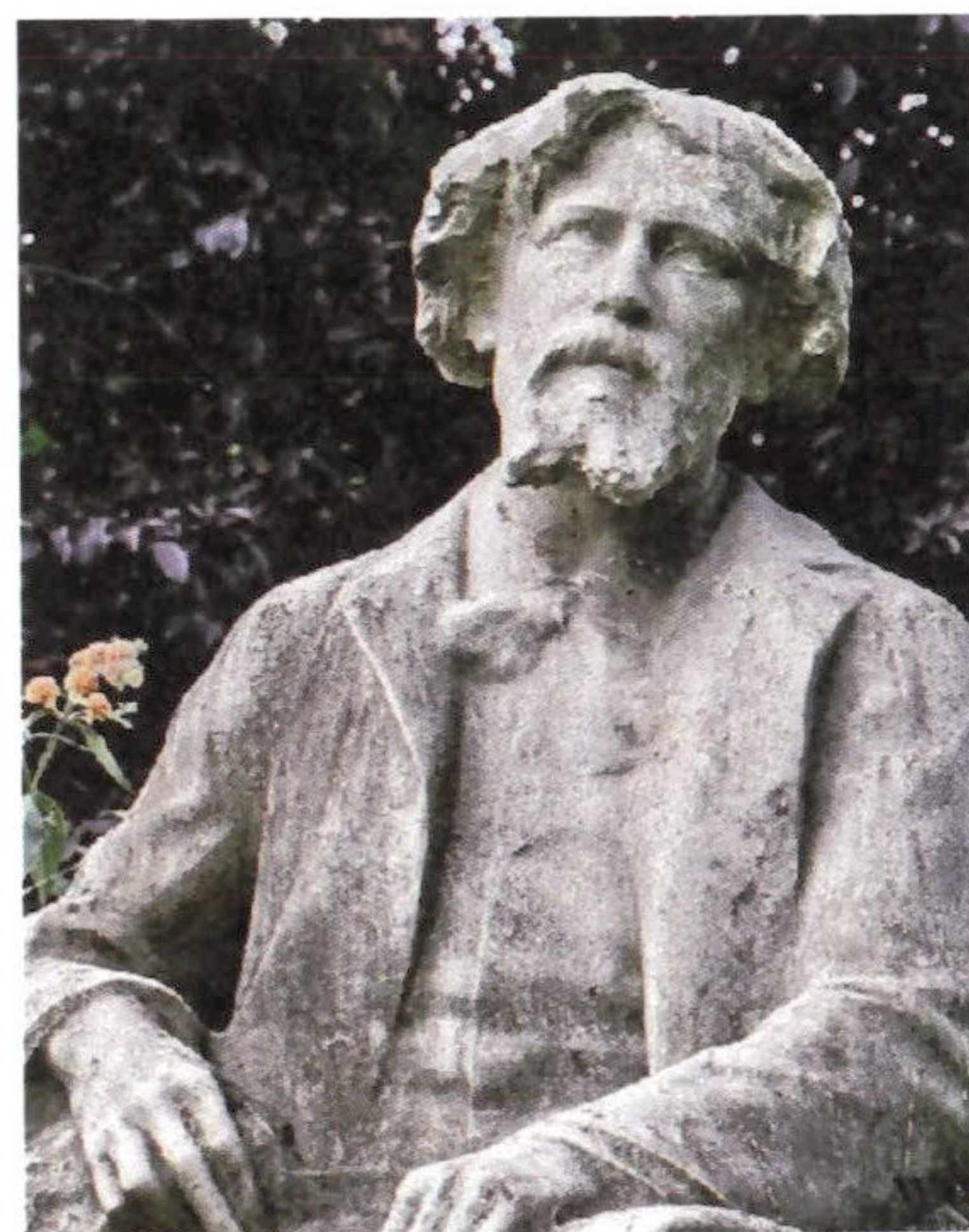


알퐁스 도데와 조르주 비제의 〈아를의 여인〉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비제



• 도데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프로방스 지방은 남쪽에 지중해가 있고 동쪽은 이탈리아와 인접하며 기후가 온난하고 풍경이 아름다워 경기도 파주에 '프로방스 마을'이라는 관광지가 생길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프랑스 시골마을이다. 알퐁스 도데의 소설 '별'의 배경지로도 알려져 있는 프로방스는 라벤더 꽃이 물결치는 들판과 푸른 하늘, 그림 같은 촌락과 훌륭한 음식 및 뛰어난 와인으로 유명한 고장이다. 게다가 다문화의 중심지 마르세유와 예술의 중심 엑상프로방스, 그리고 고대 로마 도시 아를은 프로방스 지방을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든다. 아름다운 론강가에 자리 잡은 아를은 과거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유서 깊은 고도이며, 로마시대에 만든 원형 야외 경기장은 이 고장의 명소로 널리 소문 나 있다. 도데의 소설 '아를의 여인'의 무대가 된 곳이 이 일대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퐁스 도데(1840~1897)는 남프랑스 프로방스 주의 옛 도시 님스에서 태어났다. 리몽중학교에서 공부했으나 비단 도매상을 하던 아버지가 파산을 하자 중퇴하고 알레스공립중학교에서 보조교사를 한다. 이후 형의 도움으로 파리에 와서 문학의 길을 걷는다. 열아홉 살에 시집 〈연인들〉로 주목을 받으며 데뷔했고 〈풍차간 편지〉로 유명해진다. 서른 살에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전쟁이 일어나자 국민병으로 지원하여 비참한 전쟁을 체험한 뒤 이를 토대로 패전국의 비애와 애국적 열정으로 가득한 〈월요 이야기〉를 출판한다. 자연주의에 가까우나 밝고 감미로운 시정과 정묘한 풍자로 호평을 받은 그는 만년에 오랜 질병과 싸우며 몇 권의 회고담을 집필한 후 신일곱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도데의 출세작 〈풍차간 편지〉에 실린 단편 '아를의 여인'의 줄거리를 살펴보자. 풍차방앗간에서 내려와 마을로 가는 길에 프로방스 지방의 지주 저택이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택의 열려진 문틈으로 머리가 희고 덩치가 큰 주인이 아들의 죽음 이후 계속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인다. 주인의 아들 '장'은 아를의 투기장에서 만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어 그녀와 결혼하려 하지만 그의 집안에선 반대한다. 그는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추수가 끝난 뒤 혼례를 치르기로 허락을 받는다. 어느 일요일 저녁, 결혼 축하연을 겸한 식사 중에 한 사나이가 들어와 주인에게 며느리 될 사람이 자신과 결혼할 예정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아버지는 장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장은 괴로워한다. 그녀를 잊지 못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어머니는 그녀와 혼인시키려 하지만 장은 거절한다. 이후 축제 등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밝은 모습을 유지하던 장은 축제일을 보낸 밤 괴로워하다 다음날 결국 다락방에서 뛰어내린다.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팔에 안고 오열한다.

열정적인 성격을 가진 한 청년의 실연을 그린 단편소설 <아들의 여인>은 연극으로도 상연되었고 1872년에 조르주 비제(1838~1875)는 이를 위한 극부수음악을 작곡한다. 파리 근교에서 성악 교사인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인 비제는 아버지에게서 음악 교육을 받은 후 열 살에 파리음악원에 들어가 음악 공부를 했으며 열아홉 살에 로마대상을 받아 로마에 유학한 후 오페라 창작에 주력하였다. 스물다섯 살에 그의 첫 중요한 작품인 오페라 <진주 조개잡이>를 작곡하였고, 보드빌오페라극장 지배의 권고로 알퐁스 도데의 소설을 극화한 <아들의 여인>의 부수음악을 작곡하였다. 서른일곱 살에는 메리메의 소설에 의한 오페라 <카르멘>을 완성하였는데 3개월 후에 <카르멘>의 세계적 대성공을 알지 못한 채 급성심근경색으로 젊은 나이에 아쉽게 세상을 떠났다.

비제가 <아들의 여인>을 위해 작곡한 음악은 모두 스물일곱 곡이며, 그 가운데 여섯 곡은 혼성 합창이 붙어있다. 극의 초연은 실패했지만 비제는 마음에 드는 네 곡을 가려내어 관현악을 위한 연주회용 모음곡으로 편곡하였는데 그 곡이 <아들의 여인> 제1모음곡이다. 비제가 죽고 4년 뒤 그의 친구이며 파리음악원 작곡과 교수였던 에네스트 귀로가 비제의 작풍과 오케스트레이션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네 곡을 묶어 제2모음곡을 완성하였다. 이 두 모음곡은 세계 각국의 연주회 주요 곡목으로 연주되고 있으며, 아름다움과 서정성이 넘치는 걸작으로 비제의 걸작 <카르멘>과 함께 불멸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제1모음곡은 전주곡, 미뉴에트, 아다지에토 그리고 카리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주곡은 연극의 개막 때 연주되며 먼저 프로방스 지방에서 크리스마스 민요 '세 임금님의 행진'을 힘차게 연주한 후 느리게 바뀌어 색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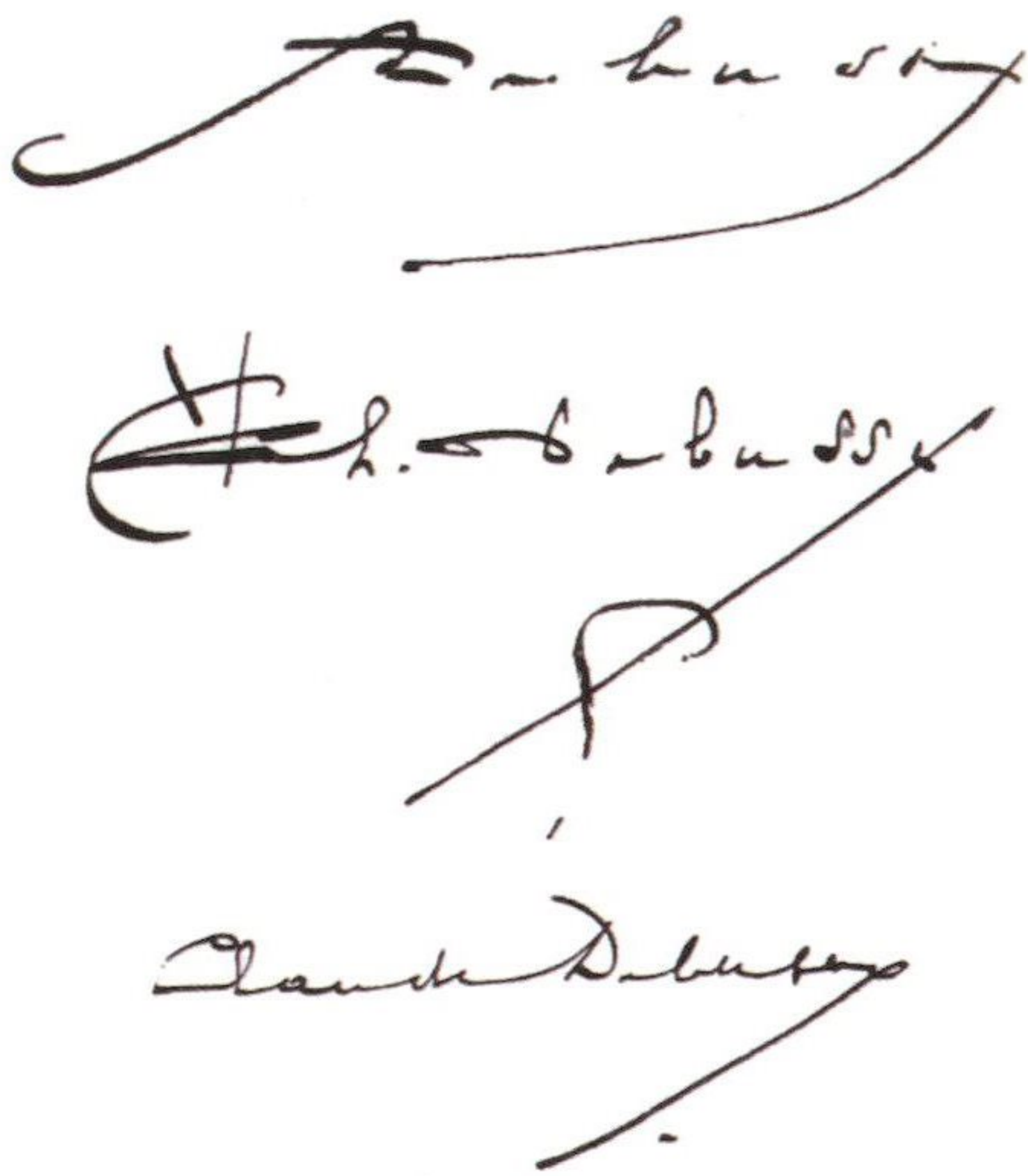
폰이 구슬픈 가락을 노래하고 남자주인공의 고뇌가 바이올린으로 연주된 후 끝난다. 미뉴에트는 현이 소박하고 밝게 주제를 연주하며 중간부에서는 클라리넷과 색소폰의 선율이 등장한다. 시골풍경이 연상되는 이 미뉴에트는 축제를 맞은 시골의 분위기를 소박하게 그린다. 아다지에도는 약음기를 단 현악의 합주곡이며 주선율은 불과 여덟 소절이지만 이는 비제가 만든 선율 중에서도 빼어나게 아름답다. 카리용은 종(鍾)이란 뜻으로 성 엘로이 축제일의 분위기를 그린 음악이며 교회의 종소리를 모방한 세 개의 음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음의 되풀이에 인도되어 명랑한 선율이 나타난다. 중간부에는 현의 반주를 타고 두 대의 플루트가 매혹적이며 우아한 선율을 연주한다. 축제의 무드는 무르익고 이를 축복하듯이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면 처음의 악상으로 돌아간다. 제2모음곡은 전원곡, 간주곡, 미뉴에트 그리고 파랑돌로 구성된다. 전원곡은 먼저 장중하고 힘찬 선율로 시작된 뒤 중간부에서 프로방스 지방 특유의 리듬을 타고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함께 경쾌한 선율을 연주한다. 이어 첫 부분의 규모를 축소시킨 재현부가 연주된다. 간주곡은 비제의 원곡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사색하는 듯한 엄숙한 느낌의 가락이 흐른 후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무게 있는 선율의 중간부가 온다. 미뉴에트는 비제의 다른 오페라에서 차용한 곡이다. 하프의 반주를 타고 플루트가 독주를 시작한다. 차츰 다른 악기를 추가하며 진행하다가 이윽고 다시 플루트와 하프만으로 조용히 끝난다. 너무 아름다워 오늘날 플루트 연주곡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는 유명한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파랑돌은 민요 '세 임금님의 행진'과 프로방스 지방 농민의 춤곡인 파랑돌을 한데 엮은 곡이다. 오케스트라가 힘차게 밝고 위세당당하게 '세 임금님의 행진'을 연주한 후 타악기가 파랑돌의 리듬을 연주한다. 그 위로 플루트와 클라리넷의 선율이 시작된 뒤 차츰 흥분이 고조되어 끝은 파랑돌과 '세 임금님의 행진' 선율이 겹치면서 열광적인 클라이맥스를 이룩한다.

● 아들의 풍경을 그린 고희 작 '라 크로의 추수'



청년 드뷔시, 인상주의 작곡가로 꽃 피다

최윤희_피아니스트, 고신대학교 및 동대학원 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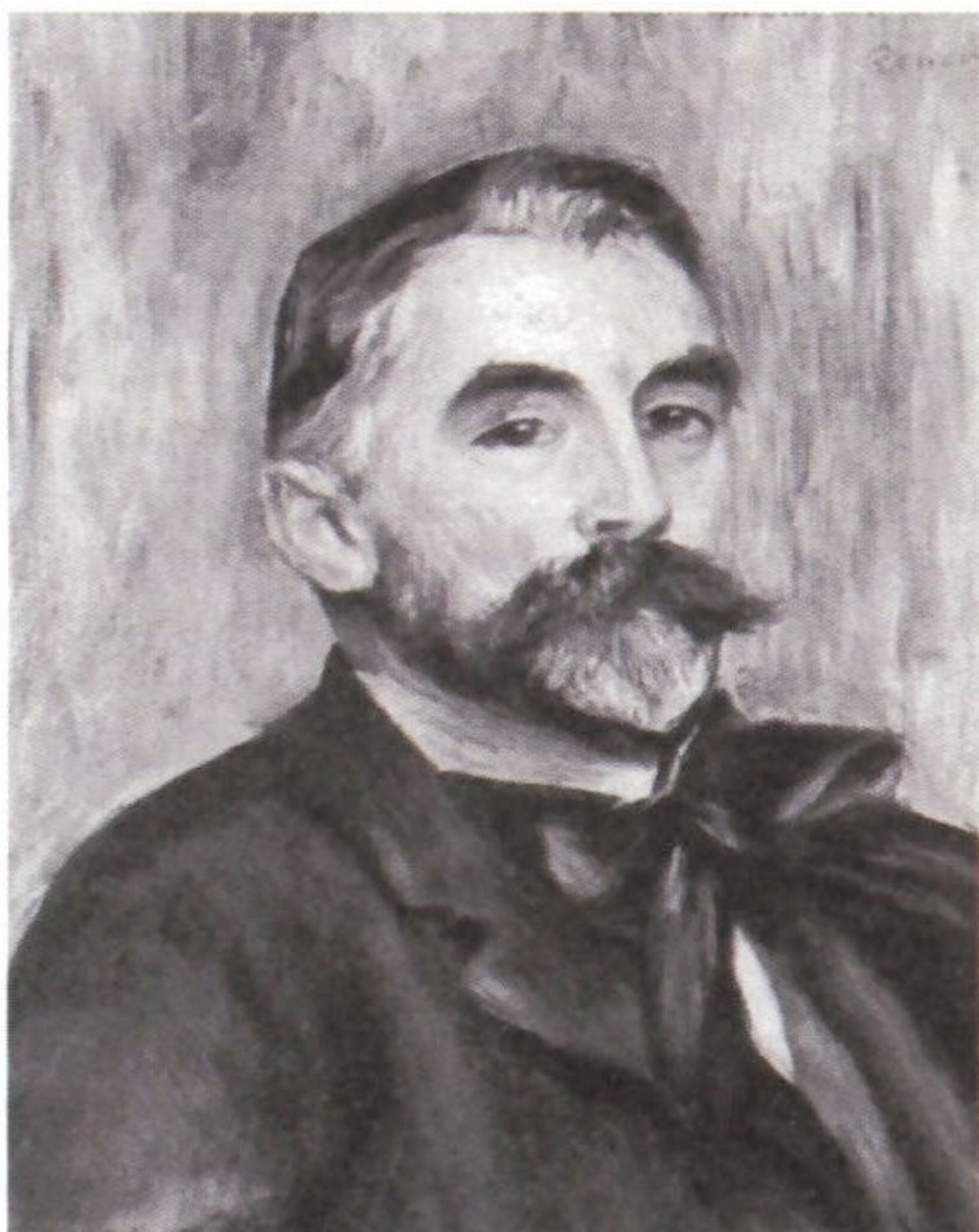


● 1884, 1885 그리고 1893년의 드뷔시 서명

L'Enfant prodigue로 Prix de Rome을 획득하여 고향을 떠나 로마에서 생활하는 동안 드뷔시는 그의 도시 파리를 그리워했다. 그러나 로마를 떠나 파리로 돌아온 그는 이번에는 로마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편지를 쓴다. Villa Medici의 관리인 M. Hébert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뷔시는 '나의 영혼이 사랑스런 내 침실과 당신의 우정,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격려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라고 쓰고 있다. 이 때 드뷔시는 아직 젊은 나이였고 작곡가로서 그의 색채를 뚜렷하게 가지지는 못했다. 이때까지는 편지에 서명할 때 어린 시절 이름인 Achille을 사용한다. 드뷔시의 이름은 본래 Achille Claude Debussy인데 그리스의 영웅을 본 딴 Achille이란 자신의 이름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여 빼 버리고 Claude로 서명을 바꾼다. 이것으로 그는 어린 시절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드뷔시는 그의 친구들과 연인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다. 당시 편지는 널리 통용되는 통신수단이기도 했으며 그가 특별히 편지를 쓰는데 훌륭한 재주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편지로 전해지는 그의 심성은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부탁을 꼭 들어주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던 것 같다. 대부분의 예술가가 그러하듯 드뷔시는 경제적인 후원이 필요했고 그 때마다 편지는 그에게 큰 힘으로 작용했다.

1890년대는 상징주의 운동이 있었으며 드뷔시의 음악 또한 상징주의 특징이 나타난다. 암시, 꿈, 부재에서 현실을 포착하는 것 등이 상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상징주의의 대표 작가인 말라르메(Mallarmé)는 '암시하는 것은 꿈이다'라고 했고 드뷔시는 '음악은 열린 베일에서 오는 꿈이다. 음악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 바로 그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드뷔시는 이미 로마 시절부터 상징주의 시를 좋아하게 된다. 그는 말라르메와 함께 연극을 위한 음악을 위해 일했고 여러 번의 거절 끝에 1876년에 출판된 말라르메의 시 L'Après-midi d'un faune을 토대로 tone poem인 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을 완성했다. Boulez는 '목신의 플루트가 음악예술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라며 이 작품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언급했다.



● 르노와르가 1892년경 그린 말라르메의 초상화

사티 또한 드뷔시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드뷔시는 사티를 존경했으며 둘의 우정은 드뷔시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사티는 '나는 바그너 적대주의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고유의 음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자신이 드뷔시를 바그너로부터 멀어지게 했음을 적고 있다. 사티의 충고대로 드뷔시는 1890년대에 L'Après-midi d'un faune, Pelléas et Mélisande, Images 등의 인상주의 색채가 짙은 작품들을 선보이며 독보적인 프랑스의 작곡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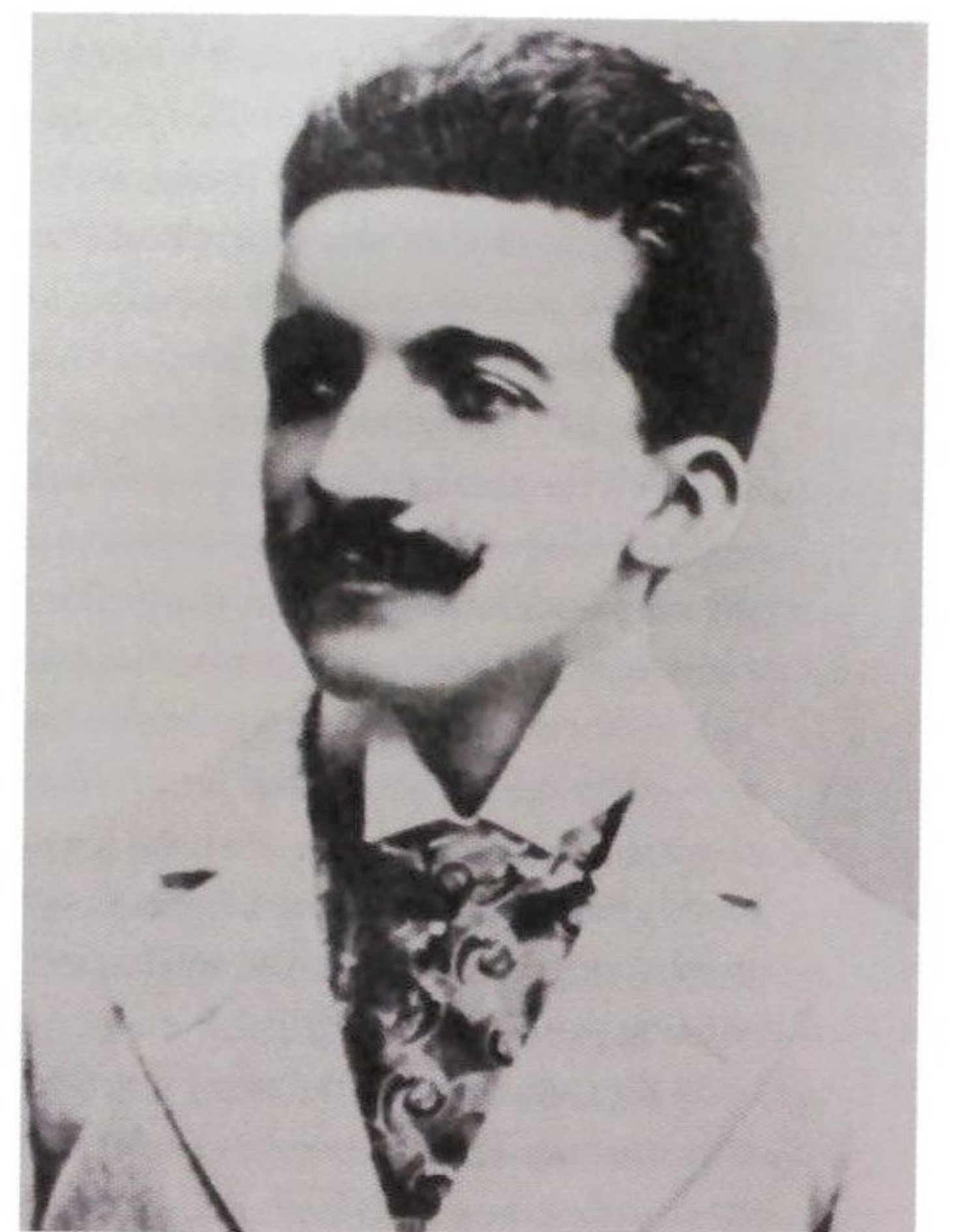
드뷔시는 늘 극장에 올릴 작품을 작곡하고 싶어 했다. '펠레마스과 멜리장테(Pelléas et Mélisande)'는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und Isolde)'와는 아주 대조적인 작품으로 바그너의 트리스탄이 정열적이고 외향적이라면 드뷔시의 멜리장테는 수줍은 성격이며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은 경우이다. '펠레마스과 멜리장테'는 1901년 초연이 되기까지 드뷔시가 10년이란 세월을 함께 했던 작품으로 초연 후에도 그의 삶이 끝나는 1918년 까지 지속적으로 수정하였다. 독일음악과는 판이하게 다른 프랑스의 특징이 그의 성격과 함께 그대로 나타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1893년 이후 드뷔시는 프랑스의 현대음악을 알리기 위한 조직인 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에서 알게 된 에르네스트 쇼송(Ernest Chausson)과 그의 처남인 화가 Henri Lerolle와 친분을 맺는다. 또한 이를 통해 인상주의 화가들과 가깝게 지내게 된다. 그들 중 특히 Renoir와 Degas와 친구 관계를 맺었으며 Degas의 매력에 빠진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드뷔시가 인상주의 작곡가라고 불렸을 때는 이미 그림에서의 인상주의는 사라져가는 때였다는 것이다.

1894년 드뷔시는 친구이자 경제적 후원자 쇼송을 통해 알게 된 Thérèse Roger와 약혼한다. 그의 친구 Lerolle에게 '내 삶을 누군가에게 바쳐야한다는 절실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Mademoiselle Roger가 그 절실함을 채워 줄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당시 드뷔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여자친구 Gaby가 그의 곁에 있음을 모든 친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지를 쓴 이유는 사회적 신분 상승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결혼은 성립되지 않았고 드뷔시는 Gaby에게 다시 돌아온다.



● 1890년대 드뷔시의 여자친구 Gaby



● 1890년대 드뷔시의 친한 친구 Pierre Louÿs

1894년에는 피아노 곡 'Image'를 작곡한다. 이 작품은 드뷔시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첫 인상주의 곡이다. 늘 회화에 관심이 있었고 당시 펠레마스과 멜리장테 때문에 매우 신경을 쓰던 드뷔시에게 이 곡을 작곡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되었다. 'Images'를 쓰는 동안에도 드뷔시는 다급히 돈이 필요했고 무언가 작곡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돈을 위해 쓴 작품은 Ballade, Mazurka, Valse, Nocturne 등 모두 전통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다. 두 곡의 'Images'는 드뷔시 생전에는 출판되지 못했고 197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출판되었다.

1890년대에 새로운 친구이자 후견인 중에는 Pierre Louÿs가 있다. 1903년 드뷔시는 Louÿs에게 '내 친구들 중 당연히 당신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썼다. 둘은 매우 친한 친구 사이였으며 Louÿs는 드뷔시에게 자유롭게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그냥 주곤 했다. 둘의 편지에서 우리는 드뷔시가 약혼녀와의 파혼 이후에도 Gaby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드뷔시는 당시의 외로움, 자살 충동, 예술가로서와 인생에서의 실패 등을 모두 Louÿs에게 써 내려간다.

정신적으로, 또한 작품 활동을 하는데 있어 힘겨운 삶을 살던 드뷔시에게 새로운 인생의 경험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결혼이다. 그는 19세기의 마지막 해에 갑작스럽게 결혼을 선택한다.

지장기마도(知章騎馬圖)

단원은 지장이 되고 형암은 정조에게 해설하다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지장기마도(知章騎馬圖)

김홍도는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그림의 깊이가 더욱 원숙해져 문기(文氣)와 도풍(道風)을 느끼게 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다. 주로 고사(故事)에서 비롯된 스토리를 인물화를 통하여 정형화시켰다. 게다가 이러한 소재를 병풍이나 족자로 만들거나 또는 화첩같은 소품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이런 종류의 작품 중에 오늘 소개할 그림은 <지장기마도(知章騎馬圖)>, 비단담채, 25.8×35.9cm, 국립중앙박물관이다. 열은 담채로 여백을 남긴 채 필선을 느슨하게 묘사하면서 말을 탄 인물과 동행하는 인물을 간략한 필치로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김홍도가 이순(耳順)에 들던 1804년 작품이다.

화면의 왼쪽 관지(款識)를 보면, '갑자년(1804) 선달(12월) 스무날(20일)에 단구(丹邱)가 서묵재(瑞墨齋)에서 그렸다(甲子臘念丹邱寫于瑞墨齋)'라고 되어 있다. 낙관은 김홍도(金弘道)라는 주문방인(朱文方印)과 취화사(醉畫士)라는 백문방인(白文方印)이 압착되었다.

서묵재는 박유성(朴維城: 1745~?)이라는 사람의 당호이다. 그는 김홍도와 동갑내기 화원으로서 정3품 절충(折衝)을 지냈다. 역관으로 첨정(僉正)을 지낸 세량(世亮)의 증손이며 항녕(恒寧)의 아들이었다. <화사보략(畫士譜略)>에 의하면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한다. 유작으로 산수와 영모 등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서금도(棲禽圖)>는 구도와 수지법(樹枝法) 및 새의 묘사와 서정성이 김홍도의 영모화풍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날 예조에서 도화서 화원 중에 수고를 많이 하고 오래 근무한 자들을 대상으로 겸교수(兼教授) 후보 명단을 정조에게 올렸는데, 거기에 박유성도 들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임금은 그의 이름을 처음 듣는다고 난색을 표했던 에피소드가 있다.(<일성록> 정조 17년 7월 20일). 이처럼 박유성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림을 그렸던 이듬해 을축년(1805)은 단원이 환갑이 되는 해였다. 그래서인지 지난 연말부터 동갑내기들이 모두 마음이 짠했던 모양이다. 김홍도는 이인문(李寅文)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는 제발(題跋)을 썼다. 앞의 12월호에 소개한 바 있는 <송하관폭도>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제화시의 왼쪽 기록에 의하면 을축년 정월에 도인(道人)과 단구(丹邱)가 서묵재에서 제발을 쓰고 그림을 그려

육일당주인(六逸堂主人)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육일당주인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원래 ‘육일’은 당나라 때 최고 시성이자 호주가었던 이백(李白)을 비롯하여 세속을 초월한 여섯 명을 가리켰다. 아마 이와 비슷한 분위기의 풍류를 지녔던 단원의 지인(知人)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말을 탄 주인공이 거나하게 취한 채 고삐에 이끌려 가고, 말도 이를 아는 듯 고개를 숙여 살금살금 걷고 있다. 견마잡이가 앞에서 끌고 옆에는 일산(日傘)을 들고 따르는 자, 뒤에는 술동이를 등에 지고 따르는 전형적인 도가풍(道家風)의 그림이다. 제화시를 읽어보자.

지장은 말타는 것을 배 타듯이 하다가 / 知章騎馬似乘船

아찔하여 우물에 빠지면 물속에서 잔다네 / 眼花落井水底眠

지장은 당(唐)나라 현종 때 비서감을 지낸 풍류시인 하지장(賀知章)을 말한다. 이는 시성(詩聖) 두보(杜甫)가 노래한 음중팔선가(飲中八仙歌)를 그림으로 옮긴 것 중에서 첫째 인물이다. 이 말의 유래는 중국 고대 노장가(老莊家)에서 찾을 수 있다. 고답적인 풍류를 가졌던 진(晉)나라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완함(阮咸)이 취하여 기우똥하게 말을 타자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웃으며 말하기를, “저 노인은 말을 탄 모습이 마치 배를 타고 물결 위를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지장에 대한 묘사는 여기서 유래되었다.

‘음중팔선’은 당 현종년간의 술 잘 마시는 풍류문인 하지장·소진(蘇晉)·장욱(張旭;張顛)·최종지(崔宗之)·여양왕(汝陽王) 이진(李璣)·좌상(左相) 이적지(李適之)·이백(李白)·초수(焦遂)를 가리킨다. 많은 문인들이 이들을 읊어왔다. 그 중 고려 무신정권기 문인 이인로(李仁老; 1152~1220)의 칠언율시에 보면, 소진은 선(禪)에 몰입하기 좋아하고 태백의 시에 초수의 웅변이 제격이라는 등 흥미있게 묘사되어 있다. 김홍도는 이백·두보 등의 당시(唐詩)를 많이 읽었던 터라 그 속의 인물을 대상으로 그려낸 것이다.

환갑을 눈앞에 둔 갑자 세월에 김홍도는 친구들과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취중의 하지장(賀知章)을 그렸으니, 자신을 그림 속의 하지장에 비유했는지도 모른다. 이 그림은 화첩용으로 만들었으나 이와 별도로 병풍용을 따로 제작했던 것 같다. 그 근거가 형암(炯菴)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쓴 음중팔선도 서(飲中八仙圖序)에서 확인된다.

“그림은 모두 여덟 폭(幅)인데 전부가 술 마시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첫 번째는 도인(道人)인데, 긴 눈썹에 눈동자의 광채가 땅에까지 비친다. 비스듬히 말등에 앉았으니 수건과 소매가 펼쳐져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돛대와 같다. 그 옆에 더벅머리 종[奴]은 왼손에는 술병을 들고 오른손에는 등자(鐙子)를 붙잡고 도인의 얼굴을 주시하는데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며 말 역시 두려워하여 걸음을 조심스레 걷는다.”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제20권, 아정유고(雅亭遺稿) 12, 음중팔선도 서)

여기 소개된 화첩용 그림과 비교하면 기본 구도는 같으나 묘사가 약간 다르다. 즉 이 글은 김홍도가 팔선가를 소재로 하여 만든 왕실용 8폭 병풍을 보고서 이덕무가 그 감상을 정조에게 써 받쳤던 것이다. 도인에 이어 모두 여덟 신선을 매우 상세하게 표현했다. 내심 이덕무는 옛사람들의 서화는 권선징악의 뜻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비해 이 팔선도는 어찌하여 술마시는 사람들을 소재로 했는지를 정조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아, 이 여덟 사람들은 모두 당나라의 훌륭한 관리였으며 유명한 사대부요 시골에서 벼슬하지 않은 선비로서 명망과 행실과 예술이 모두 훌륭하였다. 그러나 혹은 세상을 만나 출세하였어도 끝마치지 못하였고 혹은 종신토록 세상을 만나지 못하였으니, 어찌 술이나 마셔 자기의 불평(不平)한 기운을 억누르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좋은 세상을 만났으면서도 술마시기만을 일삼는 사람은 권할 것이 못되며, 훌륭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술마시기만을 일삼게 한 임금도 또한 징계하여야 한다. 애석하다. 당 현종의 지혜가 이에 미치지 못했구나. 두보의 세대에 술마신 사람들이 여덟 사람만이 아니었는데 홀로 이를 여덟 사람에게만 신선이라 칭한 것은 아마도 못사람들이 보잘것없이 한갓 술만 마시는 것을 비웃은 것일 것이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야말로 함께 두보의 시를 말할 만하다. 신(臣)은 삼가 서(序)합니다.”

김홍도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스토리와 주위에 동갑내기 인물들의 우아한 취미활동이 고상하기 더할 나위 없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과 통하는 지음(知音)이 그리운 법이다.



지역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사랑받는 서동예술창작공간

넉넉한 정과 훈훈한 인심이 넘치는 전통 재래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그 중심에서 화제를 몰고다니는 곳, 바로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서동예술창작공간이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은 지난 6월 금정구 서동에 위치한 전통 재래시장인 서동시장 입구에 문을 열었다. 지난 1960년대 부산시 정책이주지역으로 개발된 뒤 한때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인근 금사공단이 들어서면서 호황기를 맞기도 했던 서동시장은 2000년대 들어 금사공단이 쇠락하면서 도심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이 들어선 건물 역시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빈집을 리모델링한 곳이다.



원래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구상되었던 서동예술창작공간은 전통시장 부근으로 장소가 정해지면서 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지상 2층 규모의 서동예술창작공간은 예술인들을 위한 작업실과 다목적실, 전시실, 강의실, 쌈지도서관 등이 들어서 있다. 서동예술창작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작은 야외무대와 휴식공간을 마련해 시장을 오가는 주민들이 오가다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북카페로 꾸며진 쌈지도서관은 대출이 가능한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평균 100여권의 도서가 대출될 정도로 이용율이 높다. 또한 장을 보러온 주부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맡기고 가면서 주민들의 사랑방으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은 개관 후 지난해 말까지 공연기획 레지던스 그룹인 '빈공간'을 비롯해 연극 놀이연구소 'As if', 바느질 사랑방 '크레데', 새터민 예술단인 '통일희망봉사단', 부산문화연구소 등이 입주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 2013년을 맞아 지금은 새로운 입주작가 및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동예술창작공간 뿐 아니라 서동시장 내 10여군데 빈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예술촌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한 서동예술창작공간에서는 공간이 필요한 지역 예술인들과 동호인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현재 전문실내악연주단인 위드스트링앙상블과 아마추어 색소폰동호회인 토니카색소폰앙상블이 목요일과 금요일 다목적실을 연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수요일에는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영화관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영화동아리 결성, 시장홍보영상 촬영, 다큐멘터리 제작 등 시장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중이다.

이밖에도 현재 금정구 평생학습관으로, 다양한 강좌가 열리는 문화센터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서동예술창작공간은 앞으로 입주작가들이 참

여하는 새로운 강좌도 준비중이다. 특히 인근에 전통시장은 물론 학교가 밀집해 있는 만큼 시장상인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 서동예술창작공간에서는 개관 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펼쳐왔다. 지난해 7월 개관기념공연에 이어 12월 1일에는 '서동시장 참! 클래식하다'라는 부제로 서동시장 작은 콘서트 두번째 무대를 가졌다. 주민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가진 야외공연인데다, 전통시장 공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클래식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이날 콘서트에서는 네오피하모니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남성앙상블 시아모, 더블샹현악4중주단, 부산YMCA 금관5중주단, 나무소리 목관5중주단, 금정구 여성합창단 등이 출연해 주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1월 31일까지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특별기획전이 1층 갤러리와 북카페에서 열리기도 했다.

또한 서동예술창작공간은 국제구호단체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기금모업사업인 '아우인형' 거점기관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동생' '아름다운 우리' '아우르다' 등 다양한 뜻을 지닌 '아우(Awoo)인형'은 인형 몸통을 구입한 뒤 자신만의 스타일로 인형을 만들어 기부, 판매하면서 그 수익금을 저개발국가 어린이들의 구호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금정구는 지난해 9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강남구에 이어 두번째로 '아우인형' 거점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서동에 아우인형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서동예술창작공간을 아우인형 중심지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서동주민, 인형작가가 되다'라는 타이틀로 서동주민과 외국인 이주민, 새터민,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아우인형 첫 부산 전시회가 서동예술창작공간 전시실에서 열리기도 했다. '아우인형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차례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문의_서동예술창작공간(525-6262, www.seodongartspace.com)





이야기 수레 타고 떠나는 동화여행 동화구연봉사단 '이야기수레'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이면 조용했던 도서관 한켠이 색다른 활기로 넘쳐난다. 동화구연봉사단 '이야기수레'의 동화구연이 있는 날, 즐거운 동화의 세계로 이끄는 회원들의 낭랑한 목소리에 참석한 어린이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기만 하다.

지난 2001년 북구디지털도서관이 문을 열면서 활동을 시작한 동화구연봉사단 '이야기수레'는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어린이들의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이야기수레'는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황경희 씨를 비롯해 이정혜, 김정리, 이경애, 홍지혜, 박가희, 황혜영, 이선영, 문아름, 김현숙, 현주, 고진숙 씨 등 총 11명의 회원이 매월 격주로 어린이들과 만나고 있다. 회원들 대부분이 주부들이나 대학생 봉사자도 3명이나 활동하고 있다.

동화구연이 있는 날이면 '이야기수레' 회원들은 북구디지털도서관에 모여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을 위해 창작 그림동화에서부터 전래동화, 영어동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동화를 들려주고 있다.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가 아닌 참석한 어린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권 한권 꼼꼼히 검토한다. '이야기수레'는 결성 후 지금까지 약속한 동화구연을 한번도 거른 적이 없다. 그래서일까, 동화구연이 있는 날이면 도서관에는 언제나 엄마손을 붙잡고 온 어린이들로 북적거린다. 5년전 부터는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에는 동화를 각색한 가족극으로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다. 영성한 무대에 화려한 조명도 없지만 열심히 준비한 열정만으로도 무대는 언제나 빛이 난다. 그런 열정과 사랑이 전해졌을까, 제대로 된 객석도 없는 도서관 한켠 공연장이지만 공연이 있는 날이면 언제나 관객들로 넘쳐난다. 최근에는 입소문이 나면서 인근 어린이집에서 초청공연을 의뢰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올해부터는 여건이 된다면 외부공연도 가져나갈 계획에 회원들의 마음이 벌써부터 설렌다.

“태풍이 온 날, 한명이라도 찾을까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다가 꼭 채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는 황경희 회장. 결성 초창기부터 회원으로 활동해오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동화구연을 거르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그는 그래서 더욱 어린이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동화구연을 할 수 있다는 황경희 씨는 틀에 짜인 형식적인 동화구연보다 진심을 전달하는 동화구연을 하고싶다.

지난해 6월부터 참여하고 있는 이경애 씨는 유아교육학과에 재학중인 딸 문아름 씨와 함께 모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2년 전부터 활동해온 딸 문아름 씨가 모임의 선배인 셈. 평소 딸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다가 딸의 불참을 대신해 용기를 내게 되었다는 그는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만 있다면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경애 씨는 '이야기수레' 활동을 결심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동화구연 자원봉사 교육을 따로 들을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다.

젊은 시절 연극배우로도 활동했던 김정리 씨에게 '이야기수레'는 그의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곳이다. 동화구연 외에도 특집극이 무대에 오르는 날에는 그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된다. 지난 12월 15일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준비했던 연극 '산타 임금님'에서도 각색에서부터 무대제작까지 실무를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던 김정리 씨는 특히 강강술래, 대문놀이 등 추억의 전래놀이를 펼쳐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다. 평소 누구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마당놀이극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앞으로도 아동극에 마당극을 접목시킨 무대로 어린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갈 계획이다.

문의_동화구연봉사단 '이야기수레' 회장 황경희(010-5021-0747)

●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이면 북구디지털도서관에서는 동화구연봉사단 '이야기수레'의 동화구연이 펼쳐진다.



천만 관객보다는 천만번의 박수를

김희진_영화감독

● 천만 관객 영화 두 편이 한 해에 등장했던 2012년은 한국영화의 성장이라는 방식의 이야기거리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정작 영화계 종사자들이나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염려하는 적극적인 관객들에게는 이 현상이 한국영화의 비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나 화려한 장미빛 미래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사실 흥행에 성공했던 두 편의 영화만을 두고 본다고 할지라도 이 두 편의 영화가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영화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꺼려진다. <도둑들>은 사실 제목처럼 과거 홍콩의 인기 장르 영화와 미국의 카지노 털이 영화를 재탕해 만든 영화로 최동훈 감독이 두기봉 감독의 영화와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영화를 재구성하고 여기에 자신이 그간 만들어 왔던 영화들의 장점을 종합선물 세트처럼 버무린 작품이라 할 수 있고, <광해> 역시 팩션물 유행에 편승하고 만화적 구성에 기대어 영화만의 독창적 미학을 만들어 냈다고 보기 힘들다. 두 편의 영화가 흥행기록을 만들어 낼 때 우리는 여전히 배급구조의 악행과 영화인 복지를 힘겹게 얘기해야 하는 것은 한국영화의 결코 영화를 문화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다. <도둑들>의 홍콩배우 임달화가 자신의 개런티를 분배해서라도 한국영화 스태프들을 돕고 싶다고 한 말은 정말 부끄러운 우리 영화의 현실인 것이다.

한국영화의 여전히 영화인들의 악전고투 속에서 대중흥행영화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나마 조금의 허파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극장과 상영시설을 갖춘 문화공간들의 공동체 상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상영이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독립영화와 저예산영화, 예술영화들을 관객들이 나서서 관람료를 모아 영화를 임대하여 함께 관람하고 그 현장에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배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화의 장을 만드는 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 상영은 멀티플렉스 극장이 많은 대도시 보다는 소도시 중심으로 활기를 띄고 있으며 농촌이나 자연을 상영 공간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영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영화는 결국 관객이 존재해야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러한 공동체 상영 운동은 한국영화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아닐 수 없다.

예술인복지법이 한 영화인의 죽음을 통해 발효가 되었지만 자본의 논리와 복지에 대한 편견 속에서 영화인들은 여전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만큼도 보장받지 못하고 기본적 살 권리마저도 여전히 위협받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최저 임금 보장과 추가 근무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업영화계 현실과 열악한 제작비와 제작여건 속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독립적인 영화인들의 활동 무대에 천만 한국영화 두 편이란 신화는 여전히 남의 나라 일같이 느껴진다. 사실 영화인들이 가장 바라는 현실은 유명한 배우나 영화가 아니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자신만의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영화인들의 존재를 알아주는 것이다. 그들의 정체성, 곧 존재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때 영화인들은 어떤 복지 혜택보다도 기뻐할 것이고 자신의 사회적 사명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 차비가 없어서 오늘도 뛰어서 영화현장을 오가고 있을 영화인들에게 한 번이라도 박수를 보냈으면 한다. 천만번의 박수가 공동체를 이루는 멋진 한 해가 있길 바란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토론방송

남인용_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2012년은 1992년에 이어 20년 만에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있는 해였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선거 과정, 대통령 선거 토론과 선거 방송은 두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비교하기에 좋은 기회였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토론방송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토론 방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토론방송은 각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을 대학 캠퍼스에서 실시하고, 방청 지원자에 대한 추첨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에게 토론 참가의 기회를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현실 문제를 외면하며 고고한 상아탑의 이미지를 유지하거나, 특정 정파에 우호적인 자세를 갖고 속칭 줄을 서거나 하는 양극단의 면모를 보여 왔다. 어느 쪽도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 대학이 정치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정치를 견제하는 미국의 사례는 우리 대학과 우리 선거 토론 방송이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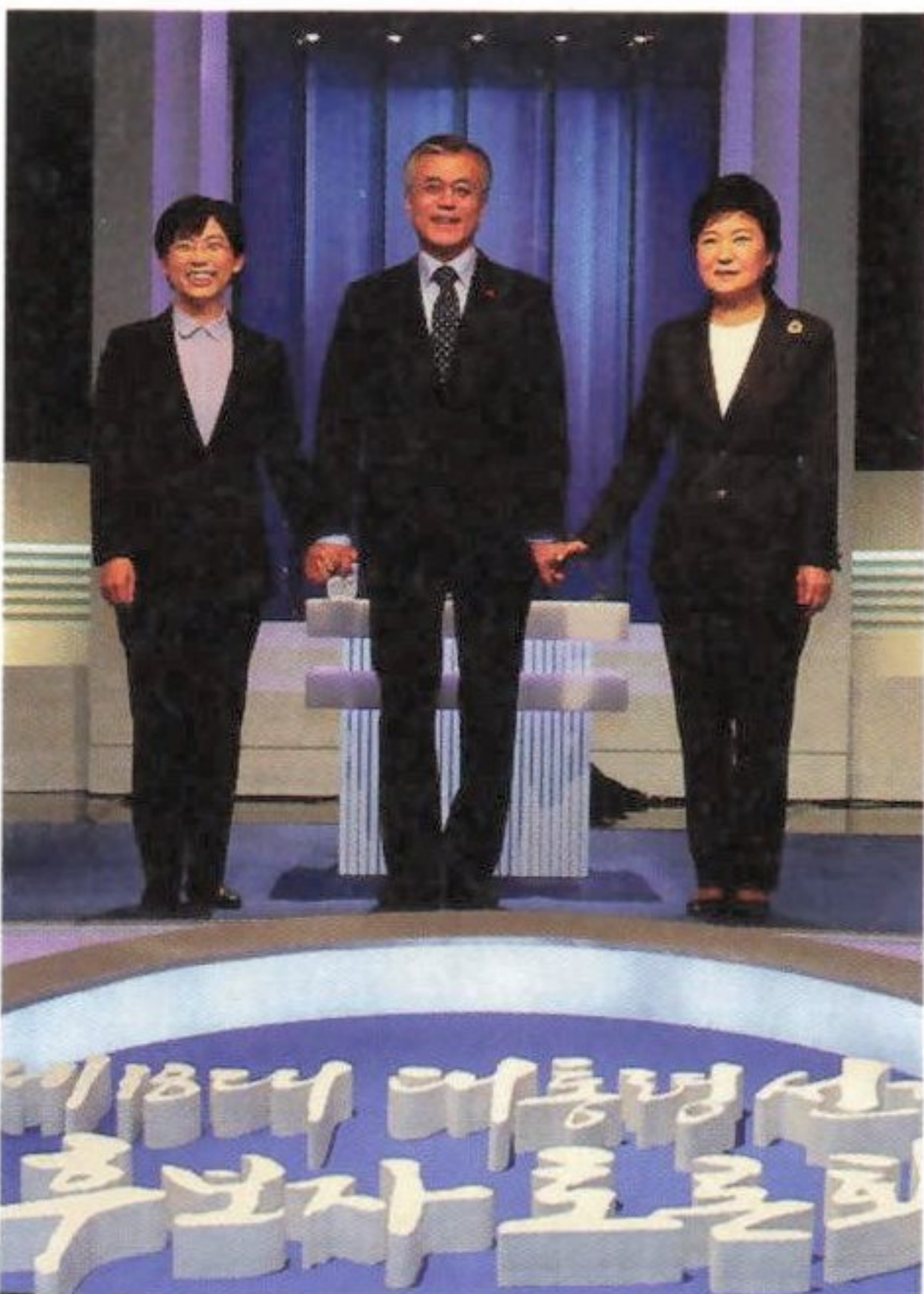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는 두 후보 간의 상호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사회자가 토론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사회자가 후보자보다 더 주목받는 일은 없다. 사회자는 토론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후보자들이 마음껏 서로의 실력을 겨루도록 사회자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토론 방송에 대한 댓글에서는 사회자에 대한 언급이 많은 편이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토론에서는 중립적인 진행이 보기 좋았다는 점에서, 박근혜 후보의 단독 토론에서는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행하는 사회자의 모습이 거슬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만큼 시청자들이 사회자의 주관적인 개입에 대해 불편해 하고, 사회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토론에서 사회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토론으로 단련해 온 미국의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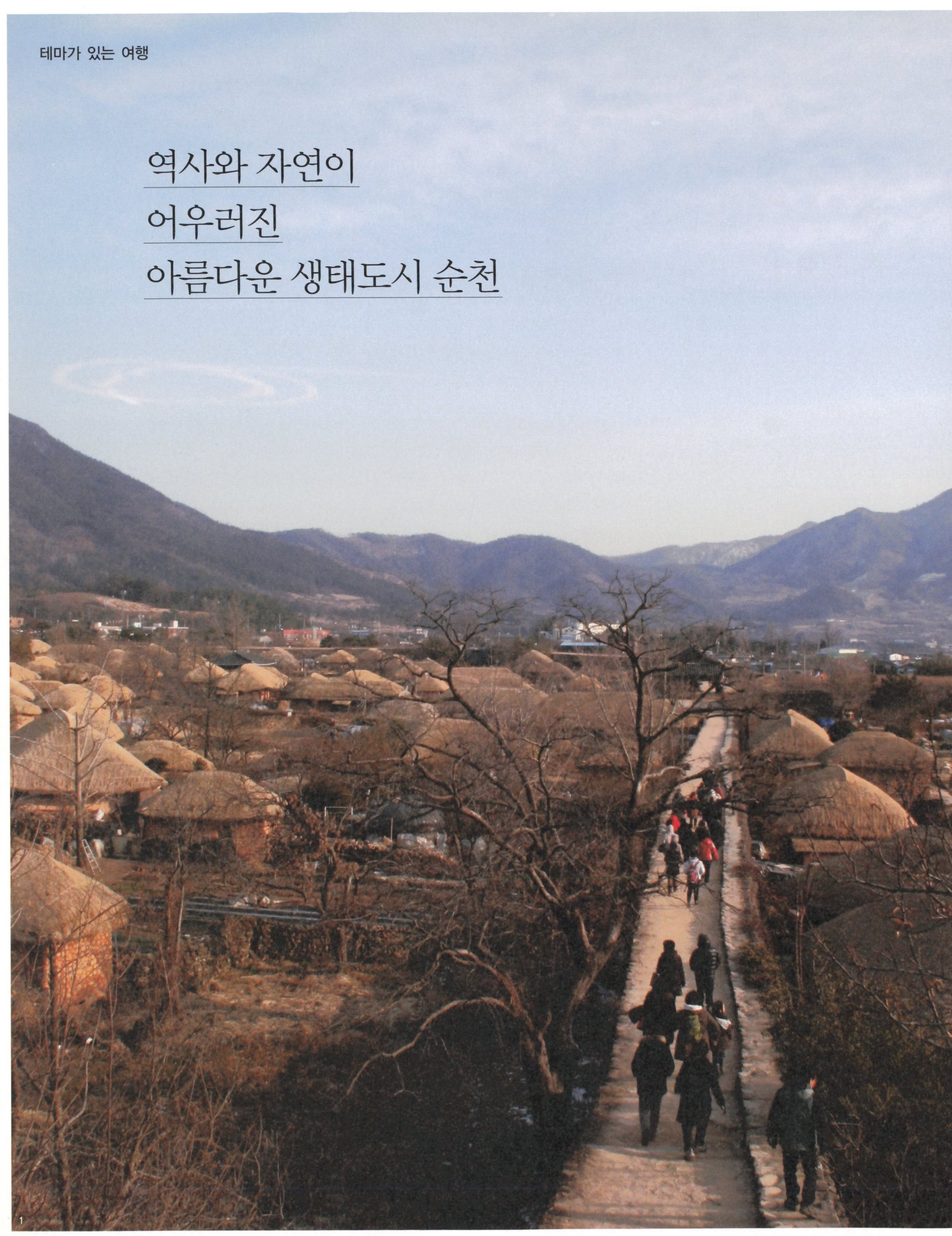
보자에 비해 우리 후보자의 토론 실력이 매우 미숙하기 때문이다. 평소 성장과정이나 교육과정에서 토론보다 주입식 대화에 익숙한 후보들이 토론을 통해 자신의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후보자들의 토론 실력을 길러 줄 훈련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편이어서 '토론 준비가 안 된' 후보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참고 자료를 갖고 토론하지 않는다. 온전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판단력만으로 토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후보들처럼 나중에 공부해서 보완하겠다는 준비되지 못한 모습은 당선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를 보면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무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후보자의 모습은 무능한 것으로 평가되며, 무능해서 말하기를 주저하는 후보자가 타인을 배려하는 인품을 가진 것으로 포장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타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거리낌 없이 의견을 밝히는 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토론에서 열세인 후보에 대한 동정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성의 산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통령의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는 대통령 선거 토론방송의 본래 목적에 집중한다면, 이제는 토론방송의 운영과 토론내용의 평가에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유능한 대통령을 제대로 판단하는 우리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생태도시 순천



1. 조선시대 서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낙안읍성 민속마을
2-3. 천년고찰 선암사



계사년 새해를 맞아 부푼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던 지난 1월 11일, 2013년을 여는 첫 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2013년 첫 테마여행지는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생태도시 순천. 특히 순천은 부산과는 거리가 멀어 자주 찾을 수 없는데다 겨울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동행하고자 하는 정기회원들의 신청이 많아 그 어느 때보다 참가열기가 뜨거웠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 테마여행 당첨의 행운을 안은 42명의 정기회원 가족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염지선 씨가 함께 동행했다.

세 시간을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1,5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천년고찰 '선암사(仙巖寺)'. 사찰의 옛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한 선암사는 특히 조계산을 사이에 두고 선종(禪宗)·교종(敎宗) 양파의 대표적 가람으로 쌍벽을 이루었던 송광사(松廣寺)와 더불어 수련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선암사는 국내에서 나무와 꽃이 가장 많은 아름다운 사찰로, 영화 '동승' '취화선'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선암사의 출입용 문루인 '강선루(降仙樓)'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강선루'는 '신선이 내려오는 곳'이라는 뜻으로, 대부분 사찰과 달리 일주문 밖에 있는 것이 이채롭다. 일주문(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96호)을 지나 선암사의 중심법당인 대웅전으로 자리를 옮겼다. 보물 제1311호로 지정된 선암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 지붕집으로 아담하지만 장중한 멋이 있다. 빛바랜 외부와 달리 내부는 층단을 이룬 우물천장으로 장엄하게 단장됐으며, 석가모니불을 중앙 상단에 배치하고 협시상들을 작게 그려 석가모니불의 위엄을 높였다. 대웅전을 호위하듯 대웅전 앞에 서있는 두 개의 삼층석탑은 보물 제395호로, 특히 지난 1986년 동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유물이 발견됐는데, 이 유물들 역시 보물 제955호로 지정되었다. 선암사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7점 외에도 석가여래의 생애를 묘사한 팔상도가 있는 팔상전, 화려한 꽃살문이 돋보이는 원통전 등 지방 문화재 10여 점을 보유한 그야말로 보물을 품은 사찰로 유명하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에 가서 실컷 울어라~”

선암사는 정호승 시인의 시로도 널리 알려진 해우소가 유명하다. 정확하게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920년 이전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월 초하룻날 똥을 싸면 그 떨어지는 소리가 선달 그믐날 들린다'는 우스개 소리가 전해질 정도로 하염없는 깊이를 자랑하는 선암사 해우소는 '뒷간'으로서는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선암사를 한바퀴 둘러보자 어느새 점심시간. 스님들과 함께 회

테마가 있는 여행

원가족들도 점심공양에 참여했다. 자극적인 양념을 배제한 담백한 산사음식에 회원들의 감탄이 절로 나온다.

점심공양 후에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형심, 염지선 씨의 낭독공연이 펼쳐졌다. 연극과는 또 다른 드라마틱한 목소리 연기에 회원들의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이어지는 시간은 스님과 함께하는 다도체험. 수령 800년이 넘는 자생차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선암사는 예로부터 참선과 함께 차로 유명하다. 시배지에서 생산한 야생차는 화개차를 최상품으로 치지만 순 자연산 야생차는 선암사 차를 최고로 친다. 선암사 스님들은 지금도 전통차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도체험을 열고 있다. 향기로운 차 한잔과 스님의 법문에 회원가족들은 모처럼 번잡한 속세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가져본다.

오후 일정은 순천의 또다른 명소인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시작됐다. 드넓은 평야지에 축조된 성곽 내에 200여 채의 초가가 돌담과 싸리문에 가려 웅기종기 자리한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옛 마을 정경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고려 후기부터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선 전기, 흙으로 쌓은 낙안읍성은 조선 후기인 1626년 임경업 장군이 낙안군수로 부임해 오면서 현재의 석성으로 중수했다. 한국전쟁 이후 많은 훼손이 있었으나 1983년 성과 마을이 사적지로 지정되면서 상당부분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에 도착하자 문화유산해설사가 정기회원 가족을 반갑게 맞는다.

“이 곳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타 지역의 민속마을처럼 관광객들을 위한 전시공간이 아닌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살아있는 우리 전통문화의 장이자 역사의 산 교육장입니다.”

동편제의 거장 국창 송만갑 선생과 가야금병창의 오택석 명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한 낙안읍성은 또한 소설가 조정래 선생의 고향으로, 그의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낙안읍성 민속마을에는 판소리, 가야금병창을 비롯해 도자기, 한지공예, 짚물, 목공예 등 다양한 체험교실이 자리하고 있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역사와 자연, 사람이 공존했던 순천 겨울여행, 기사년 새해의 부푼 소망만큼이나 오랫동안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에 기억될 것이다.



4. 정형심, 염지선 단원과 함께하는 낭독공연
5. 수령 800년이 넘는 자생차 군락을 자랑하는 선암사는 다도체험으로도 유명하다.
6. 낙안읍성 민속마을 서문입구

3월에는 **경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마감 2월 15일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3~4)

2월 테마여행 당첨자

엽서당첨자	신규가입자
김말선(사상구 덕포2동)	김라정(사상구 주례2동)
권호경(부산진구 당감동)	노현식(수영구 광안4동)
김광열(부산진구 양정동)	도채식(연제구 연산9동)
김충남(부산진구 연제동)	박지원(남천2동)
송말남(연제구 거제1동)	성지태(동구 범일2동)
임대원(해운대구 중1동)	송해정(양산시 웅상읍)
최정숙(서구 부민동3가)	양은섭(영도구 남항동3가)
최지현(서구 아미동)	이은하(해운대구 재송동)
최창숙(양산시 물금읍)	이점덕(연제구 거제1동)
황미정(서구 토성동)	조승구(남구 용당동)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가마골소극장 | 1588-9155
가온아트홀 | 1600-1602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향아트센터 | 1544-1555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포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Culture Life

- 36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 42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 52 NEW MUSIC
- 53 NEW BOOK
- 54 SPECIAL MOVIE
- 55 SPECIAL EVENT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전수정 첼로 독주회

2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전수정(010-3900-8924)



부산대학교와 독일 로베르트 슈만 뒤셀도르프 음대를 졸업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레이디스 필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전수정의 독주회. 전수정은 부산음악협회 주최 부산신인음악회를 비롯

해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무대, 레이디스 필 앙상블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났다.

프로그램

멘델스존/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협주 변주곡 라장조
글린카/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비창 삼중주
라단조

프로코피에프/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다장조

· 바이올린/한아름 · 피아노/김일주

김정강 피아노 독주회

2월 6일 수요일 오후 6: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정강(010-6794-3639)



독일 아우구스부르크국립음악대학,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콘서바토리, 스위스 취리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창원대, 경성대, 동의대 외래교수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정강의 피아노 독주회.

바흐, 베토벤, 스크리아빈, 테오백만 등 고전에서 현대곡까지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흐/토카타 e-moll

베토벤/소나타 작품 22

스크리아빈/녹턴

테오백만/메타모르포젠 4389

바이올리니스트 강대식의

Brilliant Concert

2월 7일 목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S석 5만원 · 학생 할인 2만원

문의 | 스테이지원(02-780-5054)



세계무대에서 Kimon Kang이라는 이름으로 활약해온 바이올리니스트 강대식의 부산연주회. 강대식은 그동안 '악기에 대한 무서운 욕감, 깊은 음악성, 하이패즈를 연상케한다'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왔다.

커티스 음악원 재학 중 스위스 루체른 국제음악제에서 최고의 연주자에게 주어지는 아놀드 프레이شم 상, 시카고 시빅 콩쿠르 1위에 입상한 바 있는 강대식은 23세의 나이로 프랑스 캐피톨국립교향악단 악단사상 최연소 악장(차석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프로그램

비발디/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작품 2 제2번

프랑크/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브람스/소나텐사츠(스케르초)

브람스/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라단조 작품 108

· 피아니스트/김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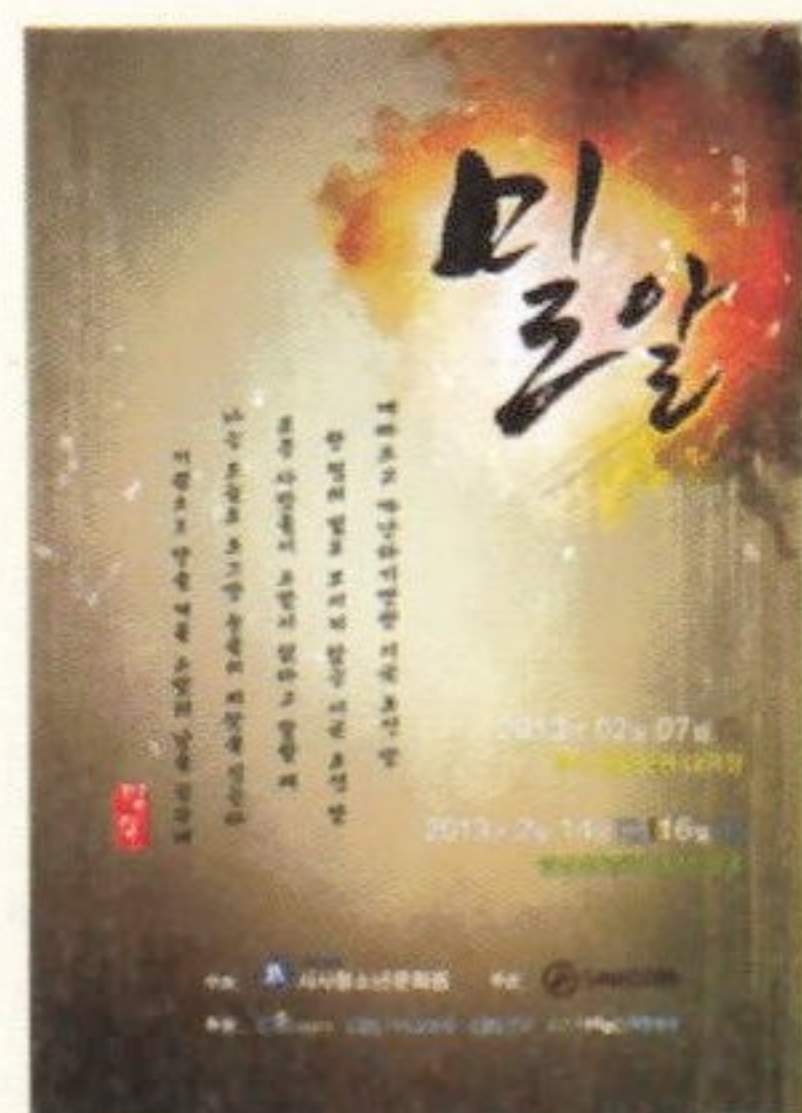
뮤지컬 '밀알'

2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7만원 · R석 5만원 · S석 3만원

A석 1만원 · 자유석 5천원

문의 | SAVICOM(070-8671-5005)



조선후기 선교사들의 희생을 그린 창작 뮤지컬 '밀알' 부산공연.

제너럴셔먼호를 타고 들어와 조선땅을 밟지도 못하고 순교한 토마스선교사를 모티브로 한 '밀알'은 주인공 켈빈 아버지의 순교와 켈빈

으로 이어지는 밀알의 씨앗을 그린 작품이다.

출연/양현석, 송진협, 한재훈, 김하늘, 임창조, 이종원, 박세경, 김예희, 김영준, 서동혁, 윤주홍, 강민석, 송지혜, 유소리, 신은파, 전한영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설맞이 국악한마당'

2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1년을 준비하는 깨끗하고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무병장수와 풍요를 기원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설맞이 국악한마당'.

채수만 악장의 집박으로 국가의 경축이나 외국 빈객의 접대 등으로 궁중에서 베푸는 연례악(宴禮樂)곡 수연장 지곡을 시작으로 이종록의 시조창, 장선희 무용단의 흥겨운 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와 신예 최백송, 구은슬이 들려주는 민요, 정우수가 이끄는 부산고분도리 걸립(2011년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의 판굿 등으로 신명난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관현합주 '수연장지곡(壽延長之曲)'

영제시조/평시조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사설시조 '한잔 먹세 그려-송강 정철의 장진주사'

무용/장고춤, 오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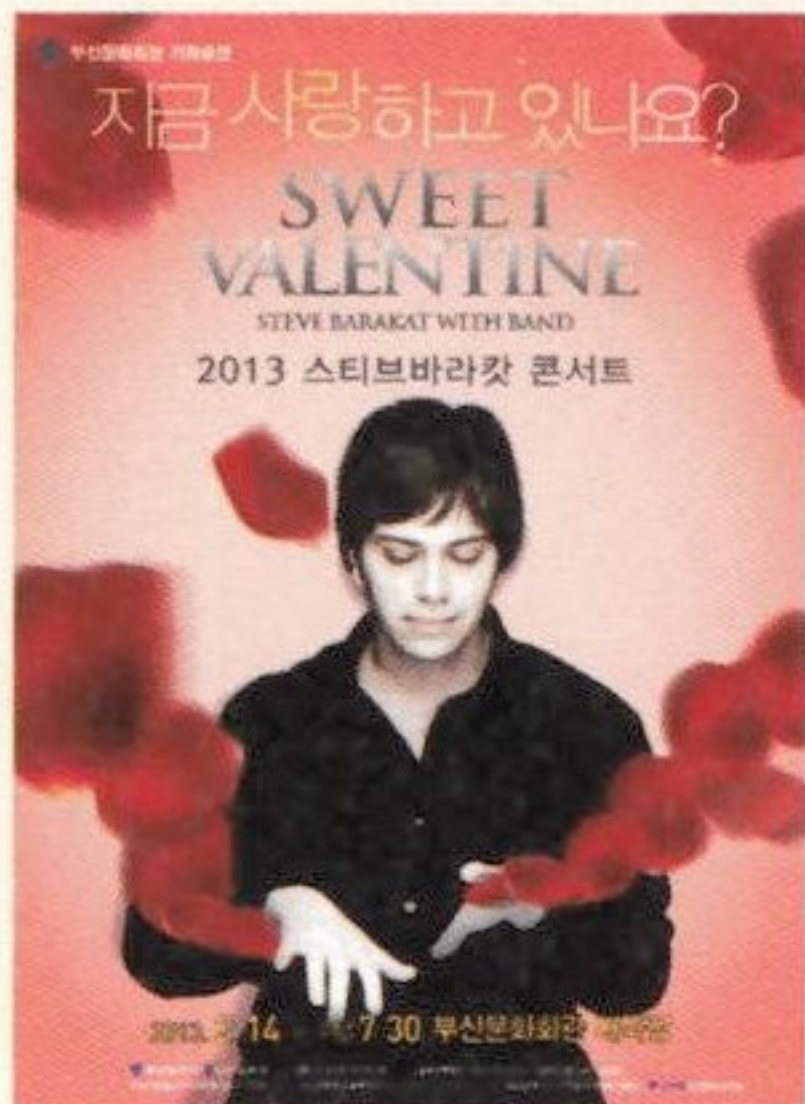
흥겨운 민요 한마당/금강산타령, 동백타령, 동해바다 판굿

· 집박/채수만(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 협연/이종록(영제시조 예능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가곡 및 가사 예능보유자), 장선희 무용단, 박성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정선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최백송, 구은슬, 부산고분도리 걸립(단장/정우수)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3 스티브 바라캣 콘서트
'Sweet Valentine'

2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7)



클래식, 뉴에이지, 팝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의 대가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캣 첫 부산공연.

스티브 바라캣은 2005년 첫 내한 공연을 가진 이래 신영옥 & 스티브 바라캣 듀오 콘서트, 스티브 바라캣 심포니

콘서트, 스티브 바라캣 콘서트 (Sweet November), 예술의전당 공연 (Sweet Concert) 매진 기록을 세우며 클래식 팬들에게 감미로운 사랑의 선율을 선사해왔다. 이번 부산무대는 대중을 사로잡는 환상의 팝 사운드, 드라마틱한 프로그래밍, 화려한 조명이 함께하는 라이브 무대로 스티브 바라캣의 곡, 스티브 바라캣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밴드와 함께 공연을 선보인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32- 소란, 솔루션스

2월 15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소극장에서 즐기는 뮤지션들의 품격 높은 무대 하늘아래 그 콘서트 2013년 첫 무대의 주인공 '소란' 과 '솔루션스'의 첫 부산콘서트. 고영배(보컬, 건반, 어쿠스틱 기타), 서면호(베이스, 코러스), 편유일(드럼, 퍼커션), 이태욱(기타)으로 구성된 4인조 밴드 '소란'은 EP(그때는 왜 몰랐을까, 2010년), 싱글앨범(Wait, 2011년) 발표 후 정규앨범을 내기 전 부터 흥대 썬의 거물급 신예로 주가를 올리며 주목 받았다. 고급스럽고 감성적인 팝/모던 록이 잘 묻어나는 첫 번째 앨범 'Natural, 2012년'을 발

표, 짜임새 있는 멜로디와 탄탄한 연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소란은 서울 첫 아트홀 콘서트가 티켓 오픈 3분 만에 매진을 기록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모던영재라 불려온 '나루'와 어쿠스틱 계열 싱어송라이터 '박솔'이 뭉친 '솔루션스'는 데뷔 앨범 'The Solutions'로 네이버 뮤직 선정 '이 주의 국내 앨범', 다음 뮤직 선정 '이달의 앨범', 싸이월드 뮤직 선정 '이 주의 앨범' 등에 소개되며 평단과 리스너의 기대감을 충족시켰다.

부산시립극단이 2013년 첫 정기공연작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어무이 게사니'.

부산시립극단 제46회 정기공연
'어무이 게사니'

2월 16일(토)-20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극단(607-3151~3)



'어무이 게사니'는 풍자와 해학을 통해 전통적인 희극 형식을 뛰어넘어 다양한 양식적 실험을 보여준 극작가 이근삼의 작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부산시립극단 문석봉 예술감독의 첫 연출작품으로 기대가 높다. '게사니'는 거위를 일컫는 평안도 사투리. 임진왜란 당시 평양에서 국밥장사를 하며 난세에 휘말렸던 게사니 일가를 중심으로 그린 '어무이 게사니'는 동래부사 송상현과 이순신의 결사항쟁과 선조의 몽진, 서민들의 애환을 부산시립극단 배우와 연기·뮤지컬 전공 학생 등 총 60여명이 한국형 창작 뮤지컬로 담아낸다. 객석을 압도하는 연기와 앙상블이 펼쳐는 회전 무대의 퍼포먼스, 입체적인 무대, 조명, 영상, 우리의 멋이 살아 있는 춤과 화려하고 역동적인 움직임, 10여곡의 창작곡으로 감동을 선사한다.

- 원작/이근삼 · 드라마트루기/김동규
- 연출/문석봉(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 각색, 협력연출/오리라 · 안무, 시각감독/계현순
- 음악, 청각감독/강원중 · 무대디자인/송관우
- 조명디자인/김준범

출연
이현주, 주은실(게사니), 황창기(나그네), 전지은(장대), 김은희, 염지선(보름), 이수아(탄실), 이돈희(상인), 윤준기, 김정원(광대), 이혁우(선조), 박준서(이유징), 박규한(윤두수), 차승현(이덕형), 김은옥(계월향), 정행심(민중대표), 서보기(풍신수길), 김소희(순덕)
· 앙상블/신승우, 양해동, 박주현, 이종욱, 박일주, 이재경, 김창훈, 박대현
· 특별출연/오동주(테너), 계현순, 최지은

Rainbow Post

2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박선영(010-2448-0823)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단원으로, 작, 편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선영이 가야금으로 풀어나가는 국악이야기 'Rainbow Post'. 박선영의 창작곡과 우리 귀

에 익은 클래식 음악, 팝, 뉴에이지 음악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박선영/낮선거리, 행복한 그리움, 기억의 저편에서...
- 박선영(편곡)/Fly me to the moon, 고양이춤, 젓가락행진곡, 옛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 박선영(편곡)/When the love falls, Manhattan Transfer 'Java jive' 등 수록
- 연출/이찬우(김해문화의전당 무대감독)
- 음향/김일용(김해문화의전당 음향감독)
- 연주/안숙현, 박정미, 한지우, 조설리, 박은정, 이한나, 윤승환(이상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단원), 방병원, 손한별, 전현진(이상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진민진(국립부산국악원단원), 차민영(경원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김형진(berklee 실용음악학원 강사), 이효림(DJ)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합창단 2013 특별연주회

‘봄이 오는 길목에서...’

2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창단 40주년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의 2013 특별연주회 ‘봄이 오는 길목에서...’ 수석지휘자 오세종의 지휘로 한국을 대표하는 천재 동요시인인 서덕출의 동요를 비롯해 찬바람 에인 겨울과

싱그러움이 가득한 봄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한국가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김기영(편곡)/눈 꽃송이
- 김준범/제비꽃
- 임금수/강 건너 봄이 오듯
- 황철익/꽃 파는 아가씨
- 조혜영/나비아
- 최석태(편곡)/겨울동요 모음, 봄이 오는 길목에서
- 김준범(편곡)/봄이 오면, 고향의 봄 등
- 지휘/오세종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 특별출연/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전상철, 지도/노금선, 김양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3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I - 리골레토

2월 22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기 힘든 주부, 여성 청중들을 위해 기획된 부산문화회관 웰빙콘서트의 2013년 첫 무대 ‘오페라 하이라이트 I - 리골레토’.

고가의 무대 장치와 소품들을 축소하여 입장료를 낮추



지휘 이동신

연출 유철우

면서도 오페라 작품 속의 주요 장면과 유명 아리아를 전문 오페라 연출가의 연출과 지휘자의 상세한 해설로 만날 수 있는 2013년 웰빙콘서트 ‘오페라 하이라이트’는 지난해에 이어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이 지휘와 해설을, 오페라 전문 연출가 유철우가 연출을 맡아 오페라의 감동을 선사한다.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칠레아 성악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바리톤 박대용이 만토바 공작의 어릿광대 리골레토로,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귀국,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김유진이 리골레토의 딸 질다로, 도르트문트 오페라극장 주역가수로 활동한 테너 김기태가 만토바 공작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CH7 대구클래식 예술단 부대표 베이스 홍순포가 암살자 스파라푸칠레로, 메조소프라노 하윤지가 스파라푸칠레의 누이 마달레나로 열연한다.

프로그램

- 주세페 베르디/리골레토 하이라이트
- 지휘, 해설/이동신 · 연출/유철우
- 바리톤/박대용 · 소프라노/김유진
- 테너/김기태 · 베이스/홍순포
- 메조소프라노/하윤지

유경혜 초청 크로마하프 독주회

2월 22일 금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한국크로마하프예술협회
 (465-3709, 010-7930-3709)

1986년 한국크로마하프예술협회를 설립, 그동안 국내외에서 크로마하프 음악의 정수와 이웃사랑실천운동을 펼쳐온 유경혜의 크로마하프 독주회.

1980년대 초 (주)삼익악기로 부터 새로운 악기 보급과 문화예술의 교육을 의뢰받아 한국음악협회 크로마하프 연주협회에서 지도강사자격을 취득한 유경혜는 크로마하프가 반주악기의 틀을 벗어나 멜로디 악기로 도약할



수 있는 ‘압축기보법’을 구성, 종전의 실용악기, 생활악기의 틀에서 벗어나 크로마하프 고유의 아름다운 음향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무대는 ‘압축기보법’ 발표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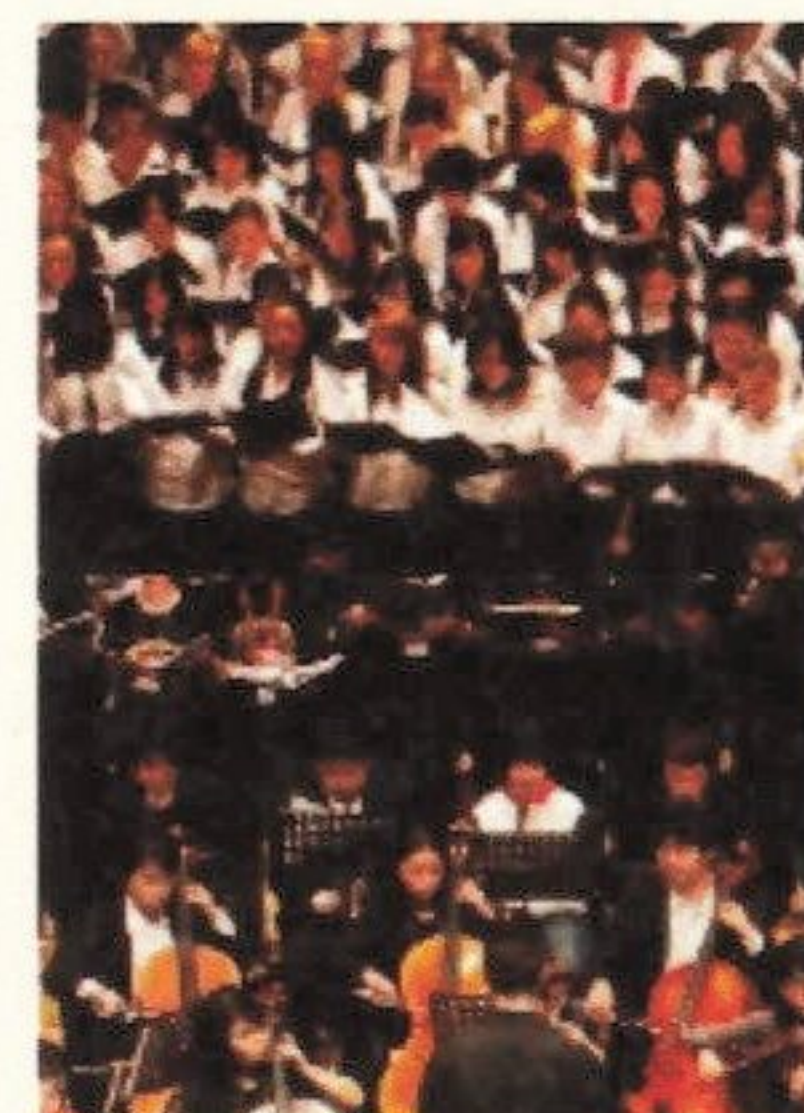
처음으로 클래식 크로마하프 독주회를 연다.

프로그램

- Amazing grace, Mozart Sonate No.331,
- Battle of Waterloo, The Holy City,
- 목련화, 우리사랑 등 수곡
- 사회/전우주(중국음악과문학부총편), 이숙례(동서대 교수)
- 출연/라영태, 김송학, 홍시선, 김영희, 윤정선(피아노), 박웅(첼로), 윤성진(바이올린), 김은조(바이올린), 장일기(매직킹) 외

2013 ISCMS MASSive

2월 23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1층 1만 7천원 · 2층 1만원
 문 의 | 부산국제외국인학교(742-3332)



부산국제외국인학교를 비롯해 Discovery College(홍콩), Dalian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중국), Dulwich College Beijing(중국), Dulwich College Shanghai(중국), Dulwich College Zhuhai(중국), International

School of Ulaanbaator(몽골), Ivy Collegiate Academy(대만), Kellett School(홍콩), King George V School(홍콩), Renaissance College(홍콩), Sha Tin College(홍콩), Taipei European School(대만) 등 19개 국제학교가 함께 마련하는 국제학교음악축제(ISCMS).

300~400명의 국제학교 학생들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구성, 브람스 레퀴엠을 비롯하여 칼 젠킨슨 대회에서 수상한 곡들로 장엄하고 웅장한 합창을 펼친다.

프로그램

- Requiem, Kyrie, Miserere Nobis, Sanctus, Pie Jesu, Gloria & Amen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2월 23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010-4842-6688)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문과 인성, 음악을 균형감 있게 성장시키기 위해 1998년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부속 오케스트라로 창단된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는 2000년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11회의 정기연주회, 유니세프와 함께 하는 영상 플러스 뮤직 스토리 등의 무대를 열어왔다.

프로그램

- 슈베르트/로자문데 서곡
- 모차르트/바이올린협주곡 제5번 1악장
-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제19번 1악장
-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 지휘/김용문(동아대학교 음악과 교수)
- 악장/최한솔(동아대학교 음악과 1학년)
- 협연/바이올린 정채미(광무여중 3학년)
- 피아노/김수현(부산예술중학교 3학년)

2013년 이루마콘서트-기억에 머무르다

2월 24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7만 7천원 · S석(2층) 6만 6천원
A석(3층) 4만 4천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올해로 데뷔 12년을 맞아 지난 시간의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며 피아노 선율로 그려낸 인생의 풍경화 같은 새 앨범 '기억에 머무르다'를 발표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부산연주회.

뮤지컬, 연극, 영화음악 작곡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루마는 2001년 1집 'Love Scene'으로 데뷔, 드라마 '겨울연가'에 'When the love falls'가 삽입되면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루마는 이후 영화 '오아시스' 이미지 앨범 'OASIS & YIRUMA'을 발표, 피아니스트 뿐만 아니라 작곡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뉴에이지 아티스트로서는 최초로 12개 도시에서 첫 전국투어(2003.6~9)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동시에 호암아트홀과 영산아트홀에서의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는 저력을 과시하며 전국에 뉴에이지 열풍을 가져온 이루마는 이번 무대에서 그 동안 발매했던 음반에 수록된 인기곡들과 신작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기억에 머무르다, Nocturne No.1, Do you?, White Shadow, May Be + Love, If I could see you again, Loanna, Kiss the Rain, Indigo, When the Love Falls, Spring Waltz + 잃어버린 섬, River Flows in You, Fotografia, Reminiscent 등

재즈로 듣는 쇼팽/ 재즈로 듣는 오페라

2월 24일 일요일 오후 5:3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문의 | 뮤직와이즈(070-7794-5118)



지난해 내한공연을 통해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네덜란드 출신의 World Class 재즈피아노 연주자 피터베이츠(Peter Beets)의 두번째 한국 연주회.

세계적인 재즈레이블 Criss Cross를 통해 발매되어 미국과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와 평단의 찬사를 받고 있는 '쇼팽, 블루스를 만나다(Chopin meets the blues)' 앨범과 곧 발매될 새로운 앨범 '오페라, 블루스를 만나

다(Opera goes blues)'를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무대로 1부는 쇼팽의 곡들로, 2부에는 오페라 곡들로 꾸며진다.

Peter Beets Trio가 어쿠스틱 연주 특유의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와 흥겨움을 함께 선사한다.

프로그램

쇼팽/녹턴 내림 마장조, 프렐류드 마단조, 프렐류드 나단조, 마주르카 가단조, 녹턴 나장조 등 수곡

제23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귀향연주회

2월 26일 화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이화여자음악대학교 재부어머니회
(010-8804-4207)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있는 부산출신의 음악도들이 들려주는 귀향연주회.

올해는 가야금 병창 전공자 정주연(한국음악과 4학년), 성악 전공자 김소연(성악과 1학년), 피아노 전공자 홍미영(기악과 1학년)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 보는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슈베르트/봄의 신
가야금병창/홍부가 중 제비점고~제비노정기, 심청가 중 눈뜨는 대목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28번 가장조 작품 101
슈트라우스/오페레타 '박쥐' 중 '친애하는 나의 후작님' 등 수곡

UKO 청소년 협주곡의 밤

2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의 | 이명현(011-591-3342)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자선오케스트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UKO와 청소년 유망주들이 함께하는 협주곡의 밤으로 이상석, 박수빈 외 5명이 전영수가 지휘하는 UKO와 협연한다.

· 음악감독/전영수(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7회 정기연주회

2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2012년 7월 3일 연주회 예약자는 2월

27일 무료초대합니다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수원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김대진과 그의 제자 손열음이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7회 정기연주회. 유연하면서도 화려한 테크닉과 개성이 강한 작품해석으로 독자적인 연주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김대진은 수원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어 활동하던 수원시립교향악단을 치밀한 작품분석을 바탕으로 뛰어난 연주력을 갖춘 실력 있는 교향악단으로 변화시키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1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 수상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상,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연주상까지 휩쓸어 한국 국적으로 피아노 부문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손열음은 뛰어난 통찰력과 한계 없는 테크닉,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음악계에 신선한 피아니스트로 급부상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프로그램

번스타인/캔디드 서곡

조지 거슈윈/피아노 협주곡 바장조

드보르작/교향곡 제9번 마단조 '신세계로부터' 작품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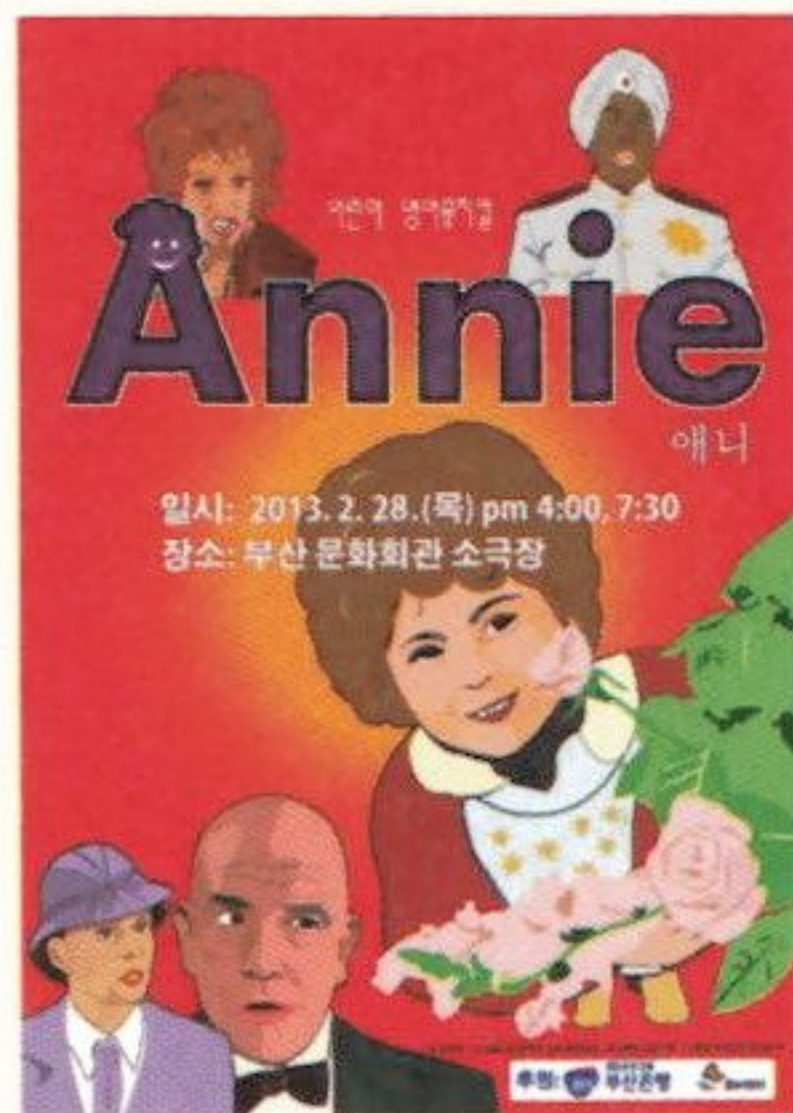
꿈꾸는 아이 영어 뮤지컬 '애니'

2월 28일 목요일 오후 4:00, 7:30 소극장

입장료 | 2만원(전화예매 및 당일 현매 가능
전화예매시 20%로 할인)

문의 | 꿈꾸는 아이(010-7503-6564)

극단 꿈꾸는 아이가 선보이는 6번째 작품 영어뮤지컬 'Annie(애니)'.



2006년 초연을 통해 한국 무대에 첫 선을 보인 애니는 Tomorrow 등 친숙한 레퍼토리로 2007년 한국뮤지컬 대상 베스트 외국 뮤지컬 상/기술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 총감독/김성경

· 연출/윤은대

· 연기/임경민

· 음악감독/서정아

· 안무/김성훈

출연

박세은, 차민재, 황서진, 차승민, 이수정, 이은혜, 배지윤, 김성진, 박진희, 박세민, 박민지, 최준영, 이민정, 최민준, 이수아, 장현영, 백희란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 연주회

3월 2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송인문화재단(010-4183-2293)



부산합창의 부흥을 꿈꾸는 (사)송인문화재단(이사장/위원장)에서 기획한 아마추어 남성합창단원들의 합창축제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의 두 번째 무대.

부산지역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는 아마추어 남성합창단원들이 합창음악의 부흥을 위해 함께 노래하는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은 (사)송인문화재단의 사무실 겸 합창연습실 코랄하우스에서 연습에 열심이다.

이번 무대는 전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송인문화재단 음악감독 김강규가 지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과 미국 신시네티움대(박사)를 졸업한 권준의 피아노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이영조 교수의 특별위촉곡, 성가, 가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성가 셋/만유의 주 앞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전능하신

여호와

고백 돌/우리들의 이야기(윤지영 편곡),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천영진 편곡)

재미나게... 그리고 광야에서/이것이 인생, 파-라-라' 변주곡(C.Bridwell 편곡), 광야에서(백현주 편곡) 등 수곡

· 지휘/김강규(전 부산시립합창단 지휘자, 송인문화재단 음악감독)

· 피아노/권준(미국 신시네티움대 박사)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3 신춘음악회(2013 부산연주인시리즈)

3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이동신

피아노 성민주

소프라노 이윤경

음악과 함께 활기찬 새봄의 기운을 느껴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13 신춘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발레 모음곡, 왈츠 등 봄의 느낌을 담고 있는 신선하고 활기찬 레퍼토리로 싱그러움 봄을 선물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출신 또는 부산에서 활동 중인 뛰어난 음악인을 발굴하는 '부산연주인시리즈' 연주자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성민주가 화려하고 풍부한 화성의 라벨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한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모음곡
라벨/피아노 협주곡 사장조

거슈윈/쿠바 서곡

글리에르/콜로라투라 소프라노를 위한 협주곡

라벨/관현악을 위한 무용시 '라 발스'

· 지휘/이동신

· 피아노/성민주

· 소프라노/이윤경



정신혜무용단



피에스타



김세윤 국악실내악단



낙동민속보존회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2월 2일

정신혜무용단 '춤·세대공감 II'

프로그램

한량무(특별출연/임이조)

비교적 담백한 소박미를 내포하고 있고 호방한 남성적 기개가 돋보이는 춤

승무(춤/정미숙)

유려하게 흐르는 춤의 조형적 선, 고고하고 단아한 정중동의 춤사위로 인간의 희열과 인육의 세계를 그려낸 춤

대감놀이(춤/정신혜)

무당 굿판에서 추는 여흥 놀이 춤의 성격이 강하다.

소고춤(춤/최지은)

장구춤(춤/박미향)

입춤(춤/김지민)

· 연출, 구성/정신혜

· 해설/장승헌

· 반주/박준식, 신호수, 정호선, 이호진

2월 23일

김세윤 국악실내악단

김세윤의 新춘향가II '숲속의 카프카'

프로그램

Intro - 이별가

calm calm한 밤 - 긴아리랑

땅, 태고의 기억 - 회심곡

한줄기 별빛, 달빛 - 아리랑연곡

소리 없는 구름, 바람 - 동부민요연곡

나무와 들풀의 대화 - 서도민요연곡

흔들리며 피는 꽃 - 노랫가락, 창부타령

· 소리, 연출/김세윤 · 거문고, 신디/손자민

· 대금/허유진 · 피리/이종철

· 해금/강지은 · 아쟁/김애리

· 타악/이진희 · 기타/신정현

· 가야금/장문정 · 무용/박혜진

2월 16일

피에스타 'Shall we dance?'

프로그램

모슈코프스키/스페인 무곡(연주/신희정, 백현주)

피아졸라/리베르 탱고(연주/백현주, 박진모, 송봉근, 김나윤)

탱고 엔 스카이(연주/박진모, 송봉근, 김동욱)

비에나프스키/Polonaise de Concert(연주/김나윤, 신희정)

드보르작/슬라브무곡 작품 72(연주/신희정, 백현주)

척코리아/스페인(연주/박진모, 송봉근, 김동욱)

듀크엘링턴/It don't mean a thing(연주/김일황, 김현정, 최창근, 이건영, 곽영일, 박재훈)

Estate/(연주/김현정, 최창근, 김일황, 이건영, 곽영일, 박재훈)

잘마 페레이라/Recado bossa(연주/김일황, 최창근, 이건영, 곽영일, 박재훈)

3월 2일

낙동민속보존회 초청공연

프로그램

비나리(부모은중경)(연주/김귀수, 김정근, 이기범, 최익규, 최성용, 황영미, 구미숙, 김경규, 박준영)

삼도사물놀이(연주/최익규, 김정근, 황영미, 구미숙, 이기범, 손희자, 강영숙, 최성용, 박준영, 김경규)

한국무용/입춤(춤/임일숙)

판소리/춘향가 중 '동헌경사대목'(소리/김귀수, 공정희)

모듬북(연주/김정근, 황영미, 구미숙, 이기범, 최익규, 강영숙, 손희자, 임일숙, 최성용)

· 해설/최진근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Music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2일 프로그램

춘앵전, 풍류장구춤, 남도민요 '동백타령', 태평성대, 가야금병창 '명기명창', 태평소와 관현악, 사물놀이

9일-10일 2013 설날공연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국립부산국악원이 9일과 10일 이틀간 마련하는 설날 특별공연. 처용무, 단가 '사철가', 판소리 '흥보가' 중 '화초장대목', 부채춤, 해금협주곡 '해금을 위한 세상풍경', 성주 굿을 위한 국악관현악 등을 선보인다.

16일 프로그램

보허자, 포구락, 판소리 '춘향가' 중 '초경이경', 진주교 방굿거리춤과 동래한량춤, 신밧놀이(원일 작곡), 부채춤, 판굿

23일 프로그램

해령, 무산향, 경기민요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사설 방아타령', 살풀이춤, 판소리 '수궁가' 중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 굿풍류, 밀양백중놀이춤

사진이 있는 작은음악회

서수민 비올라 독주회

2월 2일 토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입장료 | 균일 1만원(사전 예약)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www.goeunmuseum.org)



중인 비올리스트 서수민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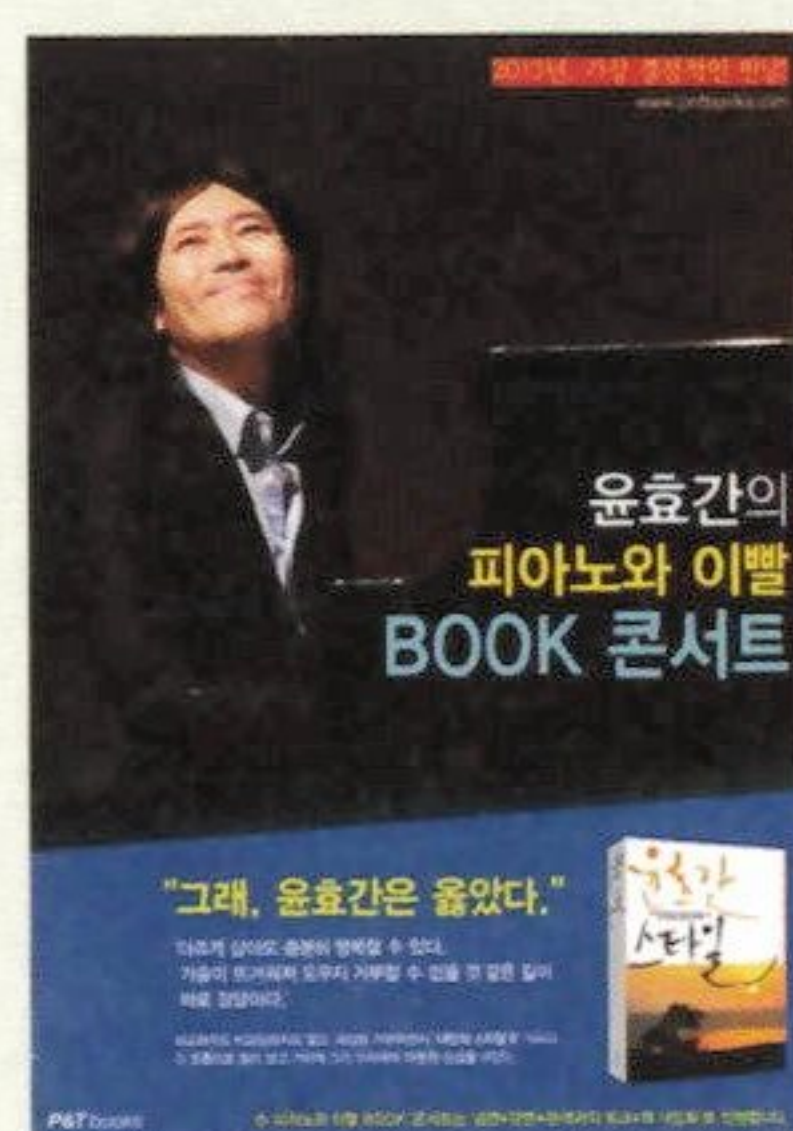
서수민은 동아일보 콩쿠르 1위, Johannes Brahms 국제콩쿠르 한국인 최초 1위, 음악저널 2008 신인음악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바흐/첼로 조곡 제1번 사장조
비탈리/사콘느 사단조
피아졸라/그랜드 탱고 등
· 피아노/박성열(추계대학교 교수)

윤효간의 피아노와 이빨 BOOK 콘서트

2월 3일 일요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용가엔터테인먼트(02-2659-6003)



으로 관객과 만난다.

음악(피아노)에 이야기(이빨)를 결합한 이색 콘서트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온 피아니스트 윤효간의 BOOK 콘서트. 그의 자전적 에세이 '윤효간 스타일' 사인회를 겸한 무대로, 공연과 강연, 관객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2013년 유망신예 청소년 협주곡의 향연

2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YMCA-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440-3371)

2009년 7월 창단 이후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났던 부산YMCA-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청소년 유망주들을 위해 마련하는 협주곡의 밤.



브니엘 전국음악콩쿠르 2위, 경상남도 종합문화제 특별상 등을 수상한 김강연(피아노), 개천예술제 금상, 서울뮤직청소년콩쿠르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이나영(피아노), 글로벌음악콩쿠르 은상, 울산음악콩쿠르 대상 등을 수상한 윤미연(피아노), 장애학생콩쿠르 금상, TJB방송국 학생콩쿠르 은상 등을 수상한 박상진(바이올린)이 출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제22회 임병원 바이올린 독주회

2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임병원(663-4917, 010-8533-4917)



현재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이 경성대학교 재직 25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무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미국 피바디음악원을 졸업하고 KBS교향악단

단원, 부산시립교향악단 객원악장을 역임한 임병원은 1993년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오케스트라인 부산시포니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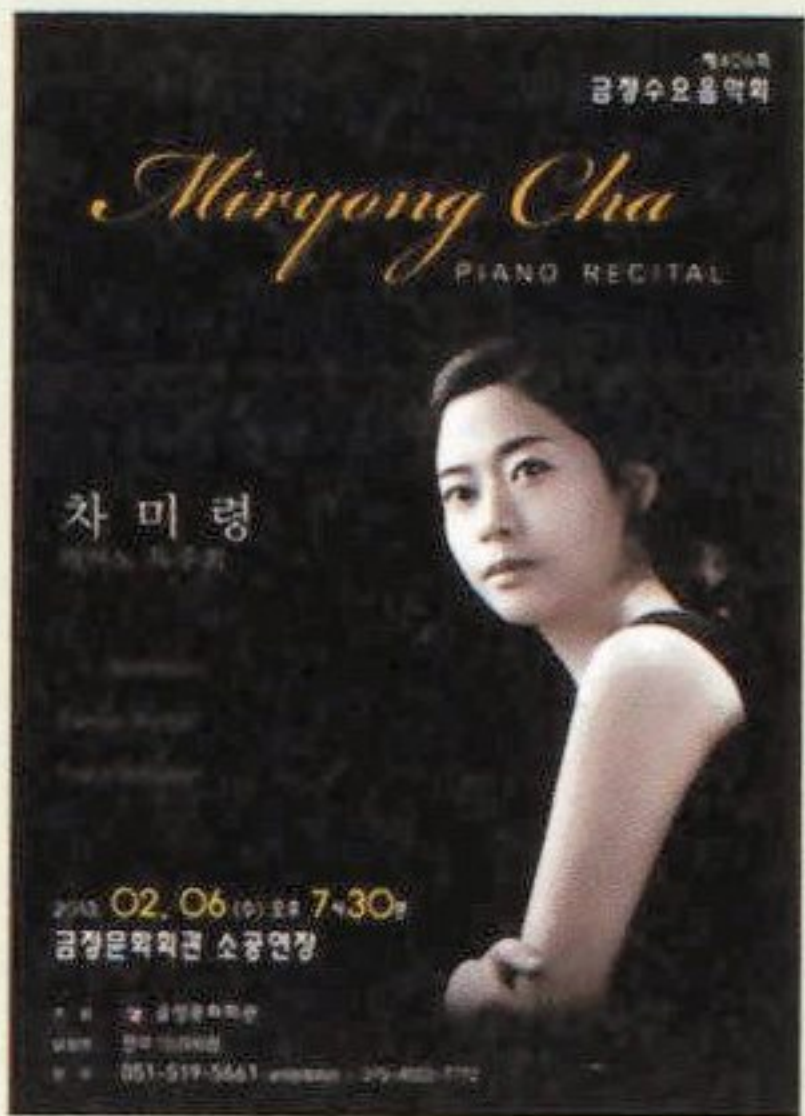
프로그램

엘가/로망스 작품 1
생상/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작품 75 라단조
브람스/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작품 78 사장조
· 피아노/이은정(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김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

▶ 6일 차미령 피아노 독주회



미국 맨하탄음대(학사, 석사)와 뉴저지 주립음대(연주학 박사)를 졸업하고 예원희,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차미령 독주회.

차미령은 브래드쇼 부오노

국제콩쿠르에서 2위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24번 올림바장조 작품 78

바버/소나타 내림마단조 작품 26

슈베르트/소나타 가장조 D.959

▶ 13일 3인 음악회

부산예고 및 동아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미연, 송학, 이주연이 함께하는 3인 음악회.

프로그램

리스트/녹턴 제3번 내림가장조

슈베르트/소나타 D.960

거쉰/3개의 프렐류드 등

▶ 20일 양지 피아노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석사, 박사)를 졸업하고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양지의 독주회.

프로그램

바흐/파르티타 제1번 내림나장조 BWV 825

베토벤/소나타 제21번 다장조 작품 53

Y. 보웬/토카타 작품 155 등

▶ 27일 음악대륙 가이아의 퓨전국악

2009년 창단 후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콘서트, 부산문화회관 토요일상설무대,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우리 국악의 멋과 흥을 알려온 퓨전국악그룹 '음악대륙 가이아'의 무대.

프로그램

천년만세, 남도민요연곡, 춘향 Story, 영상과 함께하는 OST, ABBA, 이문세 BEST, 모듬북 협주곡 '타' 등 수곡 연주/손한별(대금), 문포근(가야금), 김아름(소리), 최요셉(피리), 김민경(타악), 김원지(해금), 김인균(타악)

옥샘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박진홍(010-4563-7966)



2005년 동래초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창단된 옥샘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교향곡 제25번 사단조

드보르작/신세계 교향곡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23번 가장조 등 수곡

· 지휘/박진홍

· 협연/신재환(바이올린), 최자빈(피아노)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 아트카페 움

입장료 | 무료

문의 | 아트카페 움(557-3369)

▶ 7일 성경현 피아노 리사이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대학원과 데트몰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 후 예술의전당, 모

차르트홀, 세종챔버홀 등에서 10여회 독주회 및 앙상블 무대를 가져온 피아니스트 성경현 독주회.

▶ 14일 소프라노 장희진과 소리꾼 김아름이 들려주는 '동서양의 성악 이야기'



소프라노 장희진

소리꾼 김아름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함부르크 J.Brahms 시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장희진과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소리꾼 김아름이 함께하는 특별무대.

프로그램

우리민요 함께하기,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새타령(조두남 곡), 아리아리랑(안정준 곡), 아름다운 나라 등
· 교수/김인균 · 반주/전해란

▶ 21일 이송희 피아노 독주회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유학시절 독일 언론으로부터 '놀라운 다이내믹의 진열과 뛰어난 리듬 감의 분출로 악기를 리드한 피아니스트'라는 호평을 받은 피아니스트 이송희 독주회.



부산악기점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
복원(수리), 조율, 감정, 대여

부산문화회관전속 조율사 / 김해문화의전당 전속

대표 강규찬 (조율사)

H.P 010-4556-9410

TEL 051)758-5445 / 5450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프로그램

하이든/피아노 소나타 다장조 Hob. XVI 제50번
스크라빈/피아노 소나타 올림바장조 제4번 작품 30
슈만/피아노 소나타 올림바단조 작품 11

▶ 28일 포르투나 앙상블과 함께하는 따스한 봄의 소리를 찾아서

현재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홍기정, 박미정, 백흥선, 조미혜로 구성된 바이올린 콰르
텟 '포르투나 앙상블'의 무대.

프로그램

텔레만/협주곡 제4번 TWV 40:204
Dancda/3 Pieces for 4 Violins 작품 178
호프만/콰르텟 작품 98 등

이리나 & 정성흡 듀오 리사이틀

2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지클레프(515-5123)



미국 줄리어드음대와 메네스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창원시립마산교향악단 악장, IPB(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와 미국 줄리어드음대와 뉴욕주립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iTrio, IPB 단원으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정성흡의 듀오 무대.

프로그램

알프레드 슈니케/변주곡 작품 56b
비탈리/사콘느 사단조
세자르 프랑크/소나타 가장조

제1142회 MBC 목요일음악회 Lovely Sweet Valentine SENTO Chamber Society

2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 MBC(760-1494)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 이은옥을 주축으로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가 마련하는 발렌타인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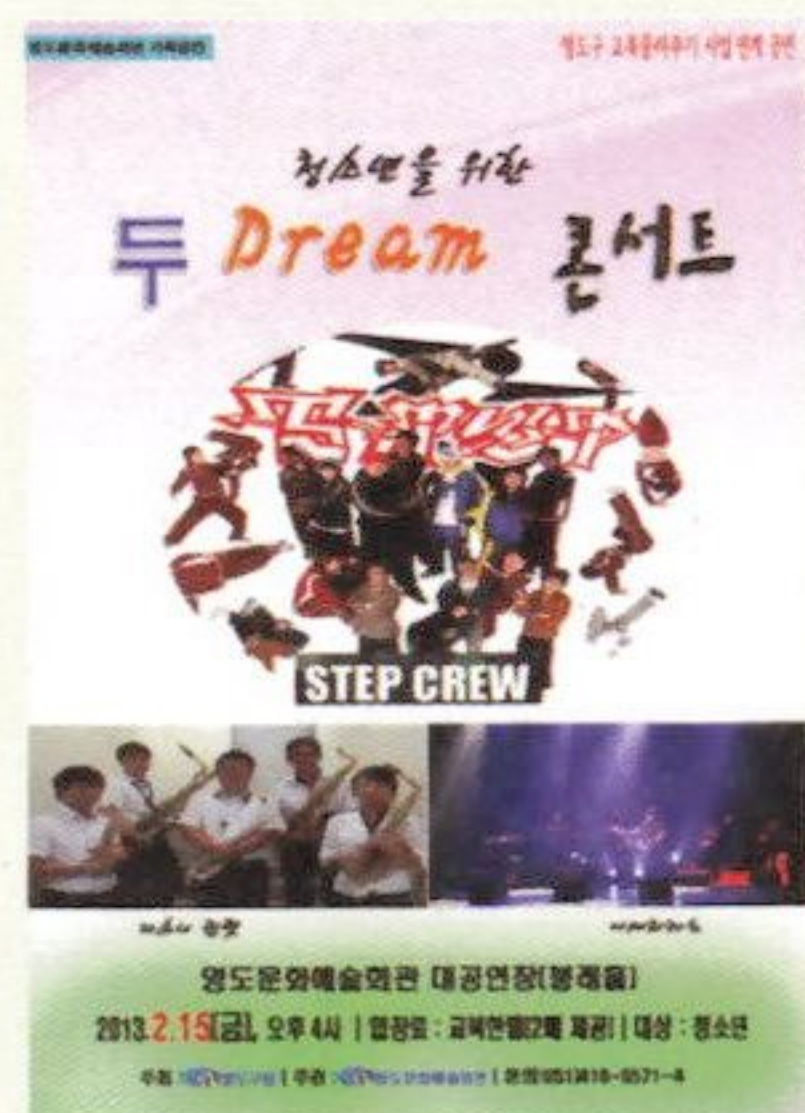
'느끼다' '듣다' 라는 뜻을 지닌 'Sento'는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듣고 느끼면서 인생의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쳐진 이름이다.

프로그램

헨델-할보르센/파사칼리아 사단조
쇼스타코비치/3 Duets 작품 97d
파헬렐/캐논 변주곡 등 수곡
· 연주/바이올리니스트 이은옥, 조무중, 강선혜, 서은아, 김지윤, 비올리스트 손주연, 첼리스트 서성은, 김기량, 오보이스트 김선희, 피아니스트 김미현

청소년을 위한 '두 Dream 콘서트'

2월 15일 금요일 오후 4: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교복한벌(티켓 2매 제공)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부산의 대표적인 힙합그룹인 스텝크루와 다소니 쿼텟, 밴드 아메리카노의 무대로 펼쳐지는 청소년들을 위한 콘서트. 영도구 교복물려주기 사업과 연계해 교복으로 입장권을 대신한다.

무지크바움 살롱 음악회 바로크와 낭만의 만남 & 슈만 - 시인의 사랑

2월 16일 토요일 오후 7: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소프라노 김선미, 테너 김신영, 카운터테너 지필두 등 부산대학교 음대 성악 트리오가 선사하는 바로크와 낭만 음악의 밤. 슈만의 '시인의 사랑'을 비롯 헨델과 푸치니, 비발디, 도니제티의 곡을 들려준다.

동성화학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장일범의 영화음악 2 - 007 시리즈

2월 19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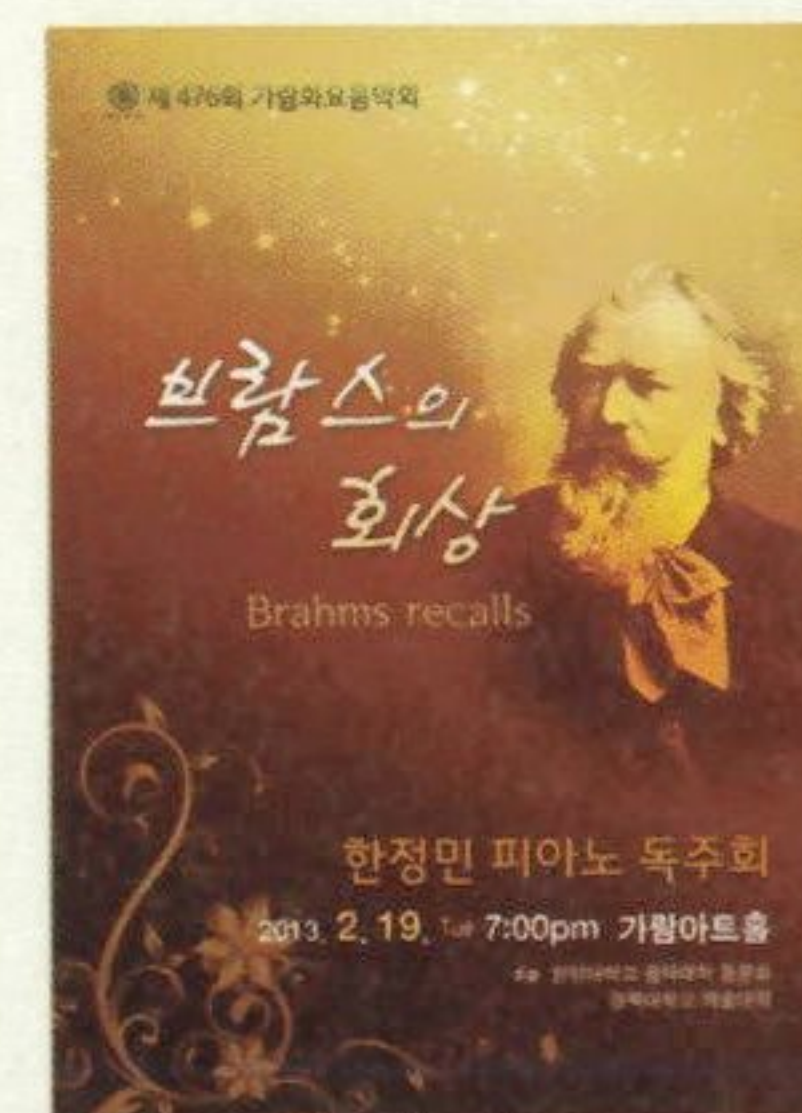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로 영화 속 명곡을 전하는 '장일범의 영화음악 2' 두 번째 무대. 1962년 첫 상영작인 '007 살인번호' 부터 50주년 기념작 '007 스카이폴' 까지 지난 50년간 23편, 6명의 제

임스 본드를 탄생시킨 첩보영화의 레전드 '007 시리즈'의 주제곡으로 마련된다.

- 진행/장일범
- 출연/박혜나(뮤지컬 배우), 이궐(작곡, 키보드), 강웅(재즈기타), 고희안(재즈피아노) 외

제476회 가람화요음악회 한정민 피아노 독주회 '브람스의 회상'

2월 19일 화요일 오후 7:00 가람아트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 청소년 5천원
문의 | 가람아트홀(010-3855-8604)



한양대학교 피아노과와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을 졸업하고 현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피아니스트 한정민 독주회로 마련되는 제476회 가람 화요음악회. 한정민은 현재 한국리스트

협회 경남지부,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부산피아노음악 연구회 회원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프로그램

브람스/7개의 환상곡 작품 116
브람스/소나타 제3번 바단조 작품 5

제3회 라온 첼로 앙상블 정기연주회

2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송미경(010-5012-8188)



첼리스트 김은주, 송미경의 제자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첼로앙상블인 라온 첼로앙상블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순 우리말로 '즐거움'이란 뜻을 지닌 라온 첼로앙상블은 지난 2010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음악으로 하나 되는 즐거움을 누려왔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5번 2악장
브람스/헝가리무곡 제5번
모차르트/아아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등

**글로벌아트홀 기획공연
비안 트리오 Tour 2013**

2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 5천원
문 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미국 버클리음대와 맨하튼음대 대학원에서 재즈를 공부하고 2006년 첫앨범 'Twenty Plus'를 시작으로 2008년 'Ordinary Days', 2010년 'Song, My Eternal Love'를 발표해 독창적인 상상력을 지닌 작곡가, 섬세한 감성의 피아니즘을 선보이는 피아니스트로 주목받은 재즈 피아니스트 비안(Vian)과 베이시스트 이원술, 드러머 한웅원으로 이루어진 비안 트리오(Vian Trio) 재즈 콘서트.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2013년 겨울음악페스티벌

2월 23일(토), 24일(일), 3월 1일(금)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박선연(010-4509-6846)

피아노를 지도하는 전공교사들의 재교육, 음악 프로그램 연구와 보급에 힘쓰고 있는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가 매년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23일 프로그램

영화 '올드보이' 중 'The Last Waltz', 드라마 '봄의 왈츠' 중 'Flying Petals', 드라마 '황진이' 중 '꽃날', 보리수(슈베르트 곡), 학교가는 길(김광민 곡), 꽃의 왈츠(차이코프스키 곡) 등 수곡

24일 프로그램

헝가리무곡(브람스 곡), 마법의 성(김광진 곡), 왈츠 작품 54 제6번(라이네케 곡), 산촌(조두남 곡),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세느비유 곡),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중 '썸머'(히사이시 조 곡) 등 수곡

3월 1일 프로그램

영화 '여인의 향기' 중 'Por Una Cabeza'(C. 가르멜 공), 영화 '캐러비안의 해적' 중 'He's A Pirate'(클라우

스 바델트 곡), 아베마리아(카치니 곡), 스페인 민요 '로망스' 등 수곡

· 연주/장근미, 석경래, 고충진, 김승헌, 홍기정, 신지은, 조선희, 박선연, 홍영미, 황은빛, 한미영, 권민주, 고성옥, 민소연, 강혜영, 이주영, 박선영, 이민혜, 이은미, 정슬기, 박세정, 이민영 외

제61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2월 24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금 기금)
문 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최무진 바순 리사이틀

2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최무진(010-7225-9357)



경성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한 바 있는 바순니스트 최무진 독주회.

프로그램

E.Bozza/Reait Sicilienne ea Rondo
C.Kreutzer/Variation for

Bassoon 등 수곡

· 피아노/이은정(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 해설/박진홍(음악평론가)

**제15회
글로벌전국
음악콩쿨**

2013. 3. 30(토)
4. 6(토)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부 문 | 피아노/작곡/성악/중창/현악/관악/국악/실내악

대 상 | 유·초·중·고·대·일반전공·일반비전공

접 수 | 2013년 3월 28일 인터넷으로만 접수

대회일 | 3월 30일/피아노 부문 4월 6일/피아노 제외한 모든 부문

접수처 | www.contest.co.kr(콘테스트) 또는 www.glovil.org

과제곡 | 전 부문 자유곡 1곡 ※자세한 사항 및 작곡은 홈페이지 참조

시 상 | 부산광역시장상, 부산대학교총장상, 문화콘텐츠개발원장상, 글로벌아트홀 관장상, 각 부문별 각 학년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부문별 최우수상 대상 교육공로상 최우수학원상

주 최 | 글로벌아트홀, 부산대문화콘텐츠개발원

글로벌아트홀 3호선, 4호선 미남역 1번출구 국민은행과 파리바게트 사이길로 4분 도보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벌아트홀(온천3동 1243-21), 약도는 홈페이지 참조
T.051)505-5995 F.051)505-5935 E. glovil@hanmail.net http://www.glovil.org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바리톤 채범석 독창회

2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채범석(010-9219-4060)



부산대와 이태리 L.Perosi 국립음악원, A.I.Arts 아카데미 합창지휘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온 바리톤 채범석 독창회. 'Nostalgia(그리움)'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가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사르티/그리운 님 멀리떠나
 토스티/이별의 노래
 뒤파르크/슬픈 노래
 제갈삼/파랑새 등 수곡

칸타빌레 남성양상블 연주회

신사들의 품격있는 수다

2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7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1997년 12월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의 국립대학에서 유학한 남성 성악가들로 결성된 칸타빌레 남성양상블의 무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 남성들의 유쾌한 수다가 노래와 함께 펼쳐진다.

프로그램

김규환/남촌
 이오시프 코브존/백학
 폴 앵카/마이웨이
 레하르/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그녀는 나의 모든 것'
 R 로저스/여자보다 귀한 것은 없네 등 수곡
 · 출연/김길수, 이홍득, 이은민, 안상철, 박기범, 김화정, 양승엽, 김정대
 · 피아노/김인재

최유리 해금독주회 '고백'

2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최유리(010-3994-4674)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 및 동대학원을 수료한 해금주자 최유리의 첫번째 독주회. '고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담은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다량쉬, 그대를 위한 기도, 새2, 고백(위촉곡), 하나님의 은혜, 아침이슬

Play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2012년 1월 1일(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수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주)WSM(1566-5490)



지난 20년간 500만 관객을 동원하며 뮤지컬 대중화에 앞장서온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자선쇼를 준비하는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연극 '그남자 그여자'

2012년 11월 1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2/11일 오후 3:00, 6:00, 2/12일, 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초콜릿팩토리(1577-5878)

수줍은 사내 커플과 풋풋한 대학생 커플의 두근거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달콤한 사랑, 그리고 쓰라린 이별과 아

련한 추억까지 사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린 대학로 최고의 커플 연극 '그남자 그여자' 부산공연.

코믹뮤지컬 '프리즌'

2012년 12월 6일(목)-2013년 2월 9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12/31일 오후 8:00,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 의 | 극단 라임(1600-1602)

가수를 꿈꾸는 탈옥범들의 요절복통 스토리를 담은 '프리즌'은 콘서트와 퍼포먼스, 비보잉, 마술, 개그 등 다채로운 장르가 결합되어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2012년 12월 18일(화)-2013년 3월 3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2/10-11일, 월요일 공연없음)
 전용관 부산 햇살가득한날에
 입장료 | 일반 3만 5천원 · 대학생 2만 5천원
 청소년 2만원
 문 의 | 햇살가득한날에(1899-3253)



10년동안 한사람을 그리워 해온 남자 태양과 10년동안 한사람을 마음에만 품어온 여자 두나, 그리고 친구의 첫사랑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해온 두나의 소꿉친구 만식과 제니 등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로맨틱 코미디극 '연애특강'

1월 5일(토)-2월 28일(목)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좋은데이 솜사탕아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좋은데이 솜사탕아트홀(740-4888)



**대학 선후배 관계인 순수남
종호와 연상녀 수민, 클럽에
서 처음 만난 터프남 광웅과
핑크녀 리사 등 두 커플을
통해 남녀의 연애심리를 분
석해보는 로맨틱 코미디극
'연애특강'.**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연애박사의 명강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연극 '행복'

1월 11일(금)-2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2/11일 오후 3:00
공연, 2/10일, 2/12일,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웃거나 울면 기도가 막혀 죽
게 되는 희귀병인 코넬리아
디란지 증후군에 걸린 아내
와 알츠하이머에 걸린 남편,
상상하지도 못했던 절망적
인 상황에서도 행복을 꾸려
가는 부부의 사랑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린 연극.

· 작/이선희 · 연출/정세혁
· 출연/김동현, 이수나, 김종석, 변희경, 김형조, 정서연

연극 '발칙한 로맨스'

1월 15일(화)-2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2/11일 오후 3:00
공연, 2/10일, 2/12일,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10년만에 만난 첫사랑과의 이슬이슬한 재회를 앙큼한
상상력과 포복절도한 대사로 그려낸 로맨틱 코미디극.
· 작, 연출/김민교
· 출연/서신우, 허성민, 고효진, 오미란, 임미현, 류경환,
이병권, 고혜나, 김보현, 이수진

창작뮤지컬 '춘향 YO'

1월 23일(수)-2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 일·공휴일 오후 5:00
청춘나비아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청춘나비아트홀(070-8241-2560)



절세미인 춘향이 원래는 못
생겼다는 가설에서 시작된
새로운 해석의 춘향전 창작
뮤지컬 '춘향 YO'.
외모지상주의라는 굴레속에
서 스스로 상처받는 우리들
의 모습을 유쾌하면서도 진
지하게 그려낸다.
· 작/홍선주 · 연출/변진호

연극 '오! 브라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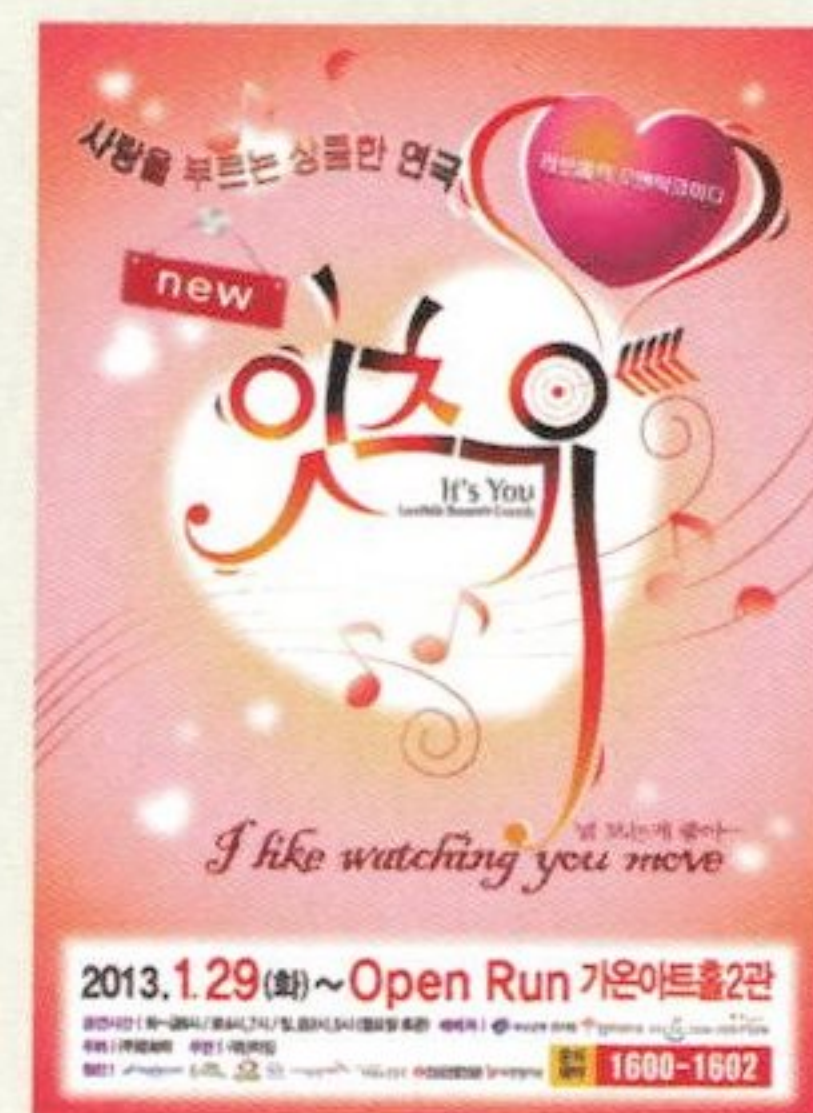
1월 25일(금)-2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미니티켓(1600-1716)



입양을 선택한 불임부부 탐
과 린다, 탐의 동생인 탁과
해리가 펼치는 좌충우돌 코
믹극 '오! 브라더스'.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배우
들의 대사과 능청스러운 연
기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작/레이 쿠니

로맨틱 코미디극 '뉴 잇츠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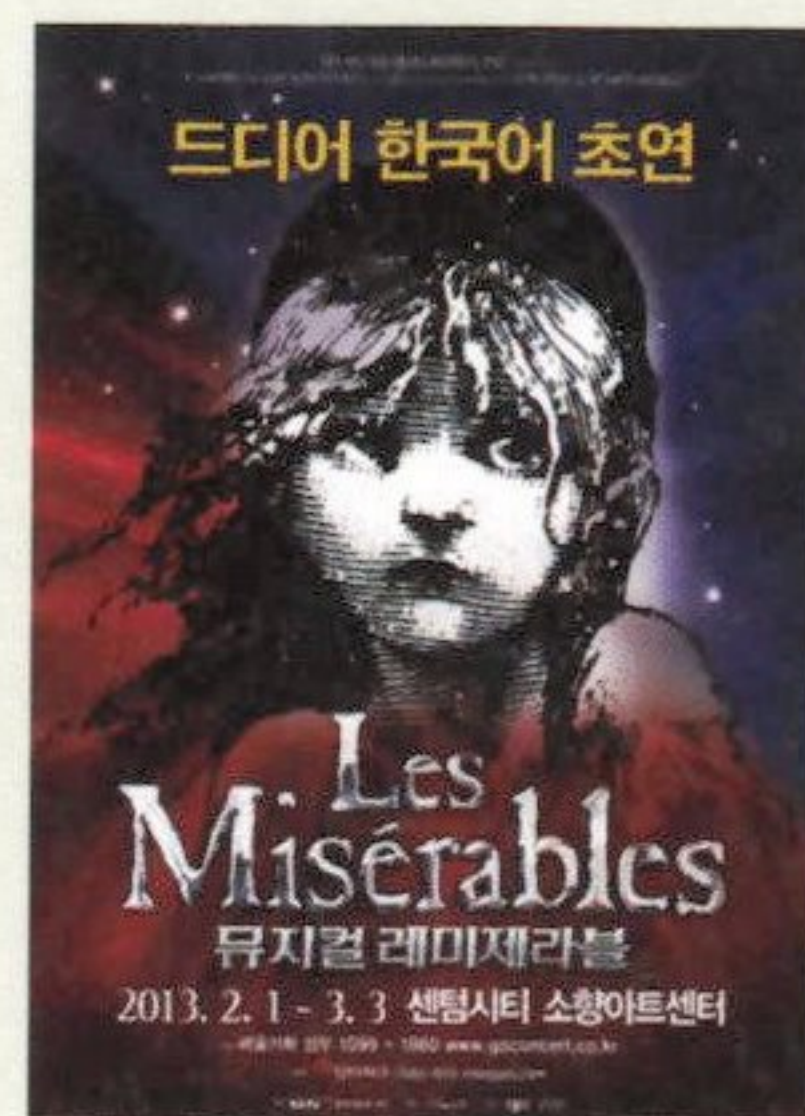
1월 29일(화)-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2/11일-12일,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 의 | 극단 라임(1600-1602)



대학로 최고의 로맨틱 코미
디극으로 10만 관객을 돌파
한 화제작 '잇츠유'의 새로
운 무대.
지방 방송국을 배경으로 네
명의 남녀가 펼치는 알콩달
콩 사랑이야기가 웃음과 감
동을 전한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2월 1일(금)-3월 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8:00, 일요일 오후 2:00, 7:00
센텀시티 소향아트센터
입장료 | VIP 14만원 · R석 12만원
S석 9만원 · A석 6만원
문 의 | 예술기획 성우(1599-1980)



자유, 평등, 박애로 상징되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죄와
벌, 신과 인간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다룬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장발
장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모
든 연령과 시대를 초월해 깊
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한다.



YAMAHA · KAWAI · STEINWAY
PIANO DI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가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051-753-8963
H.P. 010-9003-8963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 작/알랭 부빌 · 대본, 음악/클로드 미셸 손버그
· 연출/로렌스 코너, 제임스 파우웰
· 출연/정성화, 문종원, 조정은, 조상웅, 박지연, 이지수, 김우형, 임춘길, 박준면

닌자고 버블쇼

2월 2일-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애드피아(010-6508-7555)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닌자고와 환상적인 버블쇼가 만난 닌자고 버블쇼.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3' 호비와 친구들의 착한 마음의 등대

2월 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3일 일요일 오후 1:00,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 5천원 ·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호비와 친구들이 펼치는 신나는 바다모험이 어린이들의 참여 속에 펼쳐지는 뮤지컬 '호비쇼' 세 번째 무대.

코믹 호러극 '막무가내들'

2월 14일(목)-3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2007년 국내 최초 코믹호러극으로 선보인 연극 '막무가내들' 2013년 무대.

천년 된 여자귀신에서부터 귀신을 쫓는 퇴마사와 저승사자, 사채회사 말단직원과 막장반장 김반장까지 5명의 캐릭터들이 빚어내는 공포 속 폭소가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 작/이주용 · 각색, 연출/오승수
· 출연/신미영, 김민태, 문주희, 허윤, 이은성, 태향호, 조선아, 정성진

연극 '범수(犯獸)'

2월 15일(금)-3월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공간소극장(611-8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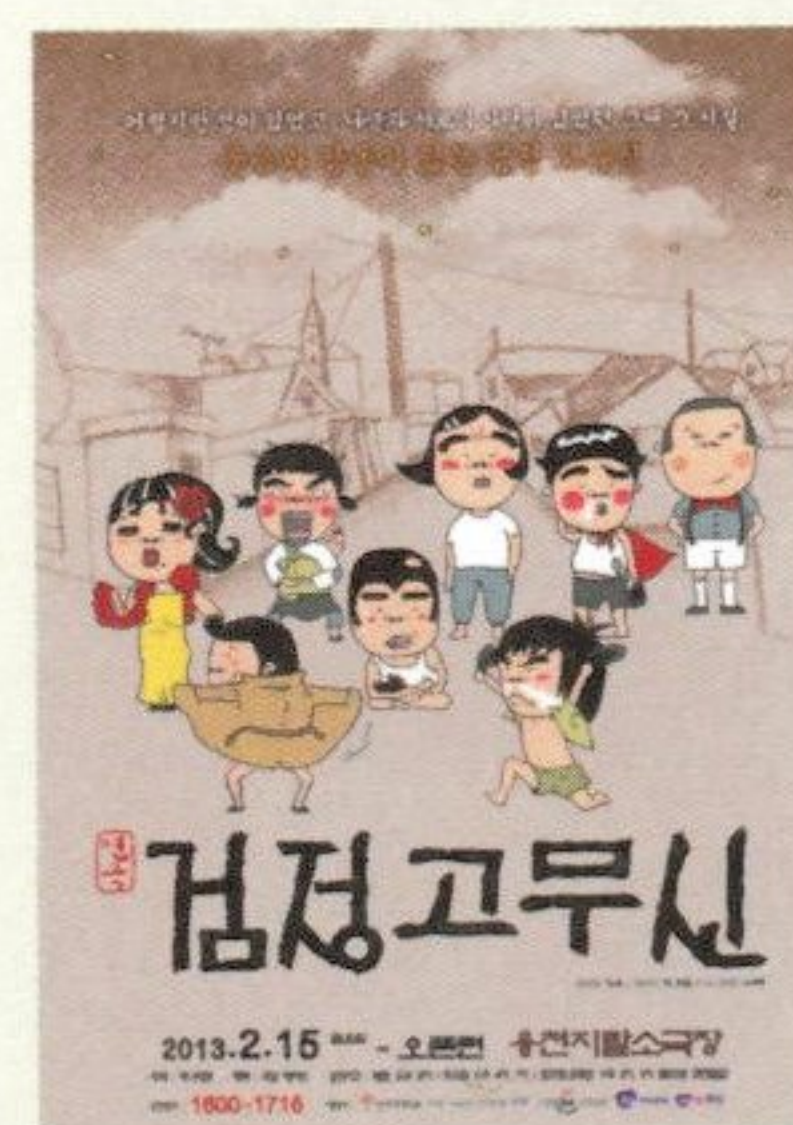
· 출연/강혜경, 김범수

가족마저 모든 사실을 숨기고 모른 척 해야만 하는 가족 성폭력의 현실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그리고 편견으로 인한 세상으로 부터의 고립을 그린 문제작 '범수'.

· 작, 연출/백대현

연극 '검정고무신'

2월 15일(금)-3월 17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미니티켓(1600-1716)



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 작, 연출/최재민 · 각색/김문홍

2007년 관객들의 입소문으로 화제가 된 '육남매'를 업그레이드한 연극 '검정고무신'.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부모 없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참고 이겨내는 육남매의 사랑과 우애를 웃음과 감동

라이브 뮤지컬 '어린이 캣츠'

2월 1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7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극단 가빈(1600-1602)



세계 4대 뮤지컬인 '캣츠'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가족 뮤지컬 '어린이 캣츠'. 실제 고양이와 같은 배우들의 연기와 춤, 신나는 연주와 아름다운 노래, 난타와 미술, 버블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명품 어린이베스트셀러 뮤지컬 '책먹는여우'-부산

2월 1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7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가람뮤지컬(1544-4852)



아동문학가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동명의 원작을 각색한 캐릭터 뮤지컬 '책먹는 여우'는 책을 너무 좋아해 읽고 난 책을 먹어 치우는 여우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생동감 있는 시각 디자인과 연출로 재미를 더해준다.

영도구 스토리텔링 인형극 장사바위 이야기

2월 19일-20일 화-수요일 오전 10: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영도구청 평생학습 동아리인 '선녀와 나무꾼'이 영도구 봉래산 서쪽 기슭에 자리한 '장사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재미있는 인형극으로 선보이는 스토리텔링 인형극.

가족뮤지컬 '유후와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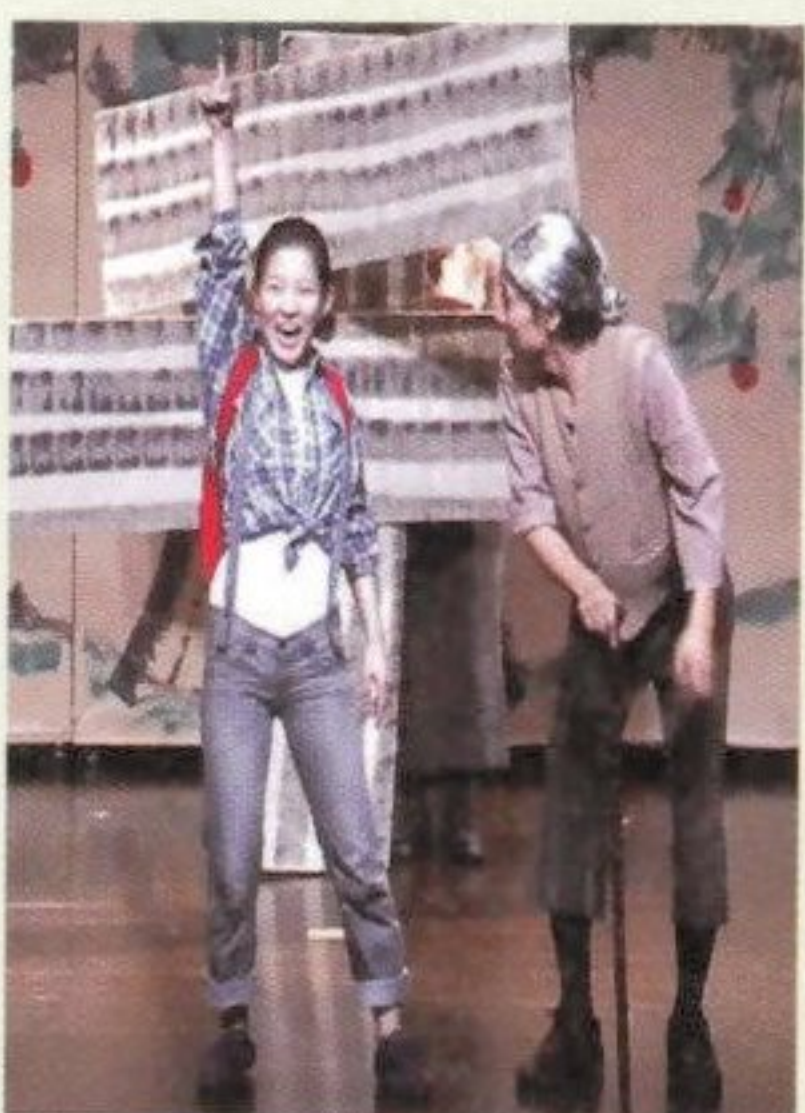
2월 23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4일 일요일 오후 1:00,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 5천원 · S석 3만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동물
을 주인공으로, 세계를 여행
하며 우정과 환경보호 메시
지를 전달하는 유후와 친구
들이 펼치는 신나는 모험이
야기.
· 연출 및 안무/서병구
· 작/서윤미

감성충전 웰빙가족극 '붓바람'

2월 23일-24일 토-일요일 오후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극단 하땅세(1600-8534)



탄탄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음악, 그림, 배우들의 연기가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감성
무대로, 2010년 김천전국가
족연극제에서 대상, 연출상,
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작/윤조병
· 연출/윤시중

Movie

영화의전당 시니어극장

2월 6일(수), 20일(수) 오전 10:00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입장료 | 60세 이상 무료(행사당일 오전 9:30부터
매표소에서 선착순 배부)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활동적인 시니어들을 위해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마련하는 시니어극장.
6일에는 '토요일 밤의 열기', 20일에는 '파리에서의 마
지막 탕고'를 상영한다.

Concert

재즈 시네마

2월 16일 토요일 오후 4:00,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7만 7천원 · R석 6만 6천원
S석 5만 5천원 · A석 4만 4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주)문화락(1600-1602)

재즈피아니스트 조운성, 베이스스트 전성심, 드러머 스티
브 프루잇, 색소포니스트 캔지 레주매, 기타리스트 문원
우, 보컬 써니킴, 지나 사푸토가 들려주는 재즈콘서트.
핑크팬더, 007시리즈, 만추, 에비타 등 우리 귀에 친숙
한 영화 주제곡을 들려준다.

콘서트 '젊음의 행진 레전드'

-소방차, 김완선, 박남정, 강수지
2월 23일 토요일 오후 3:00, 7:3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9만 9천원 · S석 8만 8천원
A석 7만 7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www.wsmi.co.kr)

Event

무지크바움 후기낭만 교향곡 감상회

2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7천원
문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 1부 말러 교향곡 10번(CD)(지휘/미하엘 길렌, 연주/바
덴-바덴 프라이부르크 남서독일 방송관현악단)
· 2부 브루크너 교향곡 8번(DVD)(지휘/헤르베르트 폰 카
라얀, 연주/빈 필하모닉 관현악단)

제118회 저녁에 만나는 아름다운 시

2월 6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예강(010-5516-1867)
· 초대시인/김정순, 김점미, 배옥주, 송미선, 한보경

부산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회 제72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2월 16일 토요일 오후 5: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회장 김옥균(010-6367-0149)

· 초청 음악가/소프라노 김혜경, 클래식기타리스트 신준기

시를 짓고 듣는 사람들의 모임 130 詩人 초청 시마당 제130회 시낭송회 및 제9회 시낭송대회

2월 26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시를 짓고 듣는 사람들의 모임(867-2569)

Gallery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전

아름다운 날들의 기록
2012년 12월 1일(토)-2013년 3월 3일(일)
월석아트홀
입장료 | 일반 1만 2천원 · 초중고생 9천원
만 36개월이상 · 미취학 아동 7천원
문의 | 월석아트홀(1577-7600)

지구가 감추고 있던 아름다운 비경을 선사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전

고은사진미술관 기획전

The Origin 근원
2012년 12월 8일(토)-2013년 2월 21일(목)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 참여작가/강용석, 권태균, 김보섭, 오상조, 이갑철, 이상
일, 이완교, 이종만, 정주하, 최광호, 한정식

부산시립미술관 해외특별전 SPEAKING ARTISTS展

2012년 12월 8일(토)-2013년 2월 11일(월)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부산의 발견 2012展

2012년 12월 8일(토)~2013년 2월 11일(월)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지역 화단을 지탱해온 중견작가 김현언, 서상환, 양철모, 이동순의 작품 120여점을 선보인다.

'부산 작고작가-김남배, 한상돈'展

2012년 12월 8일(토)~2013년 2월 1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우리들의 숨씨 '작은 손, 커다란 꿈'

2012년 12월 15일(토)~2013년 2월 1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740-4244)

2012년 여름 진행되었던 어린이 여름미술관 프로그램인 '릴레이 상상그림 창작소' '소설가의 미술관 산책' '팽 글쟁글 애니제작단'에서 창작된 어린이 작품을 공개하는 전시.

2012 오픈스페이스 배 JAK전

The boundary

2012년 12월 15일(토)~2013년 2월 2일(토)
오픈스페이스 배
문의 | 오픈스페이스 배(724-5201)

· 관람시간/오전 11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접전의 랩소디展 -우징, 강희란

2012년 12월 18일(화)~2013년 2월 17일(일)
금련산갤러리
문의 | 금련산갤러리(740-4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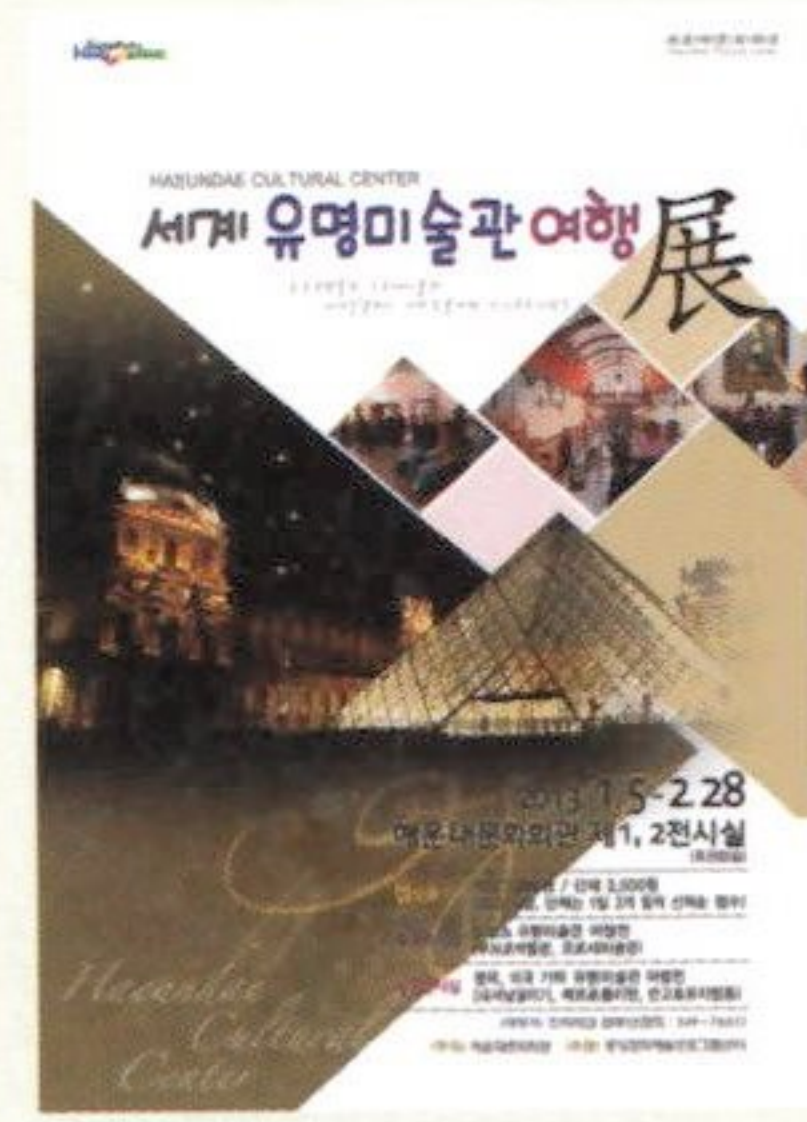
'유니세프 인도와 함께하는 이월종 희망의 세계'展

2012년 12월 28일(금)~2013년 2월 13일(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양화가인 이월종과 딜립 샤르마, 라즈 모레, 비스와짓 B, 파라드 후세인 등 인도작가 4인이 함께하는 유니세프 인도를 돕기위한 후원전

세계 유명미술관 여행전

1월 5일(토)~2월 28일(목) 해운대문화회관 전시실
입장료 | 균일 7천원(30인 이상 단체 3천 5백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 영국 내셔널갤러리,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네덜란드 반고흐뮤지엄 등 전 세계 유명미술관에 소장된 명화를 국내 특허기술로 복제한 작품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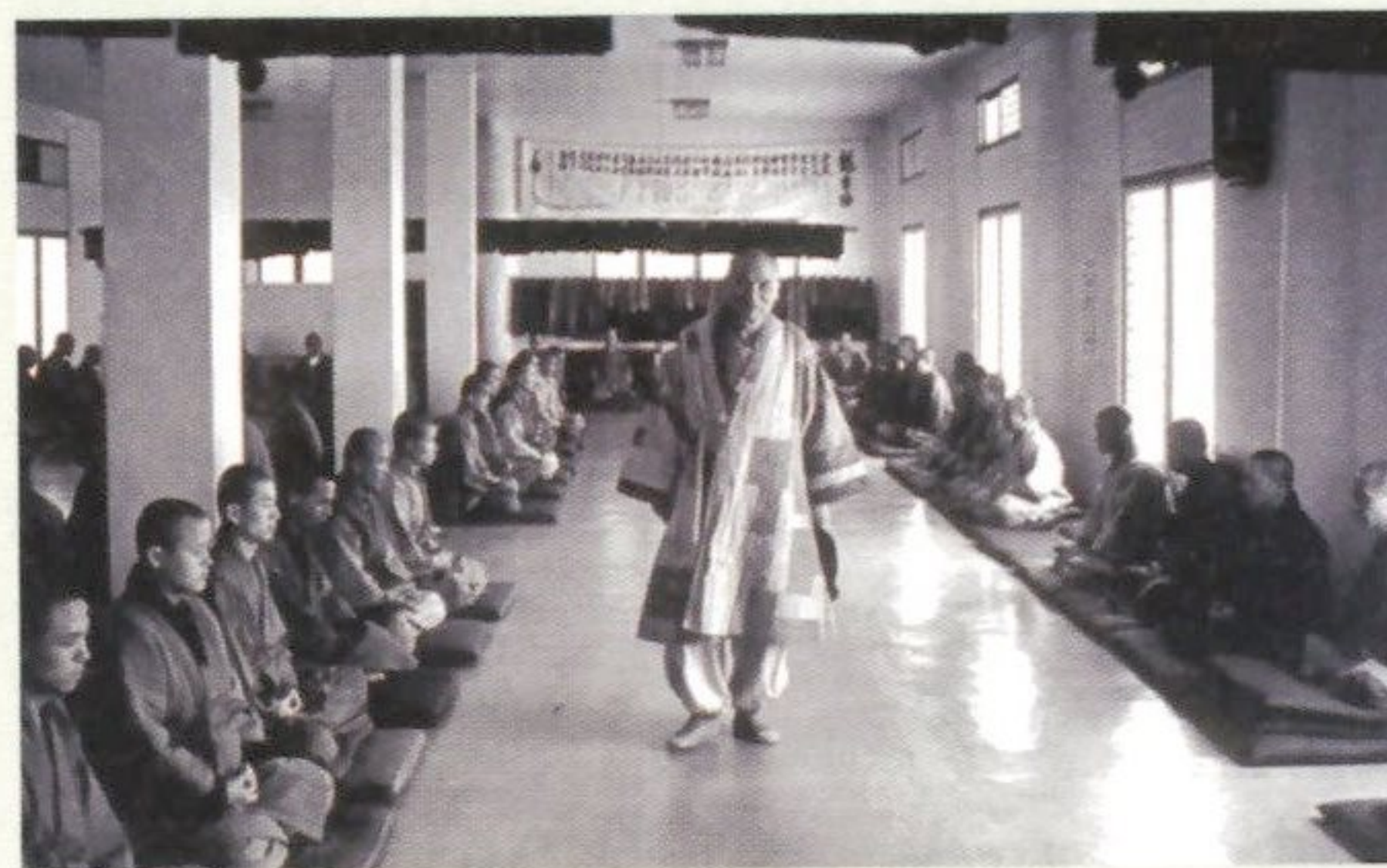
박주현 'Tool Story' 전

1월 17일(목)~2월 5일(화)
부산프랑스문화원 아트스페이스
문의 | 부산프랑스문화원(746-0342)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월요일 휴관)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특별전

1월 21일(월)~2월 20(수)
부산시민회관 1, 2층 전시실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민회관(630-5200)



'백년의 궤적, 살아있는 지혜를 만나다'를 주제로 성철스님의 탄신으로부터 수행, 열반까지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느낄 수 있는 유품, 사진 등 101점이 전시된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매주 월요일 휴관)

박승근 사진전

'눈동자 너머에서 기억을 보다'展

2월 1일(금)~2월 15일(금)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외신 사진기자이자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승근 사진전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앞두고 당시 UN군으로 참여했던 전 세계 21개국 150만명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특별한 전시를 마련한다.

우명하 개인전 '큰 공간의 소리'

2월 1일(금)~2월 25일(월) 서울아트스페이스
문의 | 서울아트스페이스(731-5878)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 신진작가 지원 프로젝트 靑사진 손이숙展 'I s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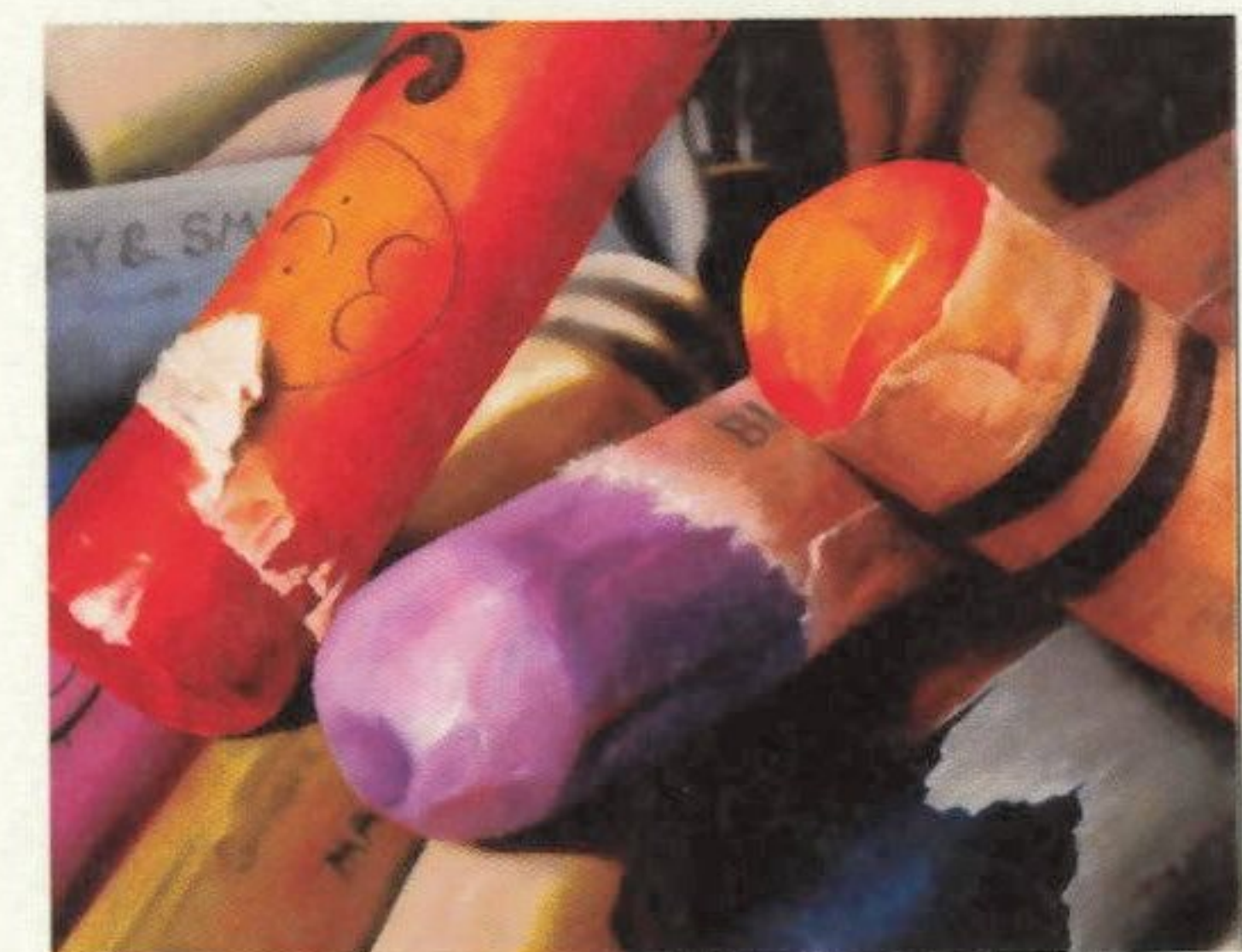
2월 1일(금)~3월 25일(월)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
문의 |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731-6200)

신미란 '기원' 전

2월 2일(목)~3월 12일(화)
부산프랑스문화원 아트스페이스
문의 | 부산프랑스문화원(746-0342)

'김혜진 joint 이현지' 2인전

2월 4일(월)~2월 23일(토) 갤러리 움
문의 | 갤러리 움(557-3369)



이현지 작
'Crayons'

기존의 회화적 상투성을 벗어던지고 대범한 소재와 색상으로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해온 젊은 작가 김혜진, 이현지 2인전.

하인상의
생각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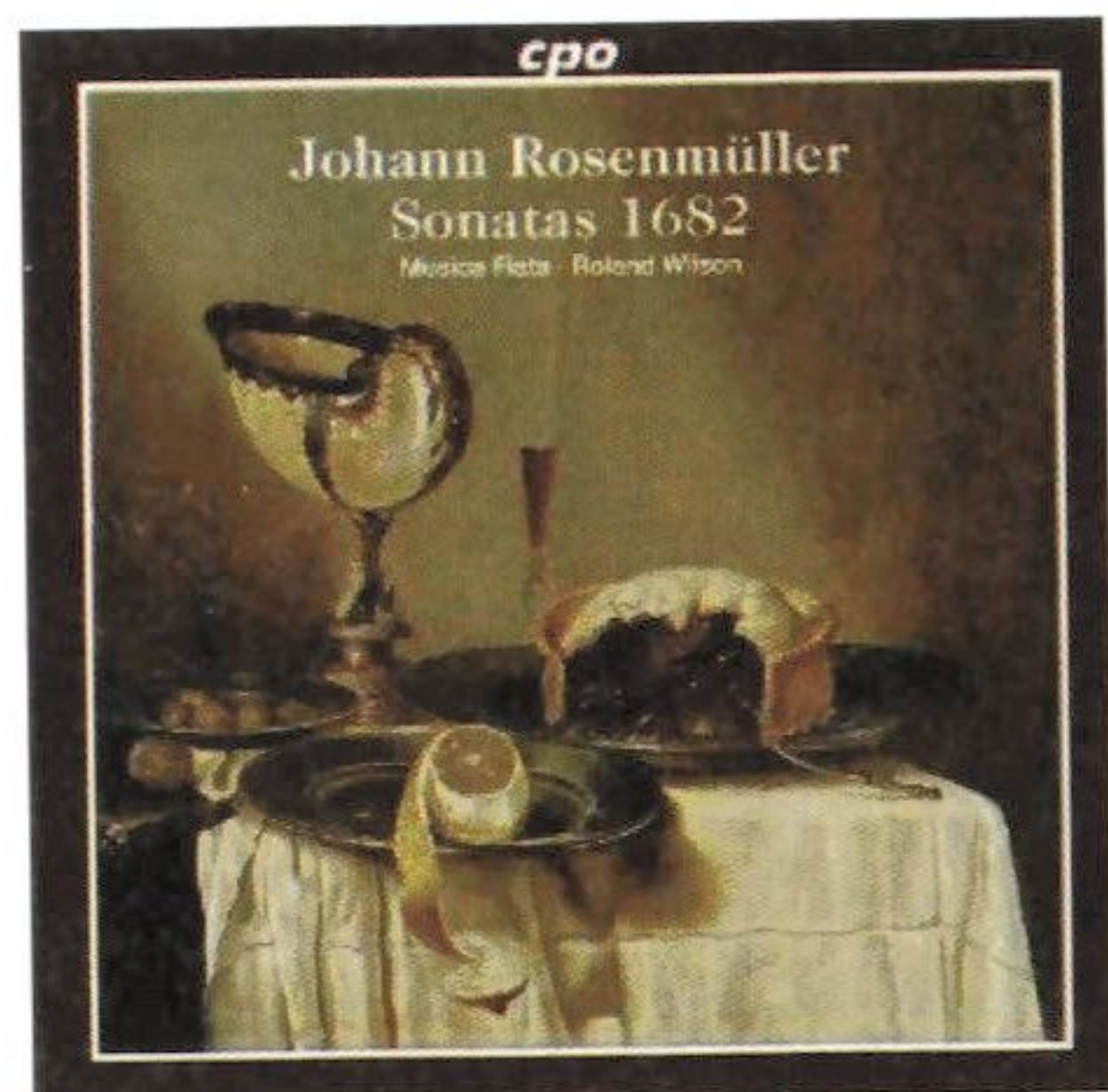
Metaphortoon



자유 90x90 paper on silk screen printing

봄은 아직 멀리 있지만 마음은 어느새 아지랑이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다. 도심의 일상사에 넌더리가 날 때면 하늘을 나는 유년의 추억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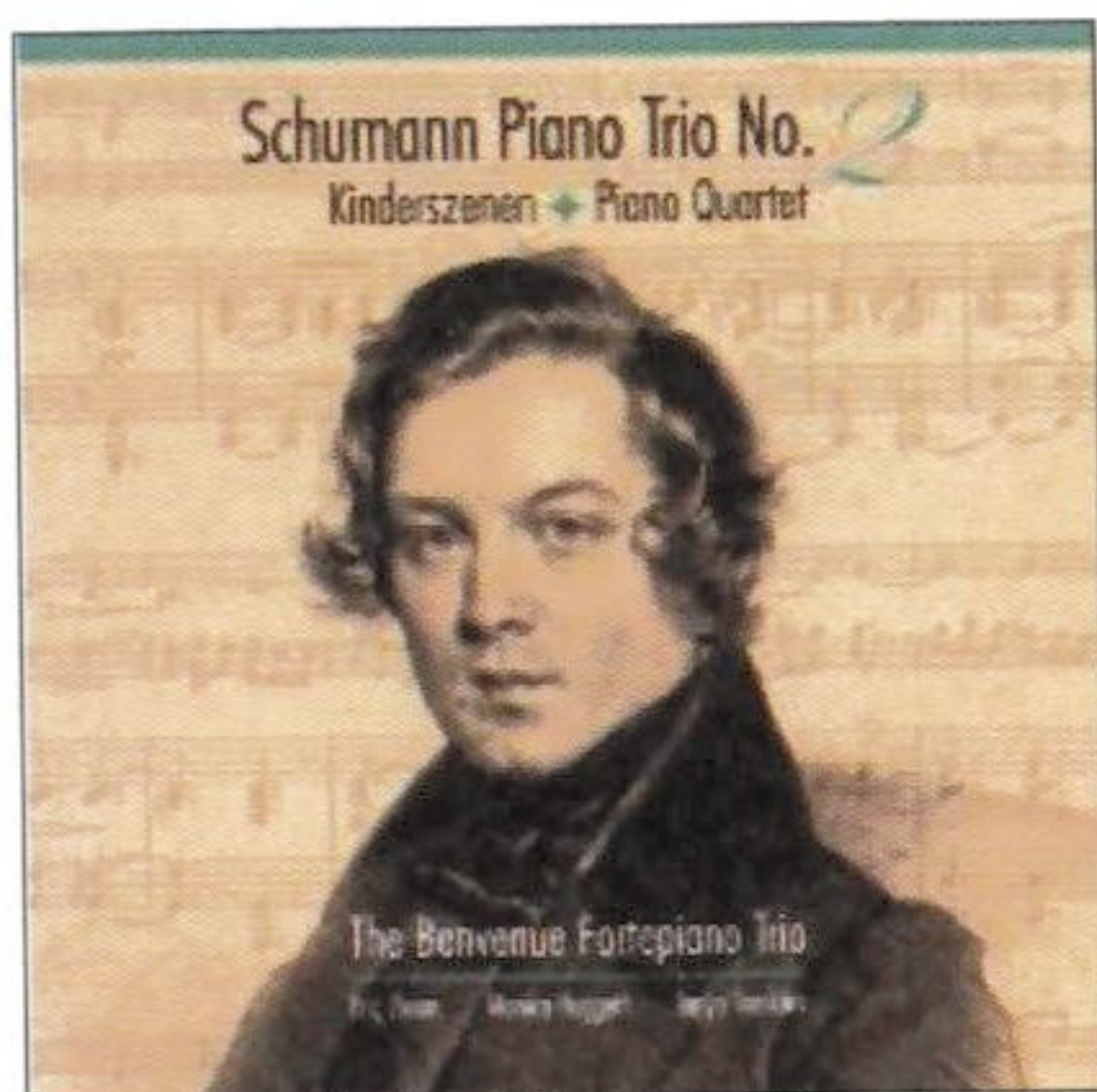
메타포투니스트 · 시인



요한 로젠뮐러 1682년 소나타집

롤란드 월슨(지휘), 무지카 피아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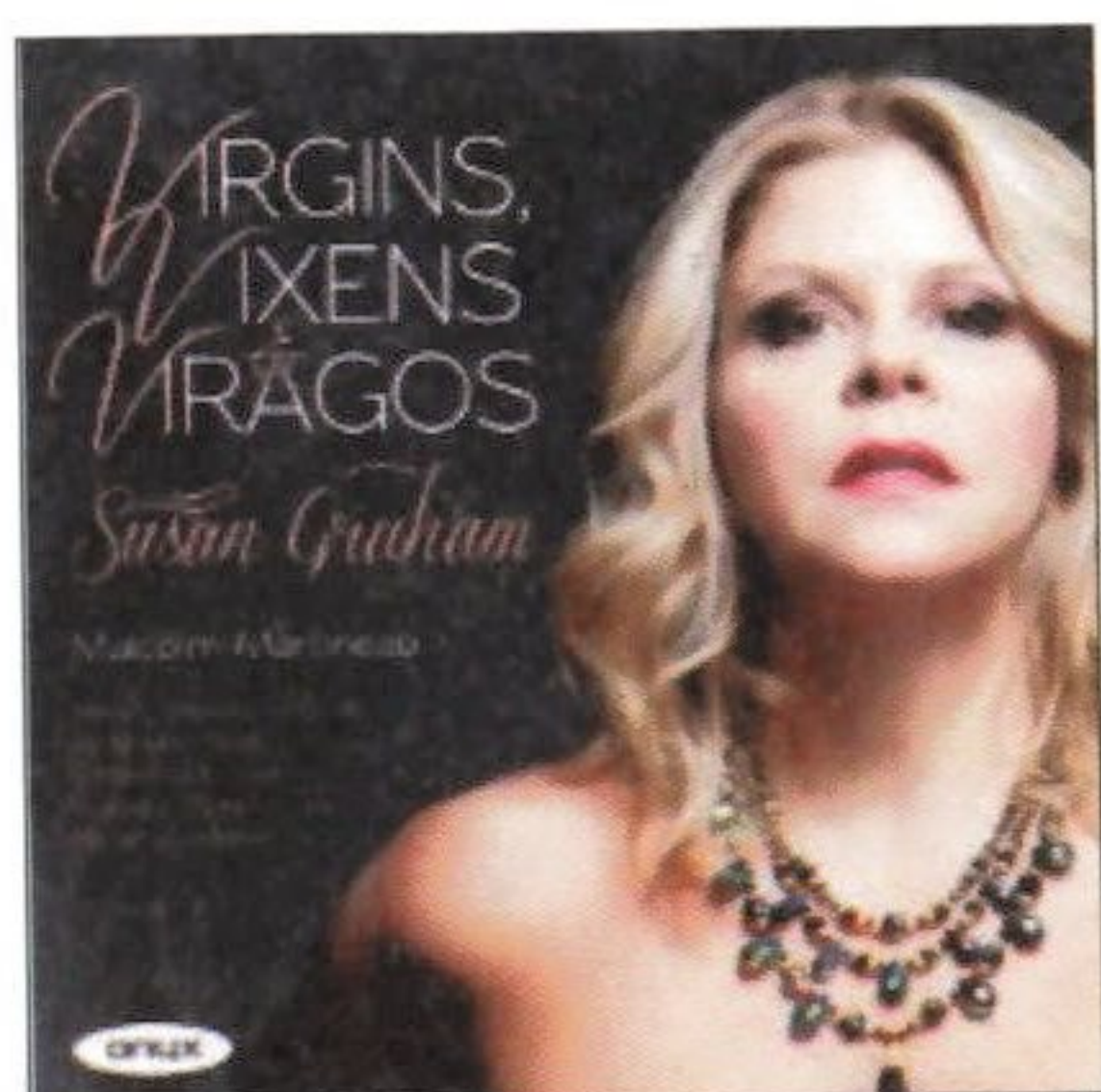
최근 들어 가장 화려하게 부활한 바로크 작곡가를 꼽으라면 아마도 요한 로젠뮐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슈츠와 바흐 사이의 독일 작곡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가 중 한 명인 로젠뮐러의 음악은 이제 까지 주로 교회음악을 중심으로 알려졌지만 롤란드 월슨과 무지카 피아타는 그의 2~5성부 소나타를 통해 또 다른 세계를 펼쳐 보인다. 1682년에 출판된 이 소나타들은 로젠뮐러가 오랫동안 활동했던 베네치아 음악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북독일 전통과 베네치아의 새로운 음악이 가장 이상적으로 결합한 명곡(피터 울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슈만 피아노 트리오 2집

피아노 트리오 2번 F장조, 피아노 4중주 E플랫장조, <어린이의 정경>
벤베뉴 포르테피아노 트리오(에릭 치비언, 모니카 허깃, 타냐 톰킨스)

모니카 허깃이 이끄는 벤베뉴 포르테피아노 트리오가 찬사를 받았던 1집에 이어 슈만의 피아노 트리오와 실내악 작품 2집을 선보인다. 1841년제 빈 스타일 포르테피아노를 중심으로 한 옛 악기들이 들려주는 유리알처럼 선명한 텍스처와 균형 감각, 살롱 음악 풍의 친밀한 대화는 슈만 트리오 해석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벤베뉴 포르테피아노 트리오의 또 다른 수작인 피아노 4중주 E플랫장조, 그리고 에릭 치비언의 섬세한 피아니즘과 악기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돋보이는 <어린이의 정경>도 쉽게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연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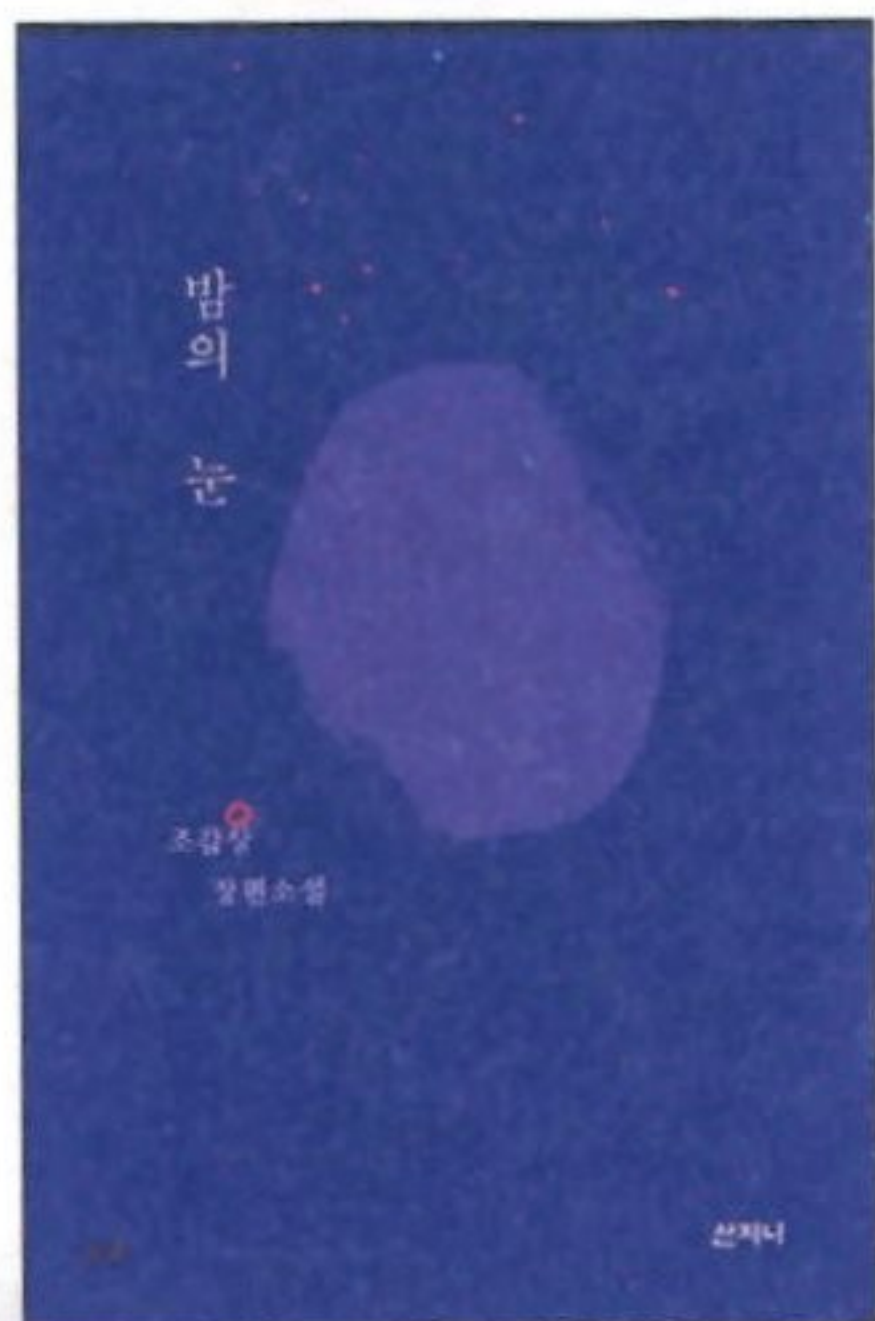


수잔 그레이엄이 부르는 여성의 노래들

퍼셀, 베를리오즈, 풀랑크, 포터, 듀크, 손드하임의 가곡
수잔 그레이엄(소프라노), 말콤 마르티노(피아노)

이 시대 최고의 가곡 해석자 중 한 명인 수잔 그레이엄이 만장일치의 찬사를 받았던 프랑스 가곡집에 이어 오랜만에 신작을 선보였다. 이번 음반에서 그레이엄은 여성을 다룬 다양한 노래를 모았는데, 헨리 퍼셀에서 20세기 카바레 송에 이르는 폭넓은 스펙트럼과 다양한 해석에 그저 놀라게 될 뿐이다. 청순한 소녀에서 광기에 빠진 오펠리어, 음울하고 사악한 맥베스 부인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내면을 표현하는 섬세한 감각은 큰 감동을 주며, 특히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에 나오는 미몽의 노래에 곡을 붙인 6명의 작곡가의 곡을 모은 작은 시리즈는 경력의 절정에 오른 그레이엄의 정수만을 모아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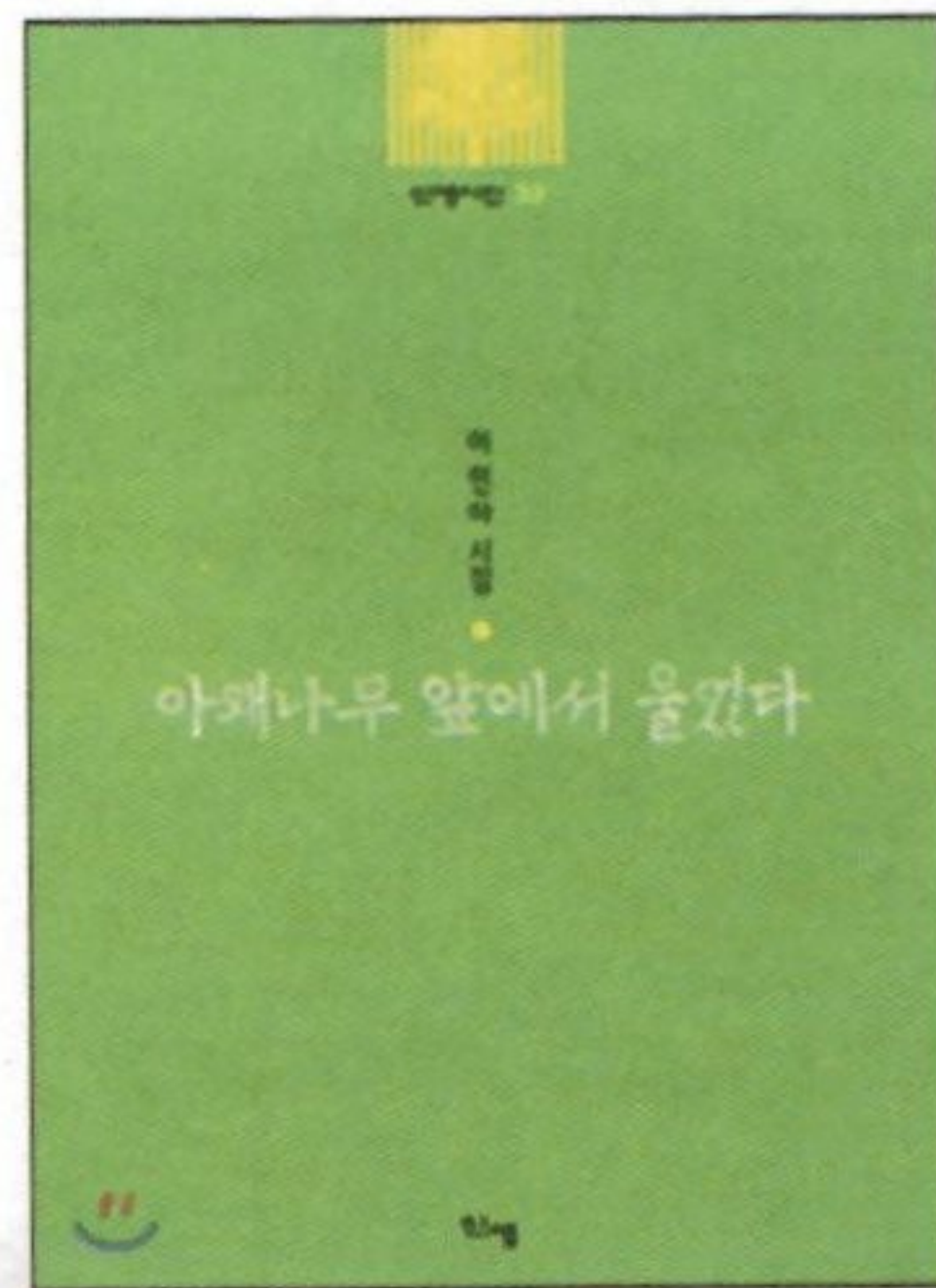




밤의 눈

조갑상 지음 / 산지니 / 400p / 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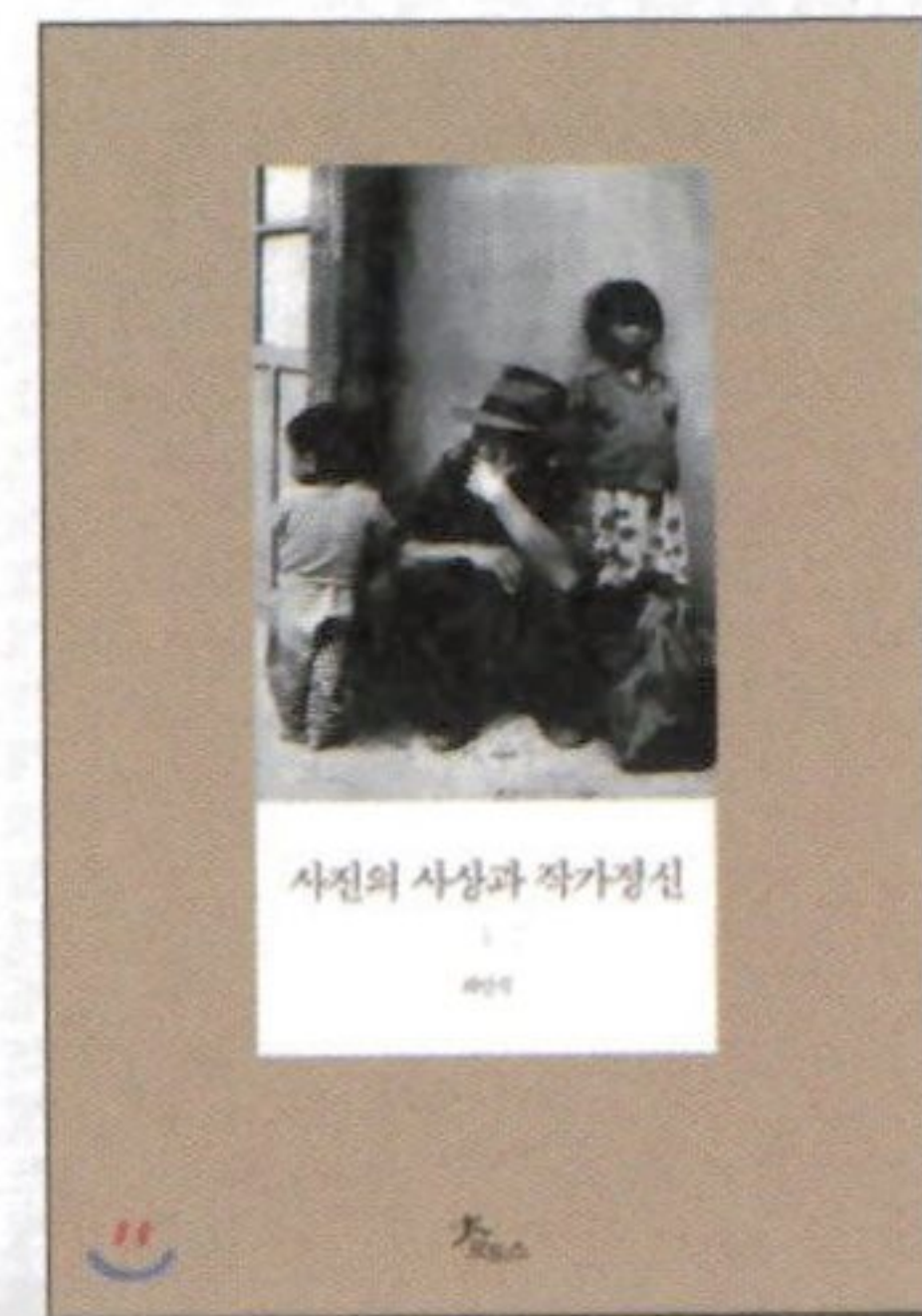
부산에서 활동하는 중견작가 조갑상이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작가가 이 작품을 준비한 시간은 10년을 훌쩍 넘는다.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부터 5·16군사정변의 1960년대, 그리고 부마항쟁이 일어난 1970년대까지,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고스란히 되살려 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6·25전쟁 당시, 가상의 공간 대진업을 배경으로 국민보도연맹과 관련된 민간인 학살을 다루었다. 최근 <남영동 1985>와 <26년> 등 과거사를 재조명하려는 영화들이 잇달아 개봉돼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소설 역시 맥락을 함께 한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지난 날의 고통의 기록이고, 희생을 위한 위로이다. 경남 의령 출신인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6·25전쟁과 얽힌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고 한다. 국민보도연맹은 전쟁의 격전지가 아니었던 경남지방에서도 많은 민간인 피해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작가는 제목 <밤의 눈>에서 '밤'은 어두운 시대를, '눈'은 암흑 속에서도 진실을 뚜렷이 보고 있는 증인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는 세상을 떠나고, 전후세대는 전쟁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여기서 출발했음을 일깨워주는 작품이다.



아왜나무 앞에서 울었다

이민아 지음 / 신생 / 149p / 8천원

2005년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시 '혁필화를 보며'로 당선된 이민아 시인이 등단 8년 만에 첫 시집을 냈다. 2007년에는 동아일보와 매일신문 신춘문예에서도 시조가 나란히 당선돼 큰 기대를 모았던 터라, 그의 시집 발간을 반기는 사람들이 많다. '아왜나무'는 불에 잘 타지 않고 잎에 윤기가 있어 방화용이나 생울타리용으로 이용되는 수종이다. 시인은 이 나무의 이름을 빌려 와 삶의 고통을 어루만진다. <아... 왜... 하며 울었다 / 왜... 왜... 하며 울었다>로 시작하는 시 '아왜나무 앞에서 울었다'는 시집 제목이 되어 독자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시인은 어린 세 자녀를 두고 집을 떠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업 등 평탄하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도 1998년 부경대 국문학과 첫 문예창작 특기생으로 입학해 시인의 꿈을 키워왔다. 그 아픔조차 시인의 마음 속에서 삭혀져 시가 되었고, 그 시는 또 다른 아픔을 가진 독자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이민아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남송우 평론가의 발문부터 읽어도 좋다. 시인의 대학 시절부터 지켜보았던 평론가는 우리가 익히 봐 온 형식의 평론이 아니라, '시인이 된 제자에게 부치는 편지'를 썼다. 시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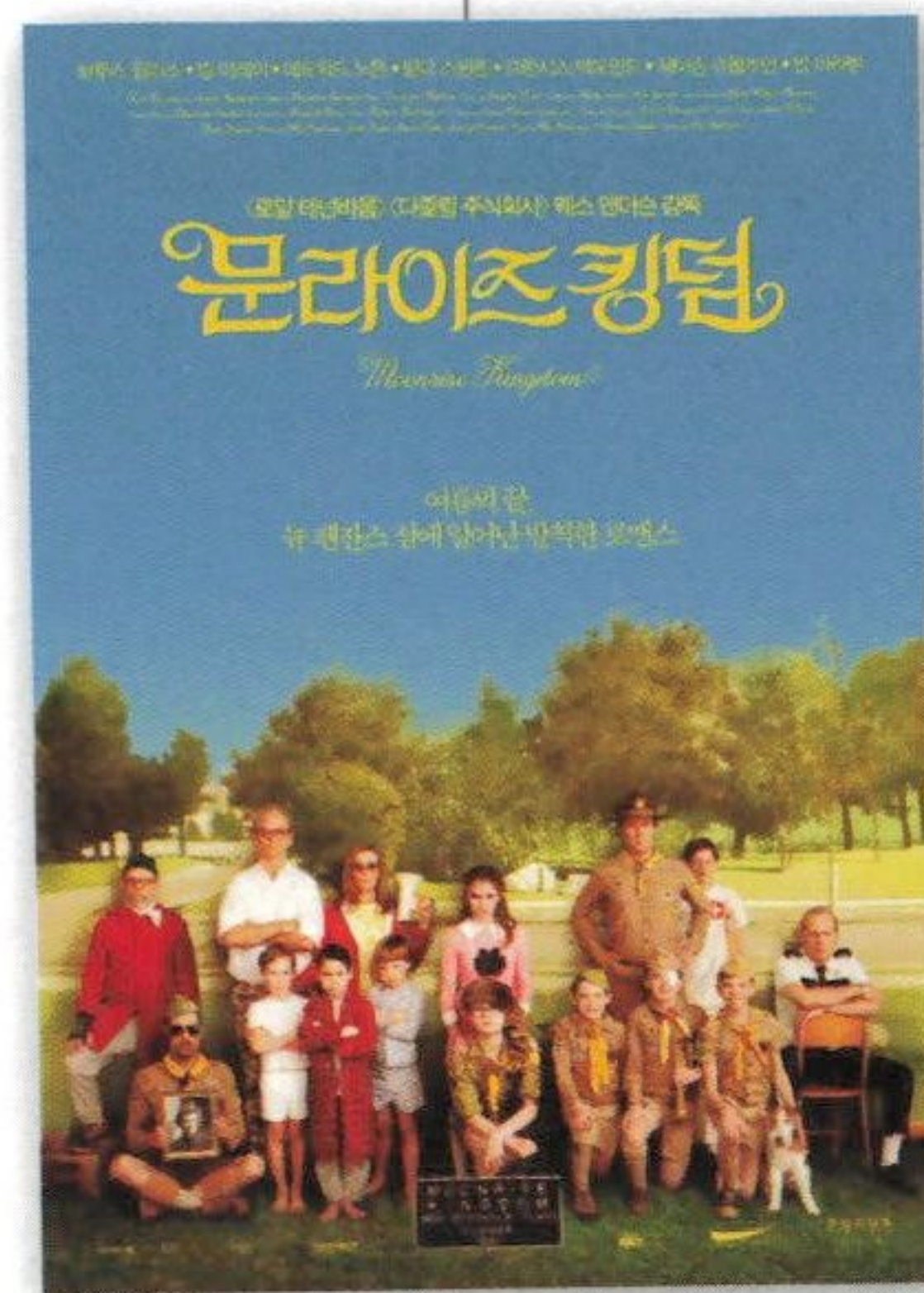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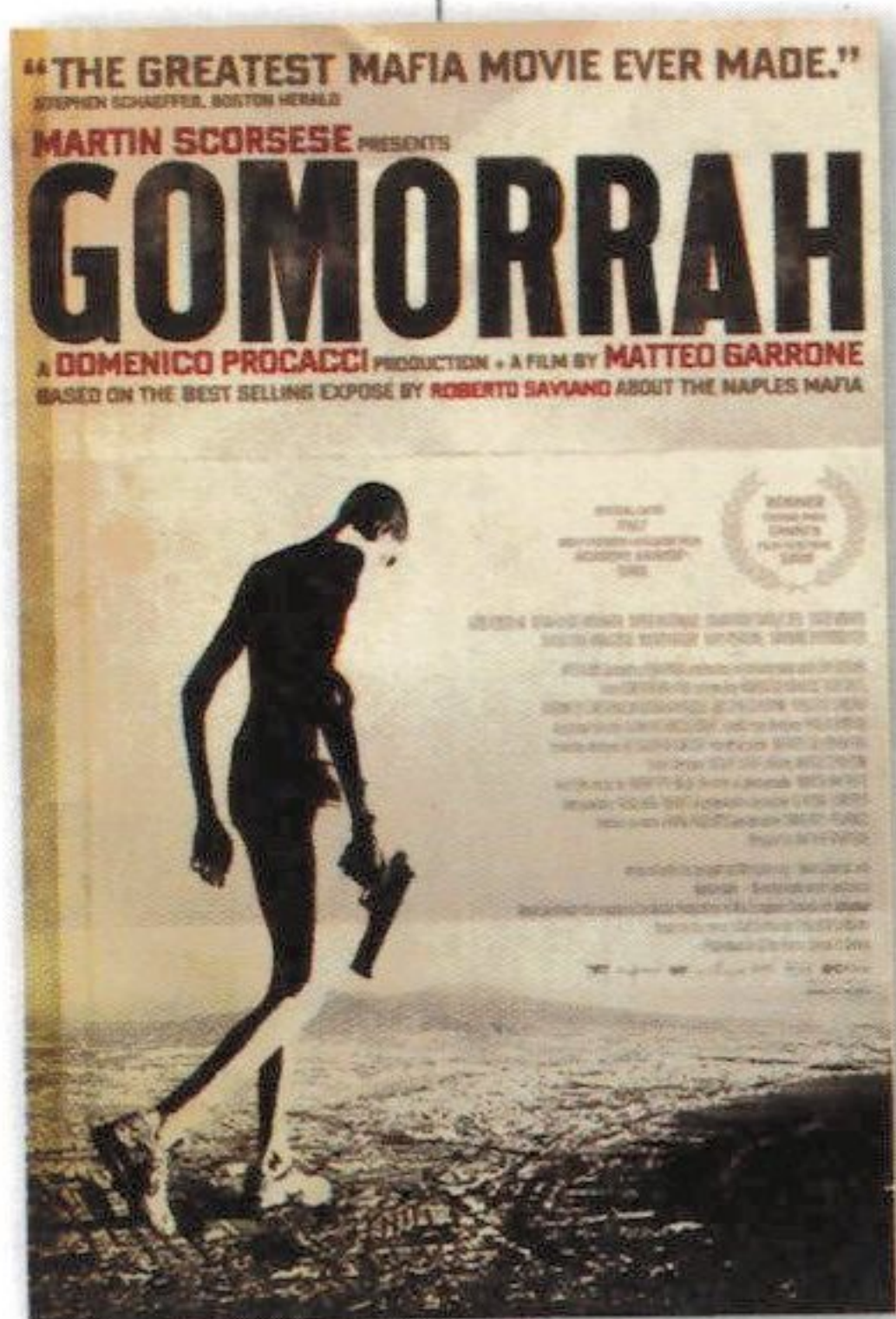
사진의 사상과 작가정신

최민식 지음 / 로도스 / 344p / 1만8천원

자갈치 시장이 현대화되면서, 진짜 자갈치와 아지매들은 그의 사진으로만 남았다고 한다. 사진작가 최민식.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들고 길을 걸으며 사람들과 사람이 사는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던 최민식이 55년 사진인생을 책으로 엮었다. 최민식은 대한민국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이다. 1928년 황해도 연안에서 태어났으나, 부산에 오래 살면서 활동했기에 '부산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이다. 1967년 도쿄 중앙미술학원 디자인과 2년 과정을 수료하면서, 독학으로 사진을 공부했다. 우연히 에드워드 스타이켄의 사진집 <인간 가족>을 접한 후 그 영향을 받아 주로 인간을 소재로 한 사진을 평생 찍어 왔다. 1968년 개인 사진집 <HUMAN(인간)> 제1집을 펴낸 후, 2010년 제14집까지 출간했다. <종이거울 속의 슬픈 얼굴> 외 여러 권의 에세이집과 <사진이란 무엇인가> 등의 사진 평론집을 출간했고, 놀라운 열정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셔터를 누르며 글쓰기와 강연을 함께 하고 있다. '이 시대에 사진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했다는 그는 '사진의 사상'과 '작가정신'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사진과 예술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반성들을 엮어냈다.



SPECIAL MOVIE



21세기의 문제작들

1월 29일-2월 24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국내에서 상영되지 않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시네아티스트들의 21세기 수작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상영회가 열린다.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에서는 2월 24일까지 포르투갈 영화사의 살아있는 전설 마노엘 드 올리베이라의 '불확실성의 원리'를 비롯해 21세기 발표된 국내 미개봉작 18편을 상영하는 특별기획전 '21세기 문제작들'을 마련한다. 이번 상영전에서는 뉴저먼 시네마를 대표하는 독일 거장 베르너 헤어조크의 '그리즐리 맨'과 헝가리의 거장 벨라 타르의 '런던에서 온 사나이', 이탈리아 영화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 신예작가 마테오 가로네의 '고모라' 등 쉽게 만날 수 없는 문제작들을 상영한다. 특히 2월 13일에는 영화평론가 한창호와 함께 마테오 가로네의 '고모라'를 관람하고 이탈리아 영화의 최근 경향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한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마피아 조직 카모라의 실상을 고발한 작가 로베르토 사비아노의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고모라'는 지난 2008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고모라'의 작가 로베르토 사비아노는 이 작품을 발표한 후 카모라족의 지속적인 살해위협으로 24시간 경찰경호를 받고 있으며, 국제적 작가단체인 '펜(FEN)'으로부터 '해럴드 핀터 국제 용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네마 프리즘 12

1월 31일-2월 20일 영화의전당 소극장

영화의 다양성을 추구한 최신작을 소개하는 시네마 프리즘 12번째 상영전이 열린다.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는 1월 31일까지 2012년 칸영화제 개막작이자 독립영화의 오스카라 불리는 2012 고담 어워즈 작품상을 수상하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화제작 웨스 앤더슨 감독의 '문라이즈 킹덤'을 비롯해 최신작 6편을 소개한다. 1965년 뉴 펜잔스섬에서 벌어진 발칙한 로맨스를 담고 있는 '문라이즈 킹덤'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면서 연인이 된 이웃사이드 샘과 수지가 어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들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벌이는 모험의 과정을 흥미롭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밖에 상영전에서는 2012년 칸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작으로, 누명을 쓴 주인공이 공동체의 광기어린 폭력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과정을 다룬 토마스 빈테르베르 감독의 '더 헌트', 2012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촬영상, 칸 국제영화제 황금카메라상을 수상하며 2012년 최고의 영화로 꼽힌, 환경과 인간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담은 벤 제틀린 감독의 '비스트',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두 주인공이 결혼이라는 현실에서 겪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담은 박배일 감독의 '나비와 바다', 남녀간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애니메이션 '늑대아이', 대만의 비극적 현대사를 세친구의 사랑과 우정속에 감각적인 영상으로 담아낸 양아체 감독의 '여친남친'이 상영된다.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영화 '프레셔스'

2월중 국도아트홀

골목을 지나가는 것만으로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뚱뚱하고 못생긴 주인공 '프레셔스'. '귀중하다'는 좋은 뜻을 지니고 있지만 정작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지경이다. 프레셔스는 엄마의 애인에게 성폭행당해 이미 한 아이를 출산했고, 지금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 엄마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딸과 손녀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면서 딸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 두 번째 임신 사실이 탄로나자 프레셔스는 학교에서마저 쫓겨난다. 아무 기대 없이 대안 학교를 찾은 프레셔스. 그곳에서 레인 선생님을 만나 읽고 쓰기를 익히면서 배움에 눈뜨기 시작한다. 그리고 엄마가 지배하는 집을 나와 자신의 삶을 바꿔나간다. 리 다니엘스 감독의 영화 '프레셔스'는 절망적인 현실이 얼마나 끈질기게 프레셔스를 짓누르는지, 그러나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데 성공한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피워내는 프레셔스의 이야기를 통해 가슴 찡한 감동을 자아내는 영화 '프레셔스'는 201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색상 등 여섯 개 부문 후보에 올라 여우조연상, 각색상을 수상했다.



2013년 첫 헤세이티 철학강좌 언어와 타자 : 현대철학 입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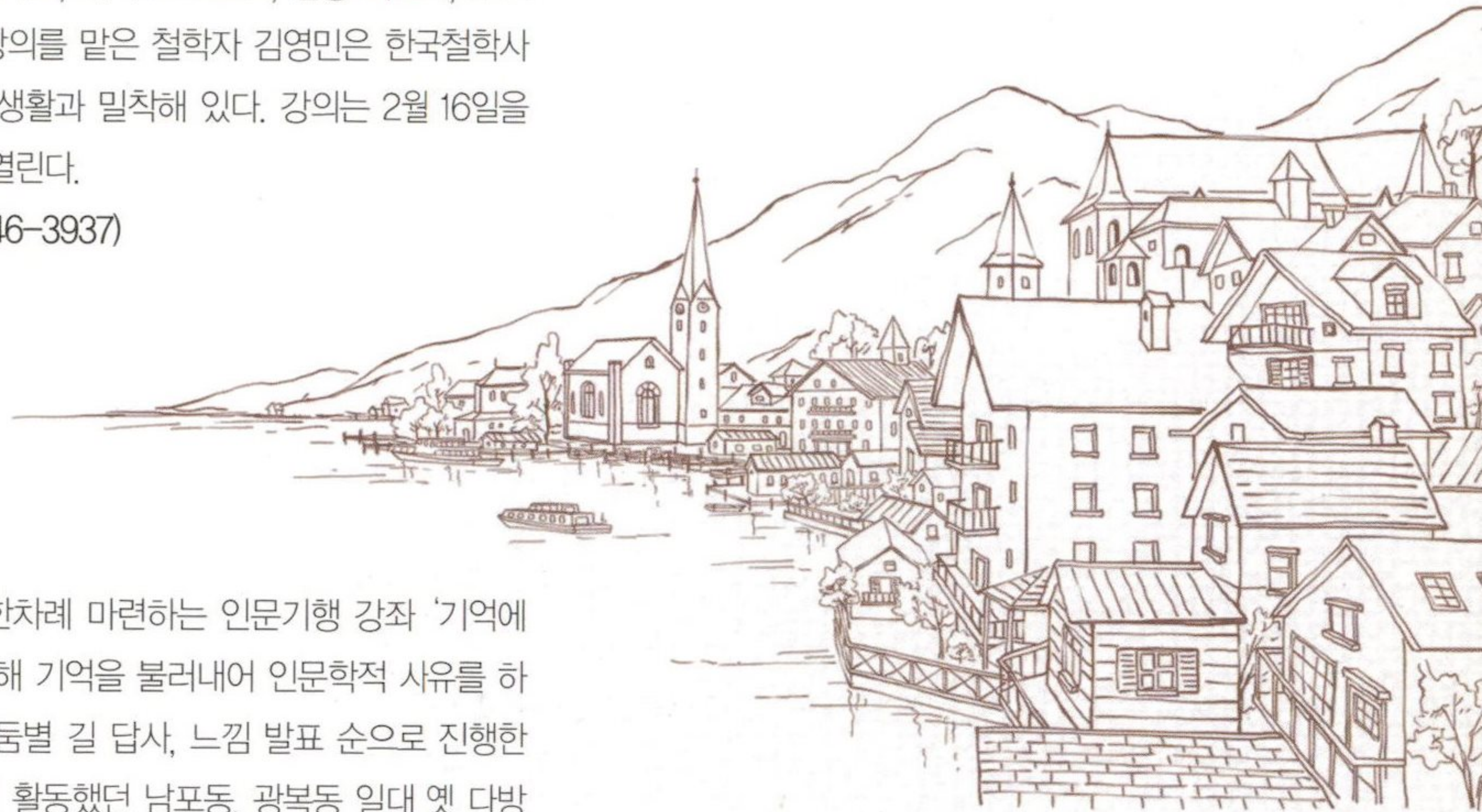
인문학 공간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인문학카페 헤세이티가 마련하는 2013년 첫 철학강좌 '언어와 타자 : 현대철학 입문(1)'. 철학자 김영민 씨가 진행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서양 현대사상사를 일람하고 그 개요와 성격을 밝힌다. 특히 20세기 철학 사상사의 지평에서 '세계' 개창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두 매개인 '언어', '타자'와 함께 우리 시대의 사상을 살피고 헤아린다. 또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가다머, 라캉, 칼 포퍼, 아도르노, 레비나스, 레비 스트로스, 롤랑 바르트, 보드리야르, 알튀세르, 르네 지라르 등 현대 사상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강의를 맡은 철학자 김영민은 한국철학사에서 가장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사유를 전개하고 있는 철학자로, 그의 철학은 생활과 밀착해 있다. 강의는 2월 16일을 시작으로 22일, 3월 2일과 9일, 16일 오후 7시부터 세시간 카페 헤세이티에서 열린다.

· 수강신청/김영민 홈페이지 jk.ne.kr/bbs/board · 문의/헤세이티(070-4146-3937)

'나락한알' 시민 인문기행 '기억에 담긴 부산 속의 길 투어' 시즌 2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과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이 오는 3월까지 매월 한차례 마련하는 인문기행 강좌 '기억에 담긴 부산 속의 길 투어' 시즌 2. '기억에 담긴 부산 속의 길 투어'는 기행을 통해 기억을 불러내어 인문학적 사유를 하는 인문기행으로 매회 3~4시간에 걸쳐 현장 근처에서 인문학 강의를 듣고 모듬별 길 답사, 느낌 발표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시즌의 테마는 부산의 인물과 관련된 길. 지난 1월 19일 화가 이중섭이 활동했던 남포동, 광복동 일대 옛 다방 길을 돌아본데 이어 오는 2월 24일에는 한국사학자 김선미 부산대학교 교수와 함께 '시대를 앞서간 불운한 천재 최치원'이라는 주제로 해운대 달맞이길을 걸어본다. 참가자는 추리문학관에서 '불운한 천재 최치원'에 관한 강의를 듣고, 달맞이길을 따라 동백섬 최치원 동상까지 걷는다. 한편 3월에는 고려가요 '정과정'의 주인공 정서가 유배를 왔던 동래 정과정 옛터와 정서의 호를 탄 과정로를 기행한다. 특히 이번 인문 기행강좌에는 김형대 화가가 동행해 매회 기행이 끝나면 '부산 속의 길'을 그린다.

· 매회 각 40명 선착순, 참가비 무료 · 문의/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463-2240, www.narak.kr)



문화매개공간 쌤 부산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쌤수다'

도시철도 수영역 4번 출구에 자리한 문화매개공간 '쌤'에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 '쌤수다'를 열고 있다. 문화매개공간 '쌤'은 부산교통공사가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매개공간 쌤이 운영하는 부산시민들을 위한 문화 사랑방으로, 다양한 예술가들의 문화를 담아내고 부산지역 문화예술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연구사업 및 컨설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열린 '쌤수다'는 연극인, 연주자, 영화평론가 등 부산지역에서 10년 이상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문화예술인이 매주 쌤수다꾼이 되어 시민들과 자유롭게 수다를 떠는 시간으로, 1월 현재까지 총 120회의 쌤수다가 열렸다. 2월에는 연극배우 진선미(5일), 작곡가 안영수(12일), 연출가 구현철(19일), 문화기획자 건우(26일)가 시민들과의 즐거운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 문의/문화매개공간 쌤(640-7591, cafe.naver.com/artspacessam, www.facebook.com/artssam)



NEWS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음반 메모리아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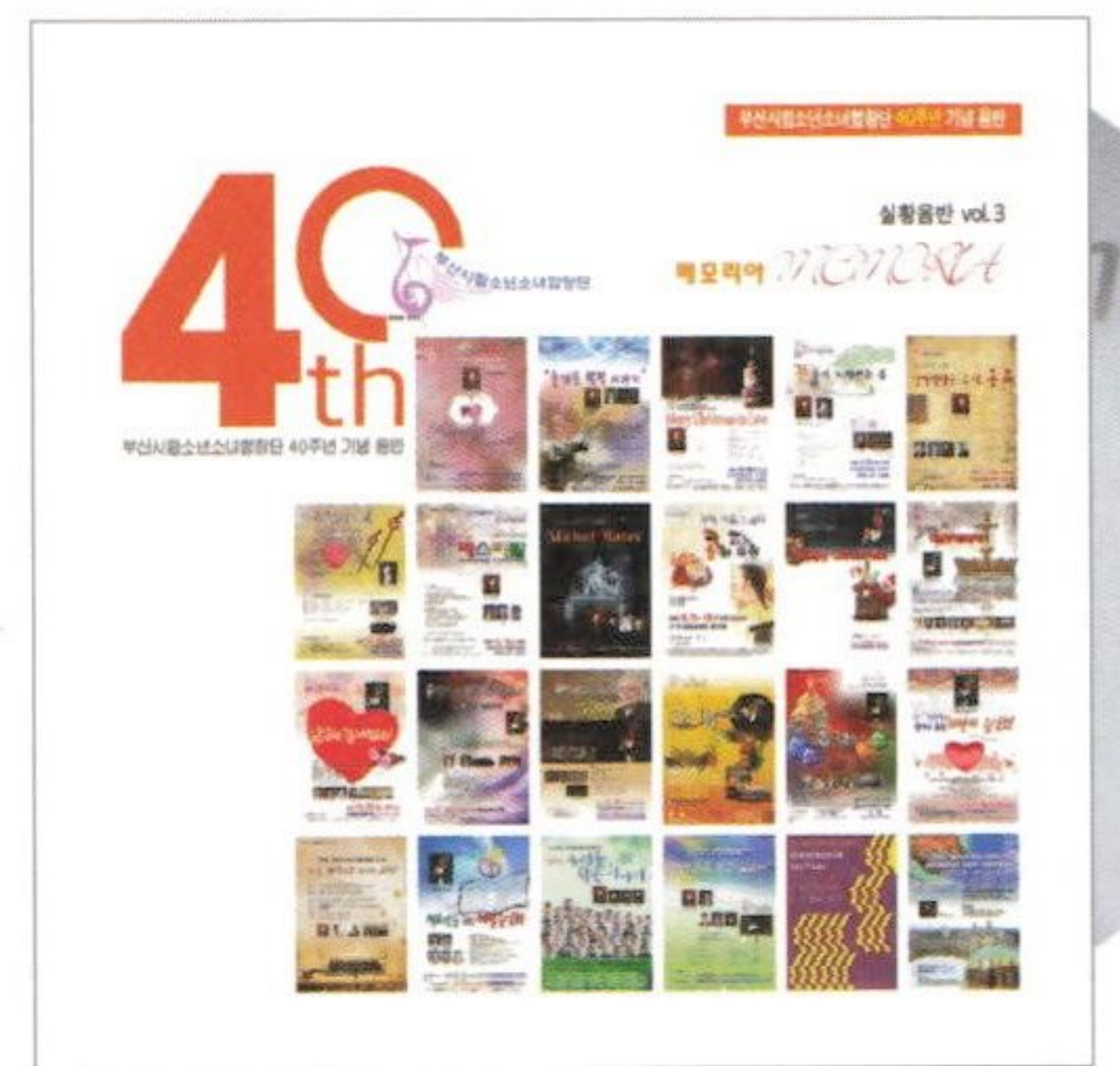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에 이어 1973년 3월 창단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 40주년을 기념,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공연 실황음반 '메모리아'를 출판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973년 창단 이래 그동안 137회의 정기연주회와 400여회의 특별·초청연주, 20여회의 해외연주로 부산시의 평화사절단으로 청소년문화 발전에 기여해왔다.

2008년 제3대 수석지휘자 전상철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999년 12월 소년소녀합창단으로는 처음으로 음반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출판했으며, 지난 2002년에는 '부산아시아게임 선수촌 문화행사' 전야제와 '북측응원단 환송식'에 참가하여 통일의 염원을 노래하였다. 2002년 합창의 해를 맞아 열린 부산합창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며 전 세계에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창단 30주년을 맞이한 2003년에는 2집 음반 '엄마 아빠와 랄랄라'를 출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제33회 할례국제어린이합창페스티벌에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현대합창부분에서 대상을 수상, 화제를 모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3년 지난 대회의 우승팀자격으로 할례를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창단 40주년 기념음반 '메모리아'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세 번째 연주실황으로 지난 공연 중에서 긴장감이 더했던 곡들을 엄선, 합창단의 지난 40년의 추억과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담았다.

이번에 수록된 곡은 제120회 정기연주회 실황(2007. 11. 10), 제136회 정기연주회 실황(2012. 9. 22)과 지난해 독일 할례에서 열린 '제33회 할례국제어린이합창페스티벌' 우승 당시의 연주 실황(2012. 5. 6)으로 세월과 함께 보다 완성도를 더하기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날 수 있다.



수록곡

도라지꽃(박지훈 곡), 날 좀 보소(박정규 곡), 농부가(김희조 곡), 도라지타령(한국민요), 신고산타령, 강강수월래, 추천가, 경북궁타령(김희조 편), 키리에, 영광, 사도신경, 페스티벌 상투스, 신의 어린양(존 레빗 곡), 울게하소서(오페라 'Rinaldo' 중(헨델 곡), 로망스(비제 곡), 라데츠키행진곡(요한 스트라우스 곡), 여화와는 나의 목자시니(나운영 곡), 키리에(최석태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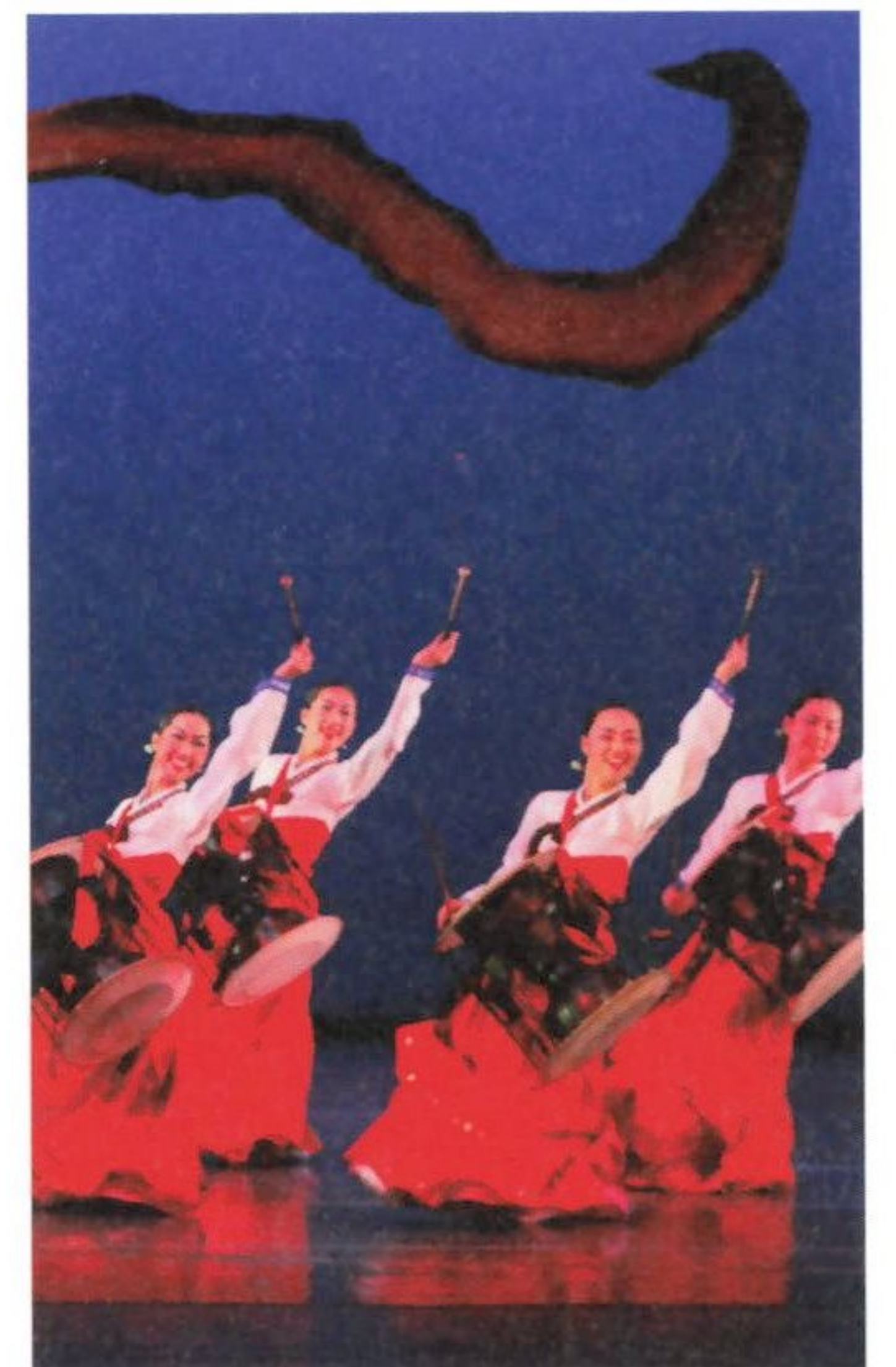
찾아가는 예술단 2월 공연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2월 공연이 확정되었다. 2월에는 우리의 전통춤 공연을 매개로 문화소외 이웃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복지관 순회공연'을 비롯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등이 펼쳐진다.

복지관 순회공연은 20일 영진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3월 8일까지 부산지역 10개 복지관에서 처용무, 장고춤, 태평무(한영숙류, 강선영류), 산조춤, 설장고춤, 부채춤, 동래학춤, 동래야류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우리춤의 매력을 선사한다.

2/20(수)	10:30	영진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복지관 순회공연-영진종합사회복지관' (출연/무용단)
2/21(목)	10:30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복지관 순회공연-서구종합사회복지관' (출연/무용단)
2/22(금)	14:00	부산정신병원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부산정신병원 찾아가는 공연' (출연/무용단)
2/25(월)	14:00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복지관 순회공연-동구종합사회복지관' (출연/무용단)
2/26(화)	15:00	금정도서관 시청각실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금정 도서관 어린이 음악회' (출연/국악관현악단)
2/27(수)	14:00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복지관 순회공연-덕천종합사회복지관' (출연/무용단)
2/28(목)	10:30	부산노인종합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복지관 순회공연-부산노인종합복지관' (출연/무용단)

문의_ 부산문화회관(607-6046)



2013년 부산시립예술단 신규단원 모집

1. 모집부문 · 인원 · 전형과목

| 교향악단 |

모집부문	실기전형 과목
상임단원 (1명)	첼로 수석 1 • 자유곡 : 협주곡 또는 소나타 제1악장 • 지정곡 <협주곡> 하이든 협주곡 D장조 제1악장 <오케스트라 엑서트> 원서접수시 배부 ※반주자 필히 대동 · 자유곡 : 협주곡 1악장
상임(1명), 비상임단원 (2명)	트럼펫 3 (상임, 비상임 2) • 지정곡 : <오케스트라 엑서트> 원서접수시 배부 ※반주자 없이 진행 · 자유곡 : 협주곡 빠른 악장(한 악장)
비상임단원 (8명)	바이올린 2 비올라 1, 첼로 1 호른 1, 트롬본 1 튜바 1, 타악기 1 • 지정곡 : <오케스트라 엑서트> 원서접수시 배부 ※반주자 없이 진행

| 극단 |

모집부문	실기전형 과목
상임단원 (1명)	홍보담당 1 배우 1 • 홍보담당-주제제시에 의한 계획서 작성(30분), 직무수행 계획서 1부(A4용지 6매이내) 원서접수시 제출 ※개인PC지침(노트북) • 배우-지정연기(당일제시), 자유연기, 노래, 특기 ※자유연기 및 특기에 필요한 소품이나 반주용 CD는 본인준비
비상임단원(10명)	배우 10 상임단원 배우 모집과 동일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병역 필한 자 또는 면제 재(남자의 경우)
 ※ 원서접수일 현재 1년이상 부산시립예술단 비상임단원 재직 경험이 있는 자 비상임단원 응시불가

● 교향악단

- ▶ 해당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201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극단(홍보담당)

- ▶ 해당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201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실력을 갖춘 재(재학생은 제외)

● 극단(배우)

- ▶ 학력 상관없이 해당분야 실력을 갖춘 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 국악, 무용, 합창, 극단 : 2013. 2. 12(화) ~ 2. 20(수) 17:00까지
- ▶ 교향 : 2013. 3. 5(화) ~ 3. 13(수) 17:00까지
 ※ 세부 전형일정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 국악관현악단 |

모집부문	실기전형 과목
비상임단원(5명)	피리 1 해금 1 아쟁 1 타악 1 신디사이저 1 • 지정곡, 창작곡 : 세부 붙임 참조 ※반드시 임보 연주, 창작곡(신디사이저는 자유곡, 지정곡) 악보(6부) 원서접수시 제출

| 합창단 |

모집부문	실기전형 과목
비상임단원(5명)	소프라노 2 알토 1, 테너 1 베이스 1 • 한국가곡 1곡 • 오페라 아리아 또는 오라토리오 아리아 中 1곡 ※선택 곡은 제한시간 4분이내, 모든 곡은 원어, 원조, 원템포로 노래 원칙, 반주자 개인 동반

| 무용단 |

모집부문	실기전형 과목
비상임단원 (4명)	한국무용 4 • 전통 또는 창작무용 中 택 1(4분이내) : 의상 및 음악 CD 본인준비 • 즉흥무(2분이내) : 당일 주제와 음악 제시 ▶ 남자 : 흰색 레오타드 상의, 검은색 한복바지, 버선 ▶ 여자 : 흰색 레오타드 상의, 7부 검은색 랩치마, 속바지, 버선 • 타악무(2분 이내) : 음악 CD 본인준비 ▶ 악기는 무용단에서 제공(무용단으로 문의) ▶ 의상은 즉흥무와 동일

※ 전 부문 해당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안내

- ▶ 공휴일 · 토 · 일요일은 제외, 지정곡 악보(교향)는 원서접수 후 배부
-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교향의 경우 우편접수자는 지정곡 악보 반송용 봉투(우편첨부) 동봉시 지정곡 악보 우송 가능
- ▶ 국악 우편접수자는 창작곡 연주악보 6부 동봉 제출

● 접수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051-607-6041~6)

4. 제출서류

- 공 통 응시원서(소정양식), 이력서,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최종학력증명서(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본 포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5. 문 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의 공고란 참조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41~6)
-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607-3115, 국악단 607-3121, 무용단 607-3132, 합창단 607-3142, 극단 607-3152)

**토요상설무대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방학숙제 때문에 친구들과 처음으로 극장을 찾았습니다. 수업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가 알고 있던 음악회는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합창단 선생님들이 쉽고 재미있는 음악회로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방학에도 기대할게요.
정이진(중구 대청동)



뮤지컬 '맘마미아'

세찬 겨울바람이 불던 날, 그 칼바람을 뚫고 맘마미아를 공연하고 있는 센텀 소향아트센터로 향했다. 최고의 공연이라는 찬사를 익히 알고 있었지만 내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맘마미아를 드디어 만났다. 10대, 20대 내 귀에 울려 퍼진 아버지의 히트곡들이 하나의 드라마로 재 탄생된 무대, 배우들의 열연, 열정이 나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
김영미(기장군 정관면)



부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시작과 마지막은 언제나 각오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찾는 시립교향악단의 신년, 송년음악회. 올해는 금년새 지휘자의 유쾌한 지휘로 신년음악회를 만났습니다. 그 유명한 비엔나의 신년음악회는 아니지만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2013년의 각오를 다지며 행복을 덤으로 받았네요.
박은정(부산진구 전포동)



**가톨릭센터 아름다운 세상21
'뮤직팩토리 라라-사랑공간'**

겨울비가 내리는 저녁, 오랜만에 아이들과 공연장 나들이에 나섰다. 가톨릭센터에서 매달 진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 21의 2013년 첫 무대로 뮤직팩토리 라라의 연주회가 열렸다. 국악연주단체로는 독특한 '라라'라는 이름만큼 새로운 국악의 매력을 만날 수 있었던 무대~. 부모와 연인, 조국 등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아름다운 국악선율을 타고 흘렀다.
손현주(연제구 거제3동)

연극 '행복'

이전부터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연극이어서 일찌감치 예매를 하고 관람 일을 기다리는 내내 먼저 행복을 맛 보았습니다. 드디어 다가온 연극 관람일, 공연 처음 등장부터 다른 공연 하고 달라 어리둥절했지만 중간 중간 나눠서 얘기해주는 동화, 너무나 이쁜 무대, 공연 내내 신나게 웃고, 신나게 울다가 왔습니다. 생활에 지친 여러분들께 행복을 위한 힐링 작품으로 추천합니다.
정미숙(동구 좌천동)

공연후기 '100자 토크'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 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식사권(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보내실곳 bsculture@naver.com

마 감 수시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지 / 난 / 호 / 정 / 답

계	사	년		히	치	꼭	베
발	인		말	토	론	토	
통	도	사	라				벤
업	문	동	래	야	류	유	
편	공			성	덕		
소	득	공	제	칭	룡	영	화
설	의		이	백			량
부	적		리	어	왕	식	
메	규				과		
프	랑	켄	슈	타	인	나	로
							호

1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김은영(해운대구 좌2동)
초대권 김현숙(남구 대연2동)
 박봉영(해운대구 좌4동)
 박연주(강서구 명지동)
 심재식(연제구 연산4동)

나랏소 김귀삼(연제구 연산5동)
식사권 문영진(금정구 구서동)
 이진영(남구 우암동)
 정현주(남구 대연동)
 황현지(해운대구 재송동)

조은극장 김소연(영도구 청학동)
초대권 김지숙(중구 동광동)
 백지연(사하구 하단동)
 송진희(부산진구 부전동)
 장은주(동구 범일동)

큰집 강연숙(연제구 거제2동)
식사권 김유성(서구 서대신동)
 박문숙(영도구 동삼1동)
 박병진(사하구 엄궁동)
 하영숙(서구 부민동)

공간소극장 | 051-611-8518
 나랏소 | 051-628-8814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3년 2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가로열쇠]

- ① 팝적인 사운드와 멜랑콜리한 멜로디를 자랑하는 캐나다 퀘벡 출신의 뉴에이지 아티스트. 오는 2월 14일 부산문화회관 기획 공연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 ④ 동계 올림픽, 세계 선수권, 4대륙 선수권, 그랑프리 파이널 등 4대 국제대회에서 그랜드 슬램을 사상 최초로 달성한 피겨의 여왕.
- ⑦ 조형미술의 하나로, 여러 가지 선(線)이나 색채(色彩)로 평면상에 형상을 그려낸 그림.
- ⑧ 소설가 현진건이 1921년 발표한 자전적 소설로, 가난한 무명작가와 양순하고 어진 아내의 이야기를 그린 단편소설.
- ⑨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무거운 비트와 전기악기의 금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록의 한 장르.
- ⑩ 7현으로 된 우리나라 현악기. 활로 줄을 문질러 연주하는데, 현악기 가운데서도 가장 좁은 음역을 가진 저음 악기이다.
- ⑫ 아르헨티나에서도 성녀와 악녀로 평가가 나뉘어지는, 후안 페론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에바 페론의 일생을 다룬 뮤지컬.

[세로열쇠]

- ① 러시아의 작곡가. 19세 때 독일에서 림스키 코르사코프를 만난 후 그의 제자가 되었다. 20세기 손꼽히는 작곡가로, 대표작으로 봄의 제전, 페트루시카, 불의 꽃 등이 있다.
- ② 벨기에의 수도.
- ③ 프랑스 작가 알렉산드르 뒤마의 소설 '춘희'를 원작으로 한 베르디의 비극 오페라. 널리 알려진 '축배의 노래'를 비롯하여 '아 그이인가'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파리를 떠나서' 등의 아리아가 유명하다.
- ⑤ 아편수입을 둘러싸고 영국이 중국에 대해 도발한 전쟁으로, 중국이 패하면서 중국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난징조약이 체결되었다.
- ⑥ 고려 중기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한국 최고(最古)의 탈놀이 가면. 병산탈과 함께 국보 제21호로 지정되었다.
- ⑩ 문학, 과학, 미술 등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학교. BC 385년 플라톤이 아테네 북서쪽에 있는 영웅신(神) 아카데모스의 신역에 청년들의 심신을 수양시켜 국정에 공헌할 인물을 배출하려는 목적으로 세운 아카데미아(Akadē meia)에서 유래했다.

- ⑬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작자 미상의 무속신화. 죽은 사람의 혼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령제(死靈祭)에서 구연된다.
- ⑭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무장(武將)으로 '삼국지연의'에서 충신의 전형으로 등장했으며, 송대 이후로는 중국 민간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다.
- ⑮ 박연폭포, 학자 서경덕과 더불어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 불리는 조선중기 명가(名妓).
- ⑰ 영국의 정치가. 세계 제2차대전 중에 노동당과의 연립내각을 이끌고 루스벨트, 스탈린과 더불어 전쟁의 최고 정책을 지도했다. 이후 반소 진영의 선두에 섰으며 1946년 '철의 장막'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 ⑳ '네 손가락'으로 사랑과 감동을 전하는 피아니스트.
- ㉑ 조선 후기 선비들의 교양음악으로 연주되던 풍류음악 가운데 대표적인 곡으로 현악, 평조, 관악 등 세 갈래의 악곡이 있다.
- ㉒ '잘 우는 개구리'라는 뜻으로, '참개구리'를 이르는 말. 아주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리기도 한다.

- ① 1,000년 가장 역사가 이어진 타이의 전통 격투 스포츠.
- ③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
- ⑤ 1970년대 한국문학에서는 거의 낯선 노동과 생산, 부와 빈곤의 문제를 즐겨 다루었던 소설가. 올해로 등단 50주년을 맞아 최근 신작 '여울물 소리'를 출간했다.
- ⑬ 고래(古來)로 드문 나이란 뜻으로, 일흔 살을 이르는 말.
- ⑮ 김지훈 감독, 하지원, 오지호, 안성기 주연의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
- ⑰ 24절기의 하나. 입춘 15일 후로 날씨가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해 새싹이 난다고 함. 2월 18일.
- ⑲ 시인, 소설가로 본명은 김해경. 초현실주의적이고 실험적인 시와 심리주의적 경향이 짙은 독백체의 소설을 써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대표작으로 시 '오감도'와 소설 '날개' '종생기(終生記)' 등이 있다.
- ㉑ 궁중 밖의 민속악(民俗樂)에 대하여 궁중 안의 의식에 쓰이던 전통음악.

다양한 제휴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종류 및 가입회비

구분	가입회비	할인매수
특별회원	50,000원	4매할인(공연회당)
일반회원	30,000원	2매할인(공연회당)
청소년회원	20,000원	1매할인(공연회당)
단체가입	30명이상 가입 10%할인	

※ 청소년 회원은 만 18세 이하이며, 회원가입시 증빙서류 제출

회원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할인율 기획공연 10~30%, 부산시립예술단공연 10~30%
혜택 월간공연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문화강좌 할인
 정기회원 테마여행(추첨), 부산시내 주요 공연장 할인, 할인쿠폰 제공

20%		토다이 센텀점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임페리얼 타워 6층	731-7000
10%		하나돈까스 센텀점 센텀SH벨리 210호	747-8244
10%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옆 가람빌딩 2층	626-2592
10%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옆 가람빌딩 1층	626-1456
20%		BS부산은행 조은극장 www.gp-gp.co.kr	1588-2757
30%		공간소극장 cafe.naver.com/ggtheater	611-8518
특별우대		N 강남하늘안과 부산 라식/라섹 수술할인, 눈종합검진지원 정기회원 및 가족 회원 전용예약 전홍국대리 805-9772, 010-8975-0460	

가입신청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 Tel. 607-3100



10여종의 신선한 육류와
20여종의 샐러드바
무한리필!



오렌지

부산문화회관과 오렌지가 함께하는 2013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이벤트

2013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오렌지 식사권 1매 증정
(200매 선착순)

오렌지 이용금액
(전 메뉴 VAT 10% 포함금액)

평일 런치	₩11,900
평일 디너	₩14,900
주말, 공휴일	₩15,900

※14세 이상 성인 기준가격

영업시간 11:30~22:30

오렌지 김해점 Tel. 055)338-0004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131-2 홈플러스 2층
오렌지 창원점 Tel. 055)237-0003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30-3 홈플러스 4층

오렌지 아시아드점 Tel. 051)502-010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08 홈플러스 B2층(CGV 맞은편)

할켜진 이 땅! 한민족의 진정한

어우이

계사니



출연

이문희, 정행심, 이현주, 김은희, 황창기, 이혁우, 염지선, 김은옥, 서보기
주은실, 김정원, 윤준기, 박준서, 박규한, 차승현, 전지은, 이수아

김소희, 신승우, 양해동, 박주현, 이종욱, 박일주, 이재경, 김창훈, 박대현

특별출연 오동주(테너), 계현순, 최지은

원작 이근삼

드라마트루기 김동규

연출 문석봉

각색 · 협력연출 오리라

인무 · 시각감독 계현순

음악 · 청각감독 강원중

기술감독 정진교

무대감독 정순지

의상 · 소품디자인 이윤정

분장디자인 이지원

분장팀 유혜미, 최유경, 정민교

조명디자인 김준범

조명팀 (주)그린조명

무대디자인 송관우

무대제작 유관호(한국무대)

영상디자인 황정남

공연진행 이종현

부산시립극단 무대감독 정순지 기획 김향숙 홍보 김미화

디자인 장준규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부산문화회관 하우스메니저 정정숙

예술감독 문석봉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극단

2013. 2. 16(토)~20(수)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3:00
평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권 균일 1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극단 607-3151

예매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서블버스은행 대연역 5번출구 (7번가 피자 앞) 오후 7시 출발

February 2013 Program Guide

Grand theater
 Medium theater
 Small theater
 Outdoor Amphi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M.J.C**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sun	mon	tue	wed
The 6th Classic Class for Citizen The Romantic Composer Series II "The Composer in Climax Period of Romanticism" 2. 6(수) 14:00~17:00 Dvorak and Nationalism 2.13(수) 14:00~17:00 Puccini and Realism 2.20(수) 14:00~17:00 Sibelius and North-Europe Music 2.27(수) 14:00~17:00 Richard Strauss and the twilight Romanticism(Confer Completion certificate)/B.P.O(607-3111~5)			
03	04	05	06
		Jeon Soo Jeong Cello Recital 19:30 Invitation/Jeon Soo Jeong(010-3900-8924)	Kim Jung Gang's Pia Invitation/Kim Jung Gang
10	11	12	13
Busan Metropolitan Theater The 46th Regular Performance 'Mother Goose' 15:00 10,000/B.M.T(607-3151)	Busan Metropolitan Theater The 46th Regular Performance 'Mother Goose' 19:30 10,000/B.M.T(607-3151)	Busan Metropolitan Theater The 46th Regular Performance 'Mother Goose' 19:30 10,000/B.M.T(607-3151) Park Sun Young's Gayaguem Concert 'Rainbow Post' 19:30 Invitation/ark Sun Young(010-2448-0823)	Busan Metropolitan Theater The 46th Regular Performance 'Mother Goose' 19:30 10,000/B.M.T(607-3151)
24	25	26	27
2013 Yiruma Concert 18:00 77,000/66,000/44,000/Hwarang Ent.(1644-5564) Chopin in Jazz 17:30 50,000/40,000/30,000/Music Wise(070-7794-5118)		The Homecoming Concert of E-hwa Women University 19:00 Invitation/Lee Nam Rye(010-5191-4207)	The Special Concert of Orchestra 19:30 Invitation July 2012 Only/B.P.O(607-3111~5) United Korean Orchestra 19:30 5,000/Lee Myung



2013
February **2**

thu	fri	sat
	01	02
		<p>📍 Saturday Regular Stage Jung Sin Hye Dance Company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07	08	09
<p>🎭 Musical 'Mil Al' 19:30 70,000/50,000/30,000/10,000/5,000 SAVICOM(070-8671-5005)</p> <p>🎻 Kang Dae Sik Violin Recital Brilliant Concert 20:00 50,000/20,000 Stage One(02-780-5054, 010-8867-5410)</p>		<p>🎻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2013 Lunar New Year's Concert' 17:00 Invitation/B.M.T.O(607-3123)</p>
14	15	16
<p>🎭 2013 Steve Barakatt Concert 'Sweet Valentine' 19:30 50,000/40,000/30,000/B.C.C(607-6057)</p>	<p>🎻 The Concert, Under the Sky Vol.32 Soran & The Solutions 20:00 3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7)</p>	<p>🎭 Busan Metropolitan Theater The 46th Regular Performance 'Mother Goose' 15:00, 19:30 10,000/B.M.T(607-3151)</p> <p>📍 Saturday Regular Stage-Fiesta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p>
21	22	23
<p>🎭 The Sepcial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Chorus 19:30 10,000/7,000/5,000/B.P.O(607-3141~2)</p>	<p>🎻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3 The Well-being Concert-Opera Highlight 1 'Rigoletto' 11:00 10,000/B.P.O(607-3111~3)</p> <p>🎹 Yu Kyung Hye's Chroma Harp Recital 19:00 Invitation/K.C.A.C.(465-3709, 010-7930-3709)</p>	<p>🎭 MASSIVE 19:30 17,000/10,000 Busan International Foreign School(742-3332)</p> <p>🎻 The 12th Regular Concert of Incorean Youth Orchestra 18:00 Invitation Incorean Youth Orchestra(010-4842-6688)</p> <p>📍 Saturday Regular Stage-Kim Se Yoon Korean Traditional Ensemble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28	3/1	3/2
<p>🎻 Busan Philharmonic Orchestra-Subscriber on 3rd Floor(070-7-3111)</p> <p>🎻 Orchestra Special Concert by Hyun(011-591-3342)</p> <p>🎭 The English Musical for Children 'Annie' 16:00, 19:30 20,000/Dreaming Children (010-7503-6564)</p>		<p>🎭 Choral Hous Mens Festival Choir's Concert 19:30 Invitation/Soongin Cultural Foundation (010-4183-2293)</p> <p>📍 Saturday Regular Stage- Nakdong Traditional Culture Preservation Association 16:00 Free (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2013년 2월 공연일정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야외공연장

sun	mon	tue	wed
제6기 시민클래식교실 낭만파 작곡가 시리즈 II '낭만주의를 절정기의 작곡가들' - 국제회의장 2. 6(수) 14:00~17:00 드보르작과 국민주의 2.13(수) 14:00~17:00 푸치니와 사실주의 2.20(수) 14:00~17:00 시벨리우스와 북유럽 음악 2.27(수) 14:00~17:0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낭만주의의 황혼 및 수료식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5)			
03	04	05	06
		● 전수정 첼로 독주회 19:30 초대/전수정(010-3900-8924)	● 김정강 피아노 독주회 18:00 초대/김정강(010-6794-3639)
10	11	12	13
17	18	19	20
● 부산시립극단 제46회 정기공연 '어무이 계사니' 15: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	● 부산시립극단 제46회 정기공연 '어무이 계사니'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	● 부산시립극단 제46회 정기공연 '어무이 계사니'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 ● 박선영의 'Rainbow Post' 19:30 초대/박선영(010-2448-0823)	● 부산시립극단 제46회 정기공연 '어무이 계사니'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
24	25	26	27
● 2013 이루마 콘서트-기억에 머무르다 18:00 7만 7천원 · 6만 6천원 · 4만 4천원 (주)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 재즈로 듣는 쇼팽 17:30 5만원 · 4만원 · 3만원/뮤직와이즈(070-7794-5118)		● 제23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귀향연주회 19:00 초대/이화여대음악대학 재부어머니회 (010-8804-4207)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초대(2012년 7월3일 공연예약)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 ● UKO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00 균일 5천원/이명현(011-591-3333)



2013
February **2**

thu	fri	sat
	01	02
		<p>☀️ 토요상설무대-정신혜 무용단 16:00 무료(선착순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07	08	09
<p>🎭 뮤지컬 '밀알'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1만원 · 5천원/SAVICOM(070-8671-5005)</p> <p>🎻 바이올리니스트 강대식의 Brilliant Concert 20:00 5만원 · 2만원 (주)스테이지원(02-780-5054, 010-8867-5410)</p>		<p>🎭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13 설맞이 국악한마당 17:00 전석초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p>
14	15	16
<p>🎭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3 스티브 바라캇 콘서트-Sweet Valentine'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p>	<p>☀️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32 소란, 솔루션스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 부산시립극단 제46회 정기공연 '어무이 계사니' 15:00,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p> <p>☀️ 토요상설무대-피에스타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21	22	23
<p>🎭 부산시립합창단 2013 특별연주회 '봄이 오는 길목에서'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p>	<p>🎭 부산시립교향악단 2013 웰빙콘서트 오페라하이라이트1 '리골레토'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유경혜 초청 크로마하프 독주회 19:00 초대/한국크로마하프예술협회 (465-3709, 010-7930-3709)</p>	<p>🎭 MASSive 19:30 1만 7천원 · 1만원/부산국제외국인학교(742-3332)</p> <p>🎭 인코리안 유스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인코리안 유스오케스트라(010-4842-6688)</p> <p>☀️ 토요상설무대-김세윤 국악실내악단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28	3/1	3/2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7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p> <p>☀️ 어린이 영어뮤지컬 '애니(Annie)' 16:00, 19:30 2만원/꿈꾸는 아이(010-7503-6564)</p>		<p>🎭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 연주회 19:30 초대/송인문화재단(010-4183-2293)</p> <p>☀️ 토요상설무대 - 낙동민속보존회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11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3 웰빙콘서트 시에 만나요!

OPERA

오페라
하이라이트

매회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해설 이동신 연출 유철우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균일 10,000원 (정기회원 30% 할인)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I. 베르디 리골레토 2.22(금)



리골레토 박대웅 질다 김유진 만토바 김기태 스페라푸칠레 홍순포 마달레나 하윤지

II. 현제명 춘향전 4.25(목)



춘향 신민원 몽룡 홍지형 변사또 한정현 향단 정재연 방자 이태영

III.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8.30(금)



산투차 구민영 투리두 김지호 루치아 성미진 알피오 고영호

IV. 푸치니 라보엠 10.31(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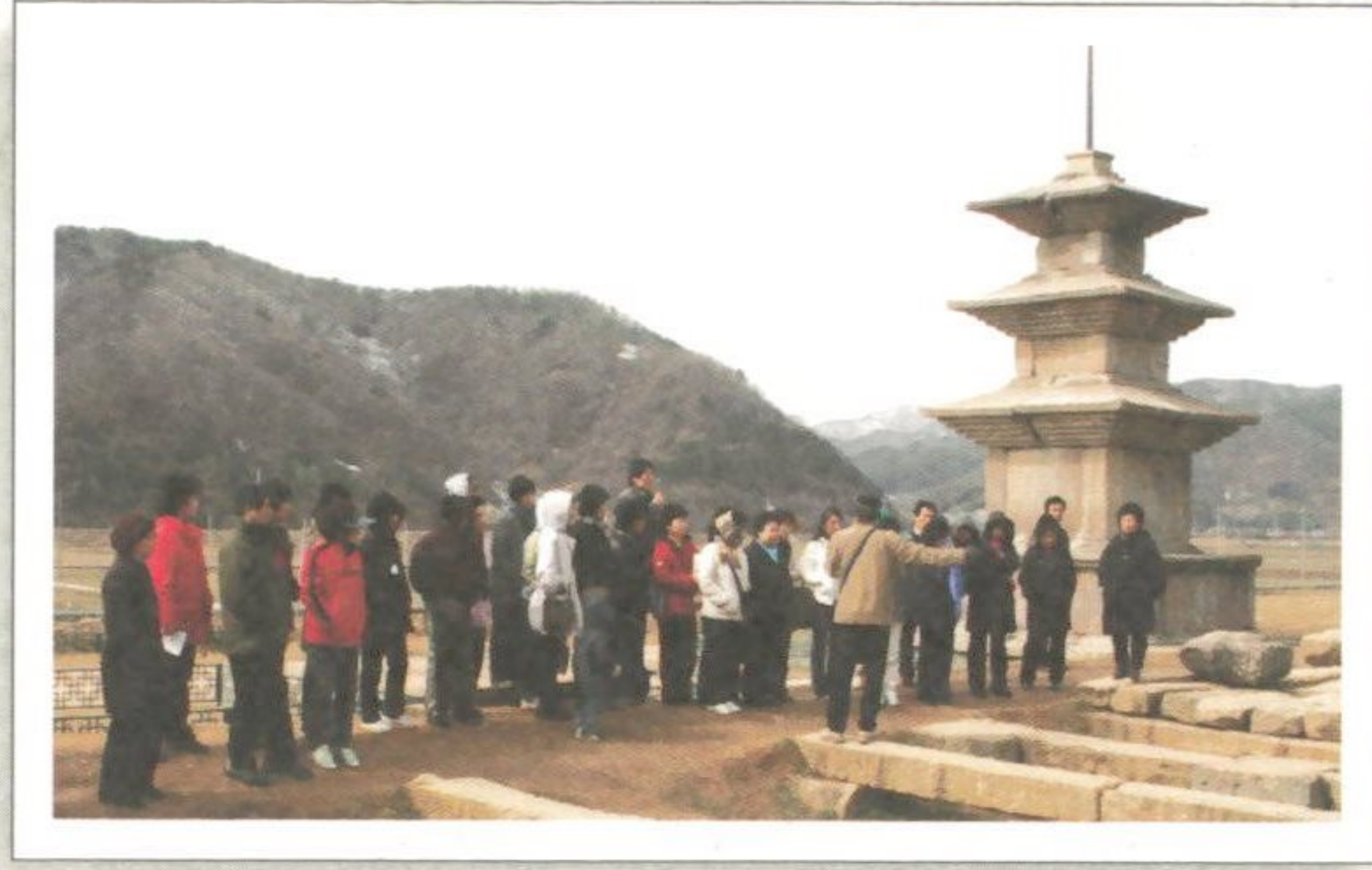


미미 윤지영 로돌포 조윤환 무제타 김혜영 마르첼로 강경원 콜라네 문동환 쇼나르 김태우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

2013년 3월 11일(금)

2006년 3월, '경주수학여행 다시가기'로 첫 걸음을 내디딘 정기회원 테마여행 7주년을 맞아 새롭게 떠나는 경주여행. 찬란한 신라의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삼국통일의 주역 화랑의 정신과 열정을 배우고 느껴보기 위해 김유신, 태종무열왕릉을 시작으로 통일신라 호국의 화신을 만나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09:30 경주도착, 김유신, 태종무열왕릉 답사
- 11:00 국궁 체험,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2:30 중식
- 14:00 골굴사, 감은사, 문무왕수중릉, 주상절리 답사
- 17:00 부산으로 출발

유쾌한 청도 봄 여행

2013년 4월 12일(금)

반시와 미나리, 소싸움으로 유명한 경상북도 청도로 떠나는 아름다운 봄 여행. 복사꽃이 만개한 청도의 봄은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 청도의 정신이 담긴 문화유적과 청도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한 코미디시장에서 유쾌한 봄을 즐긴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09:30 청도 도착, 청도읍성, 석빙고, 자계서원 등 답사
- 12:30 중식
- 14:00 성수월마을 문화체험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7:00 부산으로 출발

2013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는 회원 부담)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February Vol.254

culture.busan.go.k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센텀점

Today
Restaurant

Since 1985

20%
Discou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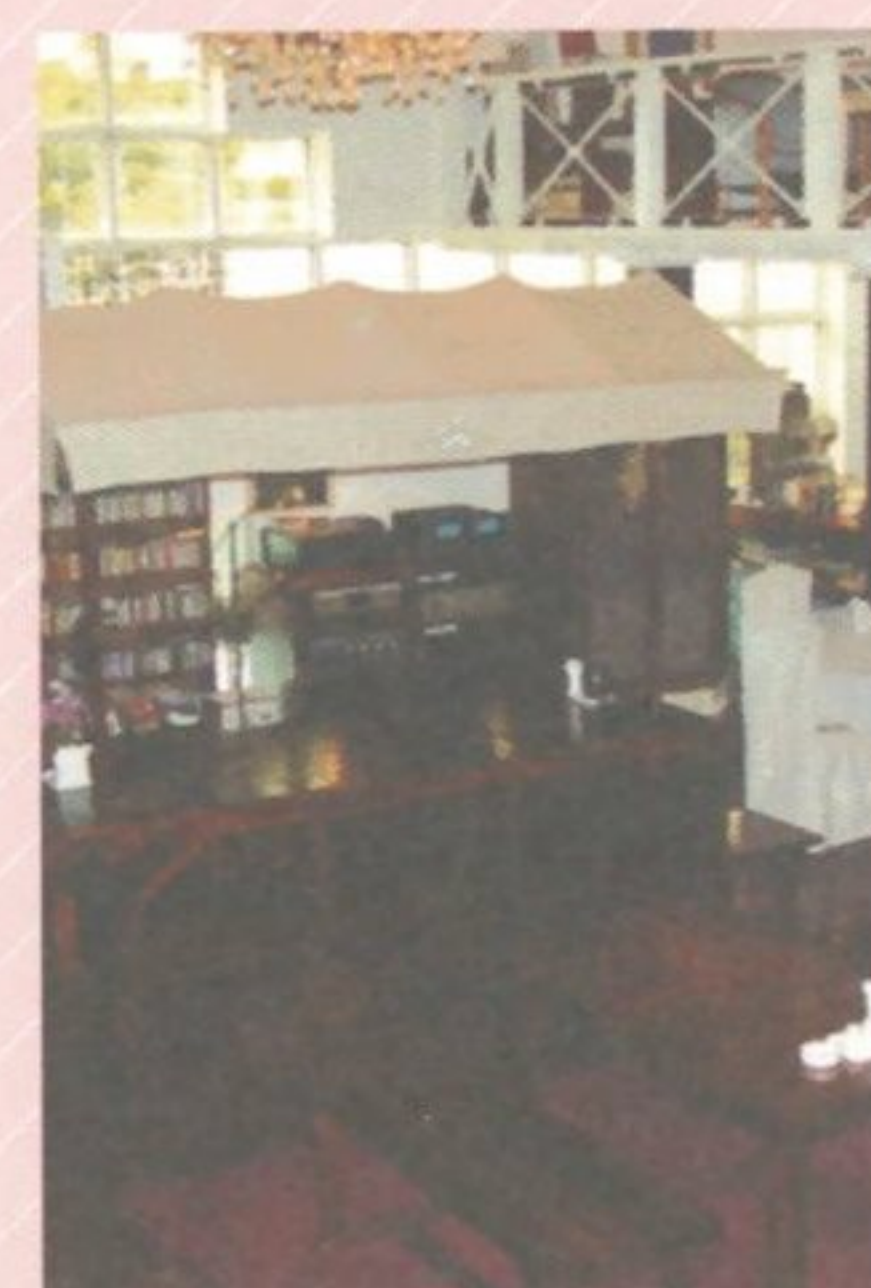
10%
Discount

MOZART



10%
Discount

센텀점
해신동국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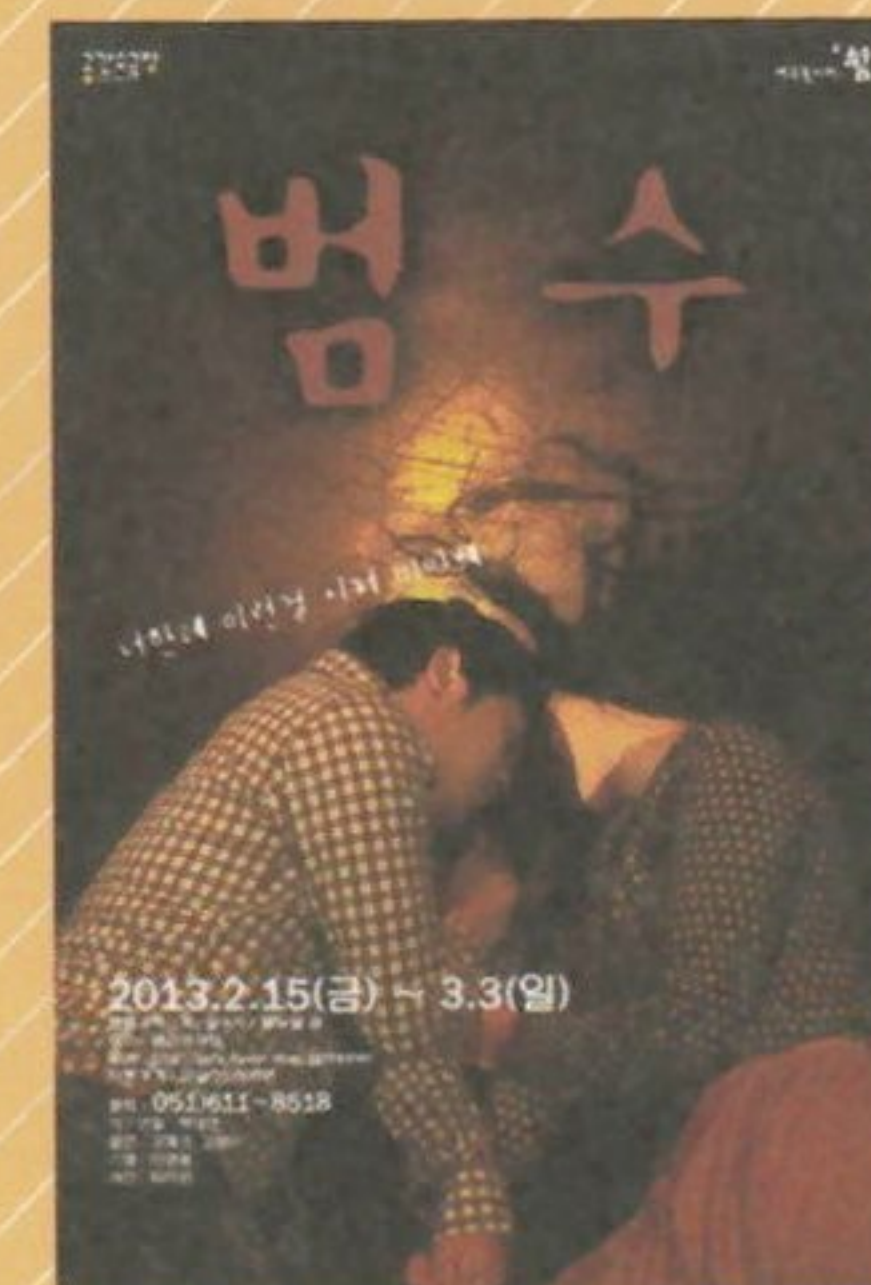
20%
Discount

연극
행복

2013.2.15. Fri. PM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예매 :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문의 : 051.607.6058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32**
하늘아래 그 콘서트

소란 & 솔루션스



30%
Discount

연극
범수

토다이 센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터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6-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가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극 '행복'

2013.1.11(금)-2.17(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 6시
(2/11 오후 3시, 2/10, 2/12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연극 '범수'

2013.2.15(금)-3.3(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2만 5천원 장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611-8518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13년 3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 자 의 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퍼즐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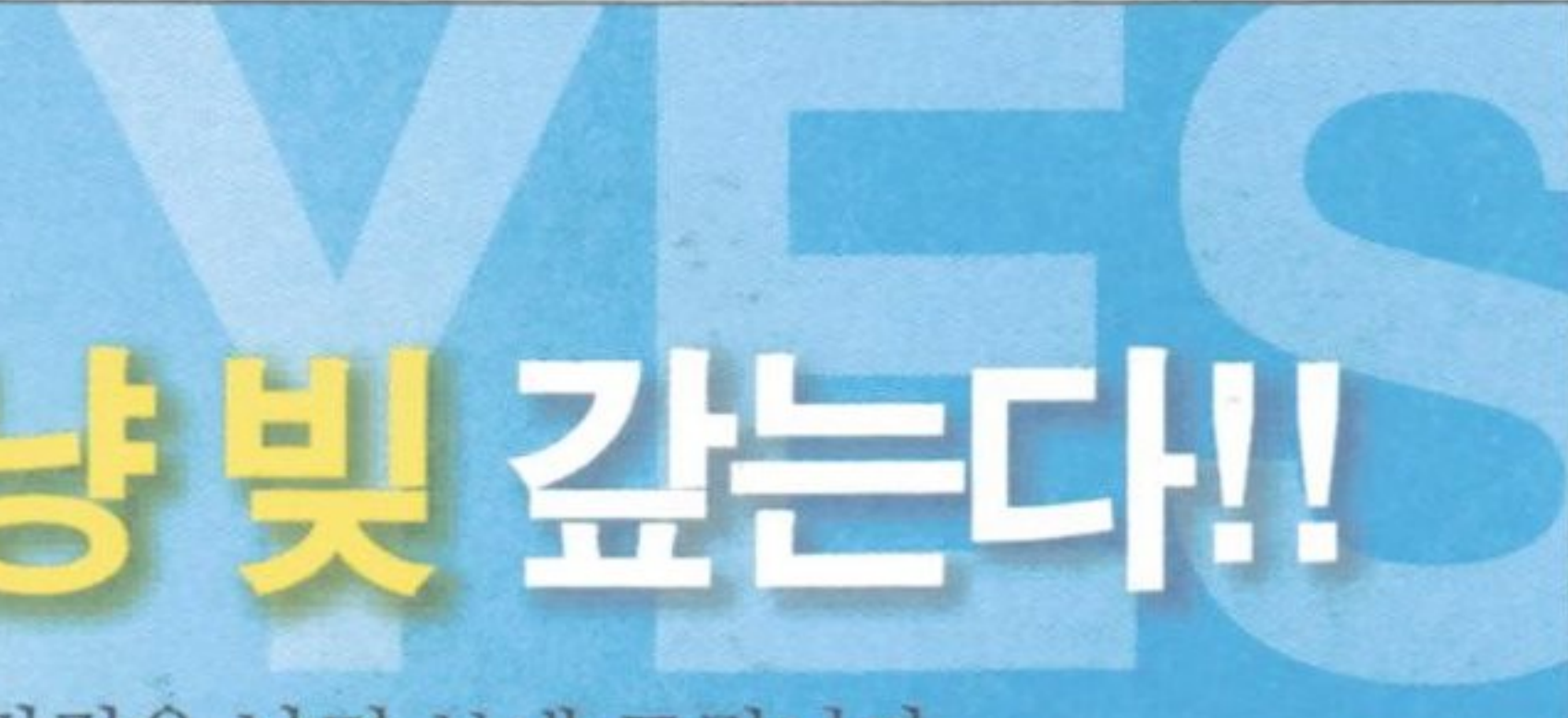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갚는다
?!

광고하나로 천냥 빛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 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The new Audi A5 Sportback

쿠페의 강렬함에, 두 개의 문이 더해졌다



The sharper drive.

The new Audi A5 Sportback의 감각은 강렬하면서도 여유롭다. 쿠페의 다이내믹한 스타일에, 세단의 실용성과 넓은 인테리어가 더해진 디자인. 아우디 TDI가 뿜어내는 최대출력 177마력의 파워. 그리고 풀타임 사륜구동 콰트로 기술의 정교한 드라이빙까지. 이것이 당신이 경험하게 될, The new Audi A5 Sportback의 The sharper drive다. www.ucaro.co.kr

전시장

- 남 천 부산 수영구 남천동 299-1 Tel) 051-611-3844
- 해운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760-3 오션타워 1F Tel) 051-740-5566
- 창 원 창원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 45-2 Tel) 055-245-2233
- 울 산 울산 남구 삼산동 1532-13 Tel) 052-257-3883

서비스센터

- 남 천 부산 수영구 남천동 532-68 Tel) 051-628-0056
- 민 락 부산 수영구 민락동 155-1 Tel) 051-626-0056
- 창 원 창원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 45-2 Tel) 055-245-0999
- 울 산 울산 남구 삼산동 1532-13 Tel) 052-227-2255

아우디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주)

■차종 및 표준연비 · 차종명: 아우디 A5 Sportback 2.0 TDI quattro (배기량: 1,968cc, 공차중량: 1,772kg, 자동 7단), 복합연비: 15.0km/l (도심연비: 12.9km/l, 고속도로연비: 18.8km/l), 등급: 2등급, 복합CO2배출량: 131g/km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주문 사양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형세단의
상식을 벗어난

크기



정통 중형세단의 모범답안
월 297,432원으로 만나십시오.

앞서가는 기술만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다 _ The new Passat

공간이 넓어질수록 연비는 떨어진다는 상식조차
누군가는 극복해야 했기에 오리지널 독일 세단
파사트가 상식을 초월한 공간으로 당신을 찾아갑니다
이제 당신의 프리미엄에 공간을 더하십시오

The Original German. Volkswagen

월 297,432원으로
독일 프리미엄 정통 중형세단 파사트의 오너가 되십시오!

* 유예할부 / 금융리스 월납입금 36개월 선수금 30% 상환유예 65%

본 프로모션은 기간 경과 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The new Passat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 혜택1. 나에게 딱 맞는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
- 혜택2. 신차교환프로그램 적용
- 혜택3. 4~5년차 소모성 정비 서비스 쿠폰 지급



Volkswagen. Das Auto.

Your Volkswagen Partner

유카로오토모빌(주)

www.ucaro.co.kr

[부산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2-32
Tel. 051-611-5500

[창원 전시장]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 45-3
Tel. 055-245-7788

[울산 Office]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13
Tel. 052-257-3443

[부산 서비스 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2-9
Tel. 051-628-5533

[창원 서비스 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 45-3
Tel. 055-245-8383

[자동차표준연비] Passat 2.0 TDI (전장/전폭/전고 4870/1835/1485 mm, 1969cc, 1563kg, CO₂ 135g/km, 복합연비 14.6km/l (도시 12.8km/l 고속도로 17.9km/l), 250km, 최고출력(ps/rpm) 140/4200, 최대토크(kg.m/rpm) 32.6/1750~2500)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행위-차량적재-경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